2015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회 수상작품집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인쇄_ 2015년 11월 28일
발행일_ 2015년 11월 28일
발행처_ 예산문화원 / 자암기념사업회
발행인_ 김시운 · 김충희
기획_ 박세진
행정지원_ 김상희, 박지혜
주소_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예산문화원)
Tel_ 041)335-2441, 333-2441
Fax_041)334-4330
디자인/인쇄_ 디자인나무
Tel_010-2430-9253

※ 본 책자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015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발 · 간 · 사

조선 4대 명필 중 한 분이시자 기묘명현으로 충 · 효 · 예 모두를 실천하신 충남 예산출신 자암 김구 선생님의 함자를 아로 새기어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실시하였던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이 201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3회 대회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서예 문화의 본향이라 자부하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올해가 3회 대회이지만 본 대회를 통하여 충청남도 예산출신 자암 김구선생님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서예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지고 자암의 학문과 사상이 곧 충청의 정신임을 깨닫기 위한 자리로 거듭나 지리라 확신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격이 충청남도지사상으로 격상 된 한해였으나, 자암선생님의 화산별곡을 작품화 시켰던 장원작품이 출품자의 본의 아닌 오자판명으로 인하여 장원수상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됨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듯 후학들이 오류 없이 바른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자암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며,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인수체라는 필법을 창안하시어 조선중기 이후 화려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초석을 놓으신 자암 김구 선생님의 충 · 효 · 예 삼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실천의 문화가 대한민국 정신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모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본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선4대 명필 자암 김구 서예대전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5년 11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축 ·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수상하신 분들은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막하는 테이프 컷팅식이 이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시상식을 경축하면서, 뛰어난 필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서예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상식과 전시회 준비에 수고하신 예산문화원 김시원 원장님과 자암기념사업회 김충희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심사위원님과 역대 초대작가님 그리고 김영호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감사와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 전기 4대 명필로 추앙받는 자암(自菴) 김구 선생은 조선 중종(中宗) 때 명신이자 대학자로, 학문과 예술에 깊은 소양을 지녔던 자랑스러운 인물이십니다.
특히, 인수체(仁壽體)라 불리는 선생의 초서는, 마치 춤을 추는듯한 독특한 서풍이 워낙 뛰어나고 출중해서 중국인들이 선생의 필첩을 사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산은 우리 나라 서예사의 대표적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 그리고 조선 전기 4대 명필로 추앙받는 자암 김구선생, 초서의 성인으로 불린 아계 이산해와 동국진체의 창시자 옥동 이숙 선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서예예술의 본향이라고 자부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서예작가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보람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다들 명망 높은 작가로서의 명성 또한 얻으시는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전시회 기간 내내 군민들의 행복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대 성황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축 · 사

제3회 조선 4 대 명필 자암 김구 전국 서예 대전에 인고의 세월을 녹여 묵향의 진수를, 자신 만의 작품 세계로 담아 출품하여 오늘 그 영광의 수상작 시상 과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주신 전국의 세예인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 하옵고 축하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조선4대 명필 자암 김구 전국 서예 대전 에서는 상격을 공식화 하여 예산군수상과 군의회의장상을 신설하였고 올해 제3회 대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상으로 상격을 격상하여 자암 김구 전국 서예 대전이 계속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인수체라는 필법과 조선 4대 명필 이라는 자암 선생의 학문과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리라 다짐 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 특히 본 대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 김영호 예산군의회 의장님, 김시운 예산 문화원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 제4회 자암 김구전국 서예 대전에도 전국의 서예인 여러분들의 우수한 작품을 많이 출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강건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5년 11월

자암기념사업회장 **김 충 희**

심 · 사 · 평

예향의 도시 “예산” 예산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예산군청, 충청남도, 자암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제3회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에 심사위원장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선 4대 명필인 자암 김구선생과 해동서성인 추사 김정희선생을 배출한 서예의 본고장으로 지금도 많은 후학들이 각 분야에서 예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문화원에서는 김시운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합하여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을 실시하고, 가을에는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를 주관하는 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부정이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낙관을 가린 채로 개별심사를 한 후 점수를 집계하여 입선, 특선을 결정하고 차하, 차상은 분야별 심사위원 합의로 정하였으며. 장원은 분야별 차상작품을 올려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원작품은 자암집에 있는 김구 선생의 시로써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현장 휘호까지 하였으나, 내용 중 한 글자가 원문과 다르게 쓴 것이 발견되어 모든 심사위원의 합의 하에 본인에게 통보한 후 장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는 장원이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품자는 먼저 모집요강을 잘 살펴보고,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글자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글씨보다 정성스럽게 써야하며, 원문의 출처를 찾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품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상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타깝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본 대회를 주관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9월

심사위원장 **이 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심사위원

이 름	경 력 사 항
문 인 화	
이 일 구	· KBS 이사 · 한국 캘리그라피 협회장 · 추사휘호대회 심사위원 역임
김 대 원	· 문학박사 ·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한 글	
정 혜 영	· 서예통신강좌 교수 · 국전 초대작가 · 경기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장 윤 정	· 추사휘호대회 초대작가 · 국전 초대작가 · 추사휘호대회 심사위원 역임
한 문	
이 완	· (사)추사체연구회 회장
노 선 숙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석사 졸업 · 안산시 여류 서예가 협회 회장 · 경기도 미술협회 서예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조선 4대 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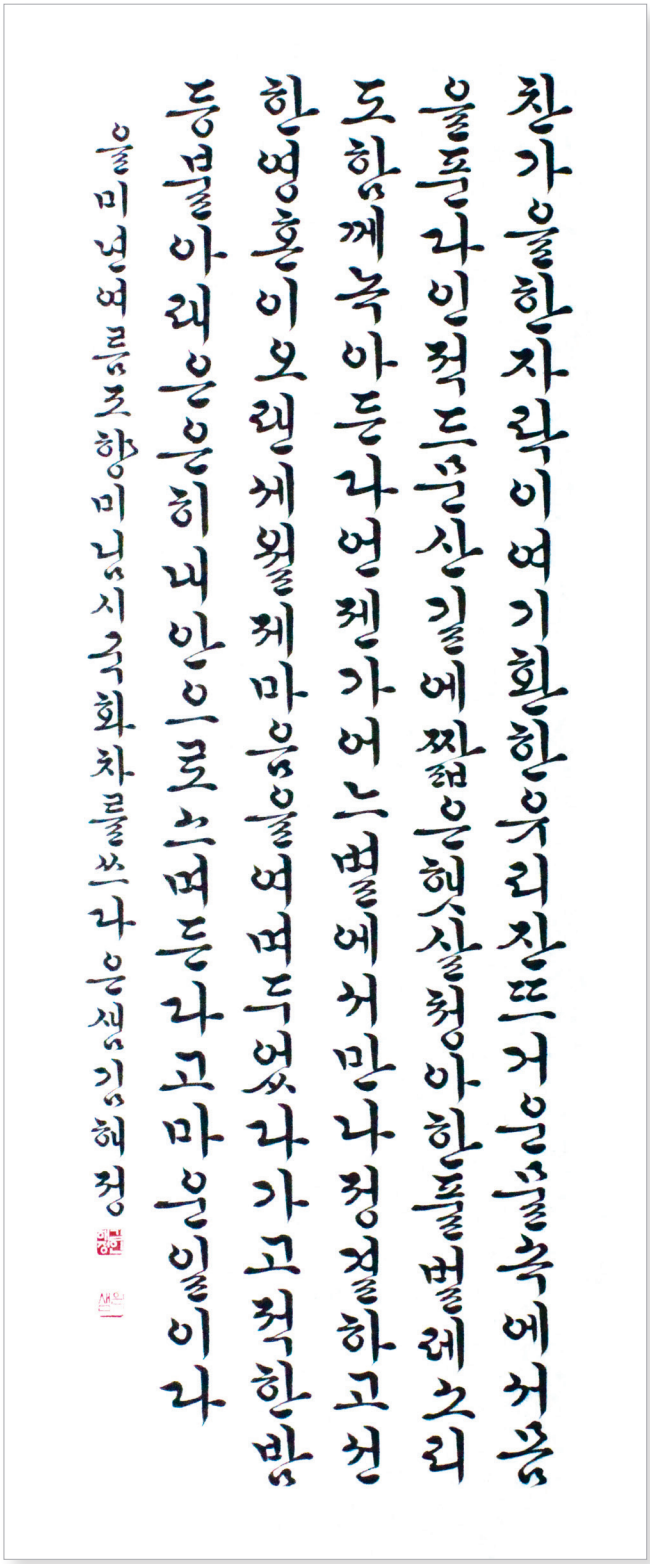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차 상

신 미 림	문인화
김 해 정	한 글
윤 경 숙	한 문

문인화 _ 차 상

신 미 림


찬가을한자락이며기환한우리잔뜨거운눈속에서금
을품고인적드문산길에짧은햇살쳐야한톨벌레스리
도함께숙아든나언제가어느벌에서만나정겹하고건
한영혼이오랜세월제마음을여며두었다가고적한밤
등불아래은은히내인이로스며든다고마음일이나
을미년여름조향미니시구화차를쓰다은생김해정

김 해 정

한글 _ 차 상

윤 경 숙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차 하

안 은 미	문인화
유 순 식	문인화
최 정 화	문인화
권 명 숙	한 글
서 정 숙	한 글
윤 재 기	한 글
김 상 용	한 문
박 순 도	한 문
유 현 진	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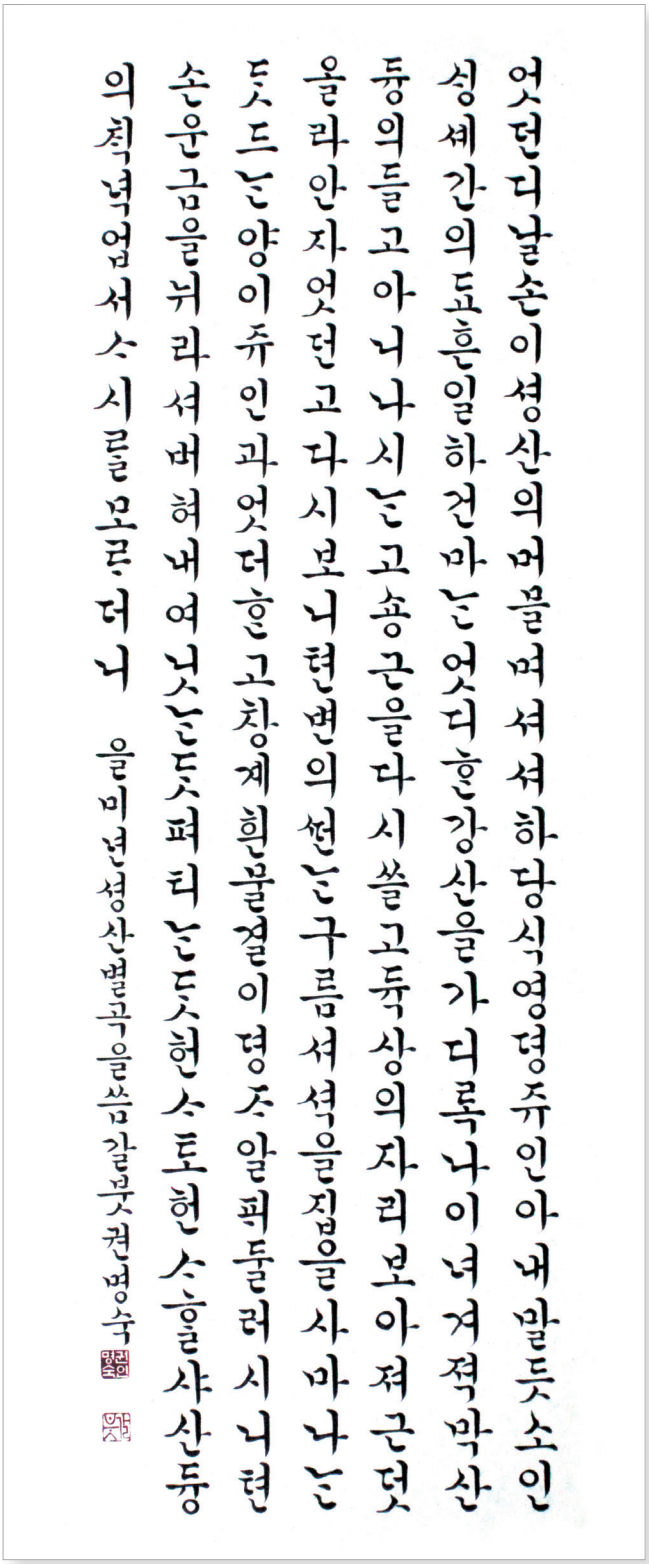
문인화 _ 차 하

안 은 미

유 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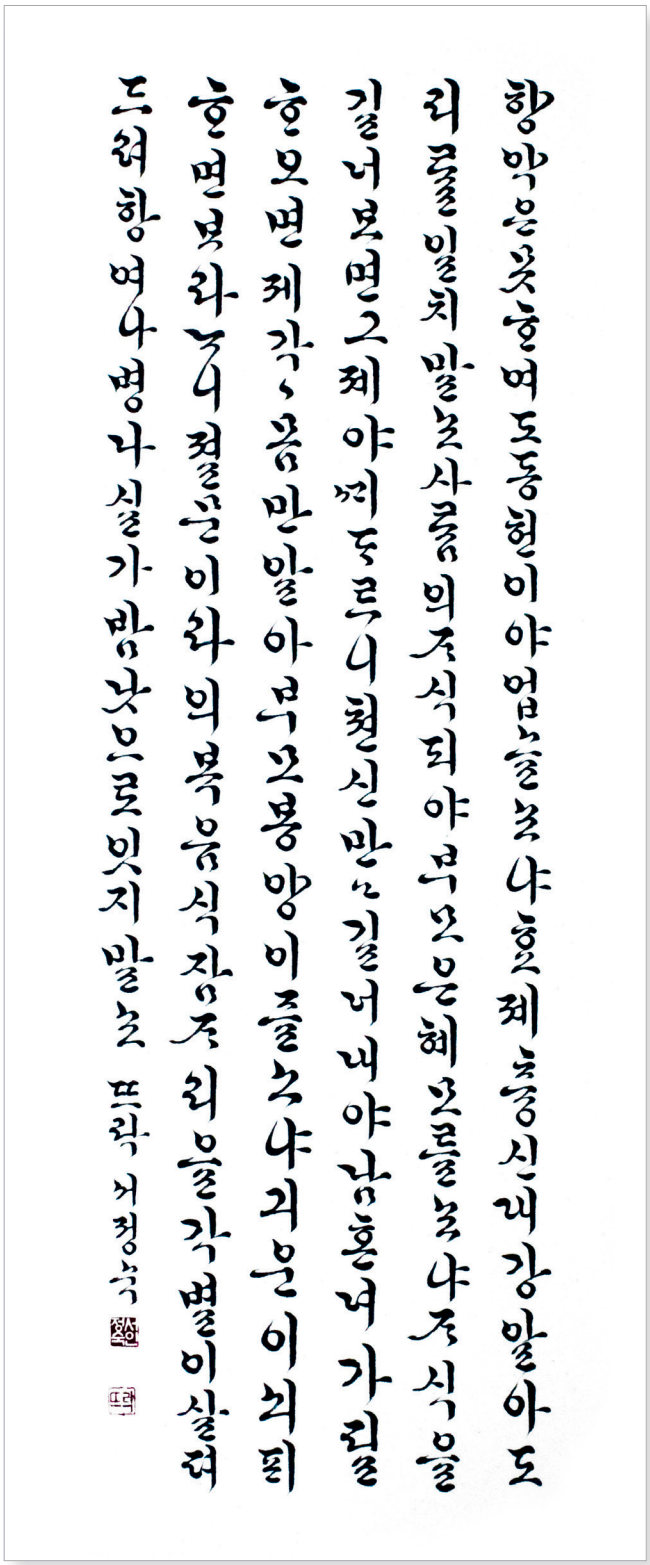
문인화 _ 차 하

최 정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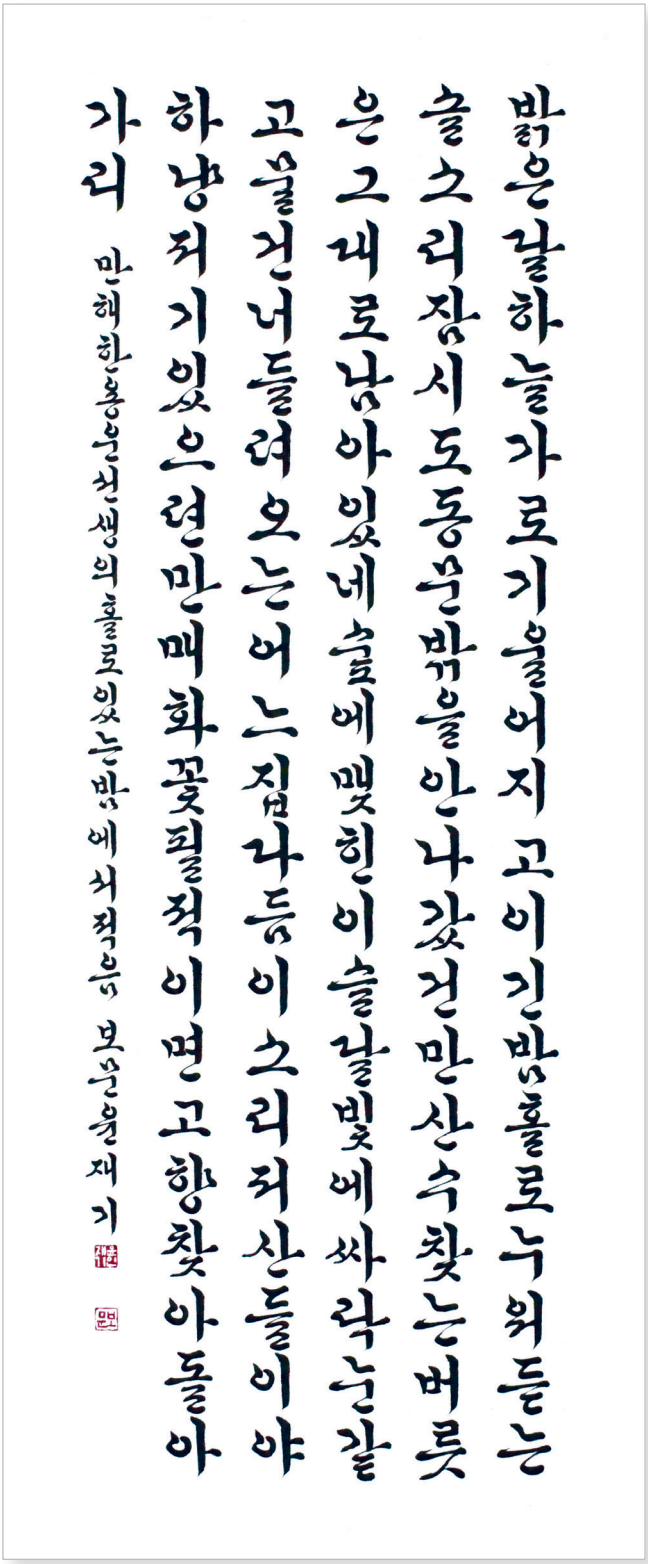

엇던디날손이셩산의머믈며셔셔하당식영뎡쥬인아내말듯소인
셩셰간의됴흔일하건마는엇디흔강산을가디록나이녀겨젹막산
듕의들고아니나시는고숑근을다시쓸고듁상의자리보아져근덧
올라안자엇던고다시보니텬변의썬는구름셔셕을집을사마나는
듯드는양이쥬인과엇더흔고창계흰물결이뎡즈알픽둘러시니텬
손운금을뉘라셔버혀내여닛는듯펴리는듯헌스토헌스흘샤산듕
의쳑녁업서스시를모르더니 을미년셩산별곡을씀갈뭇권명숙

권 명 숙

한글_차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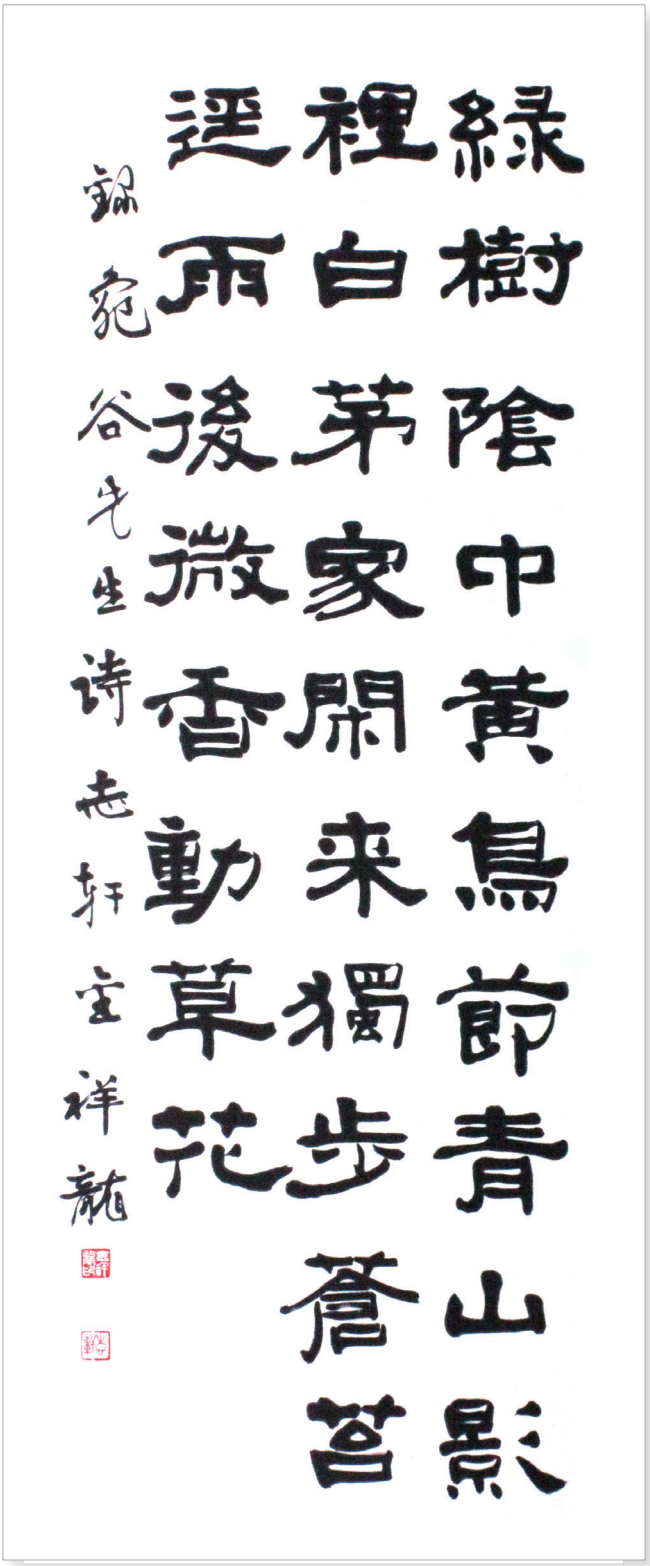

항악은웃호며도동헌이야엄노들노냐호제충신내강말아도
리를일치말노사름의조식되야부모은혜모를노냐조식을
길너보면그제야쩌도로나쳔신만은길너내야남홀며가리
호모면제각ㅅ음만알아부모봉양이즐ㅅ냐긔운이쇠퇴
호면보라ㄴ나쳘ㅅ은이라의복음식잡조리을각별이살펴
드려항여나병나실가밤낫으로잇지말노 뜨락 서정숙

서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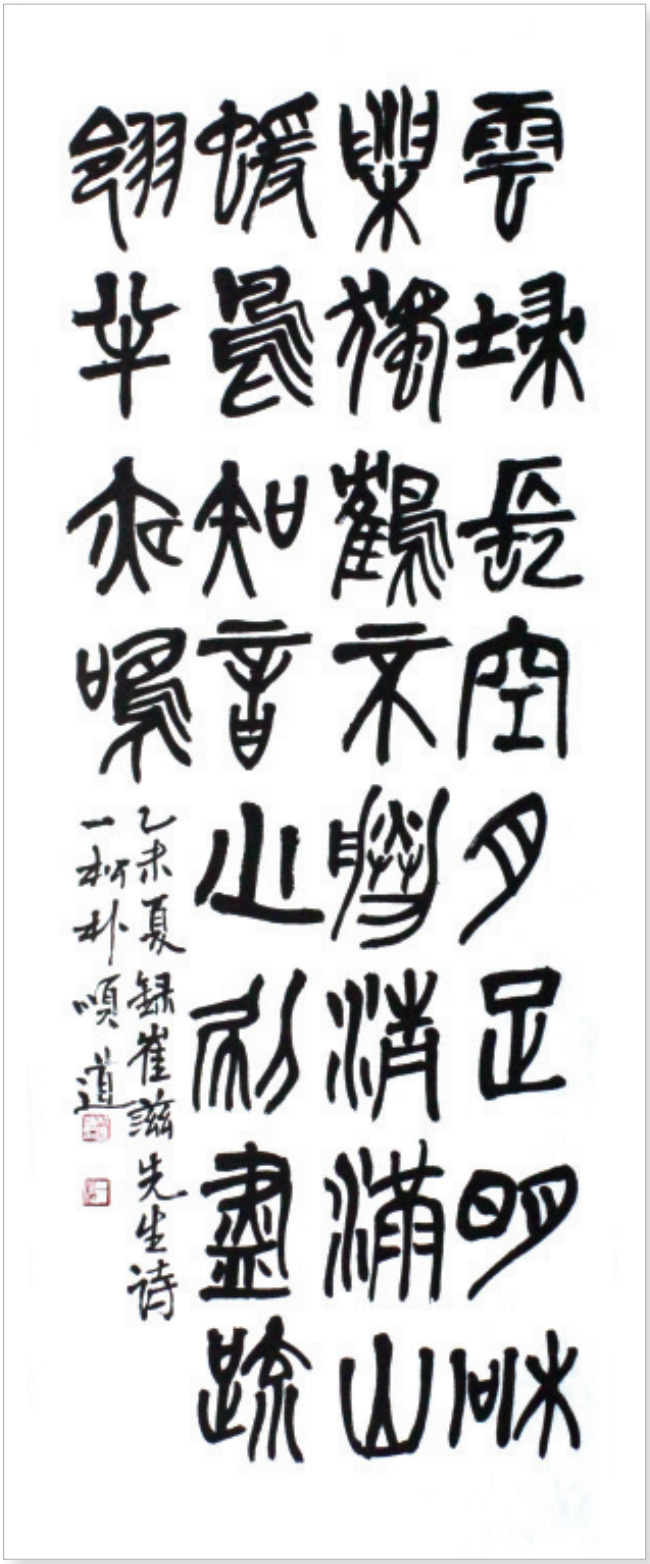

밝은 달 하늘가로 기울어지고 이 긴 밤 홀로 누워 듣는
솔 소리 장시도 동은 밤을 안 나갔건만 산속 찾는 버릇
은 그대로 남아 있네 솔에 맺힌 이슬 달빛에 싸락눈 같
고 울 건너 들려오는 어느 집 다듬이 소리 저 산들이야
하냥 저기 있으련만 매화 꽃 필 적이면 고향 찾아 돌아
가리 만해 한용운 선생의 홀로 있는 밤에 서적을 보은 윤재기

윤 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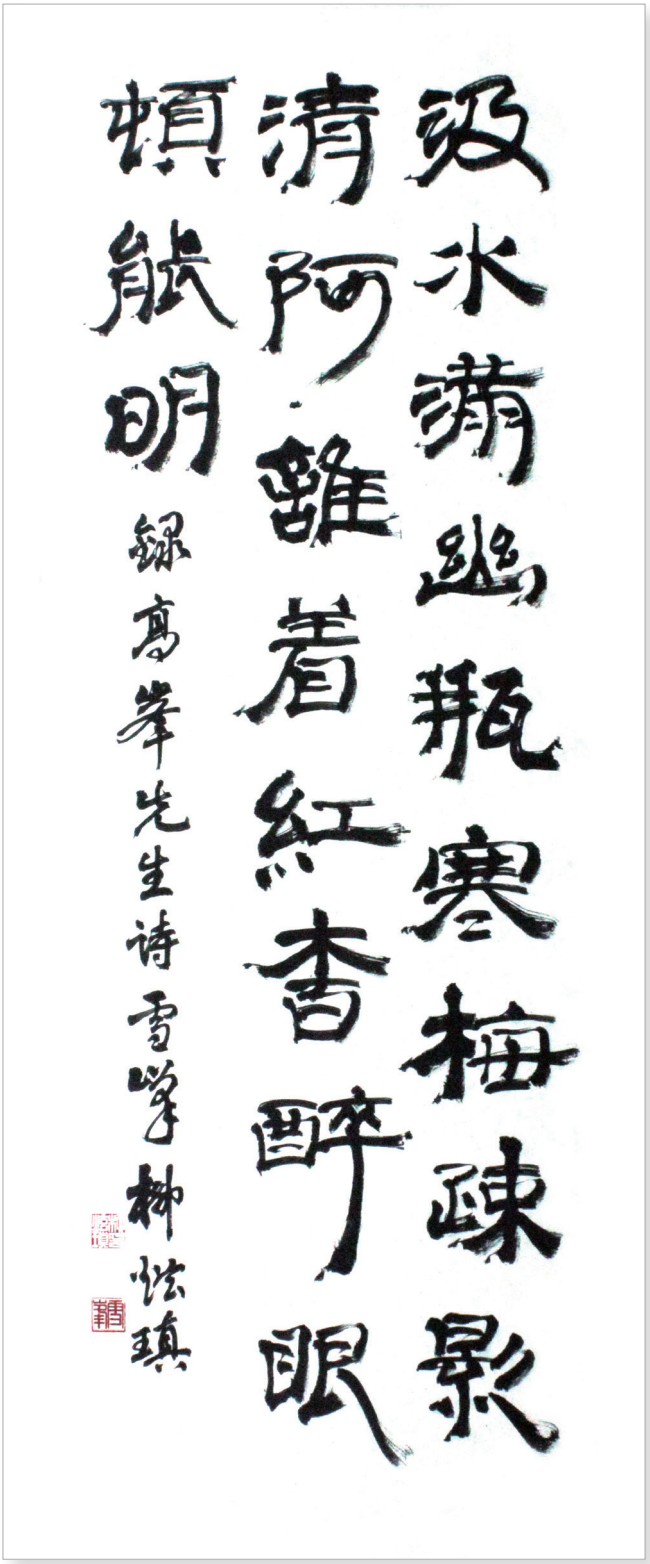
한문 _ 차 하



김 상 용



박 순 도



유 현 진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특 선

문인화

김승한 김향배 김현희 박정범 신미림 안은미 양봉례 유순식 장선영 정영길 최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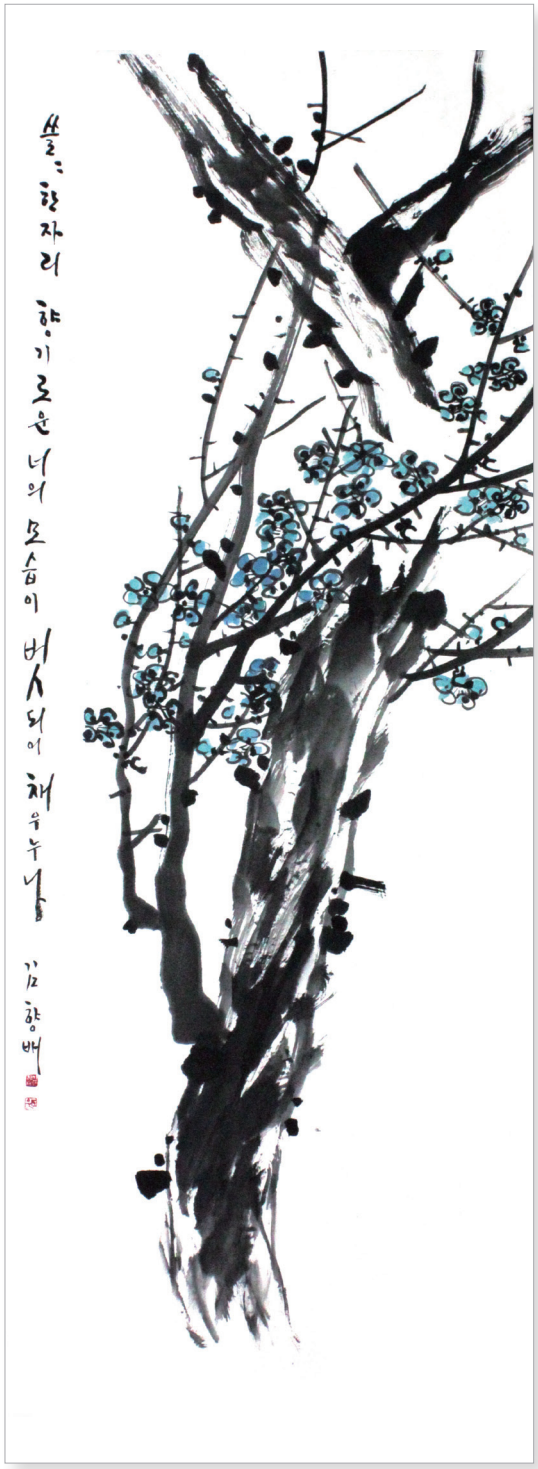
한 글

김성배 박복순 백승갑 송영옥 안은미 이효임 최영숙

한 문

강주식 권경환 권기확 김성배 김승한 김정희 김종수 김철종 남명희 박기조 박오신
성백식 송명자 송이슬 엽수정 오만식 유병길 윤영자 이윤범 이종언 인화정 임무순
정광소 정은량 조정호 조희성 채현식 최수식

김 승 한



김 향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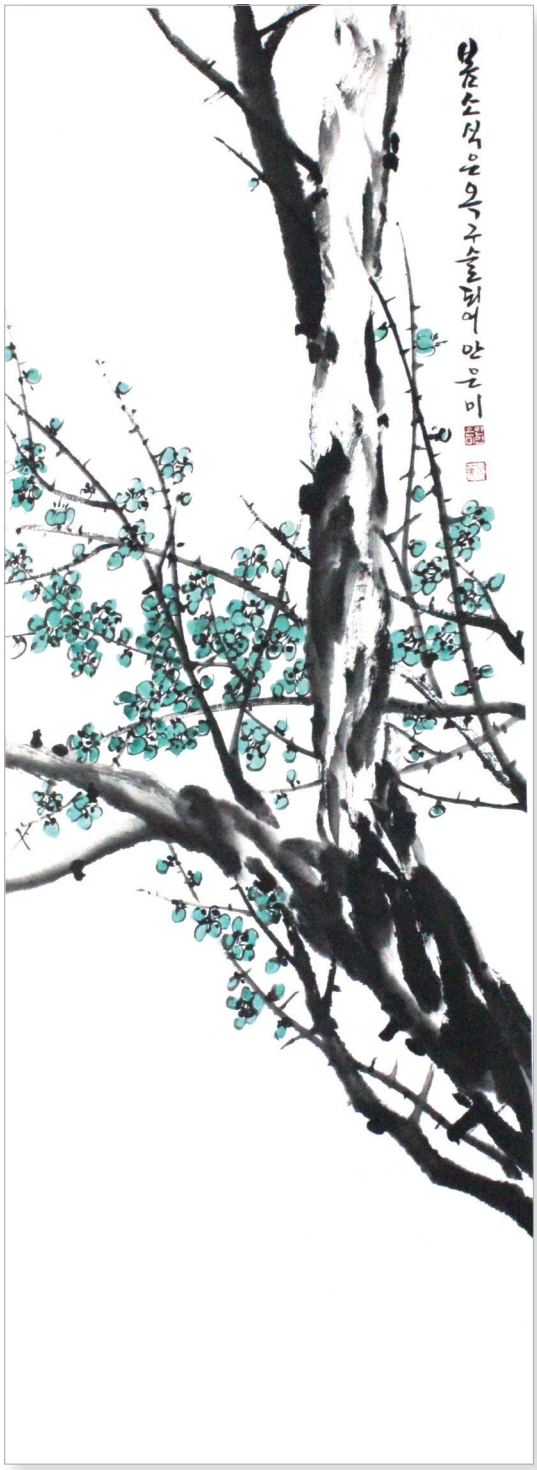
김 현 희

박 정 범

문인화 _ 특 선

박 정 범

신 미 림



안 은 미

양 봉 례

문인화 _ 특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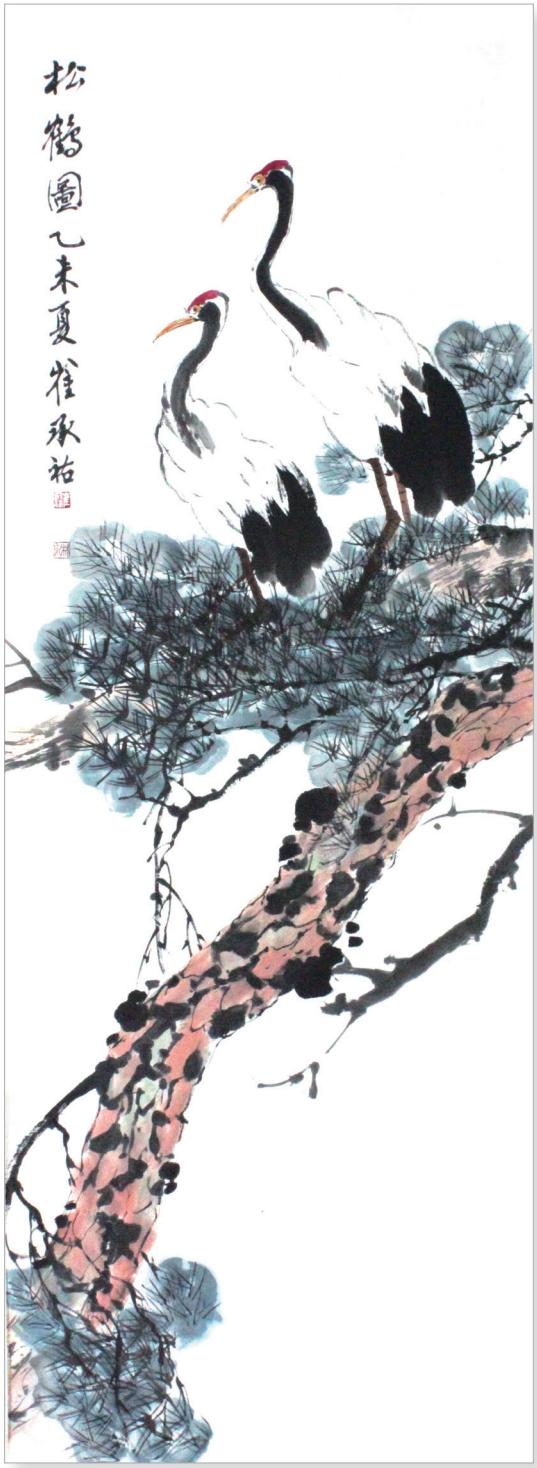
유 순 식

장 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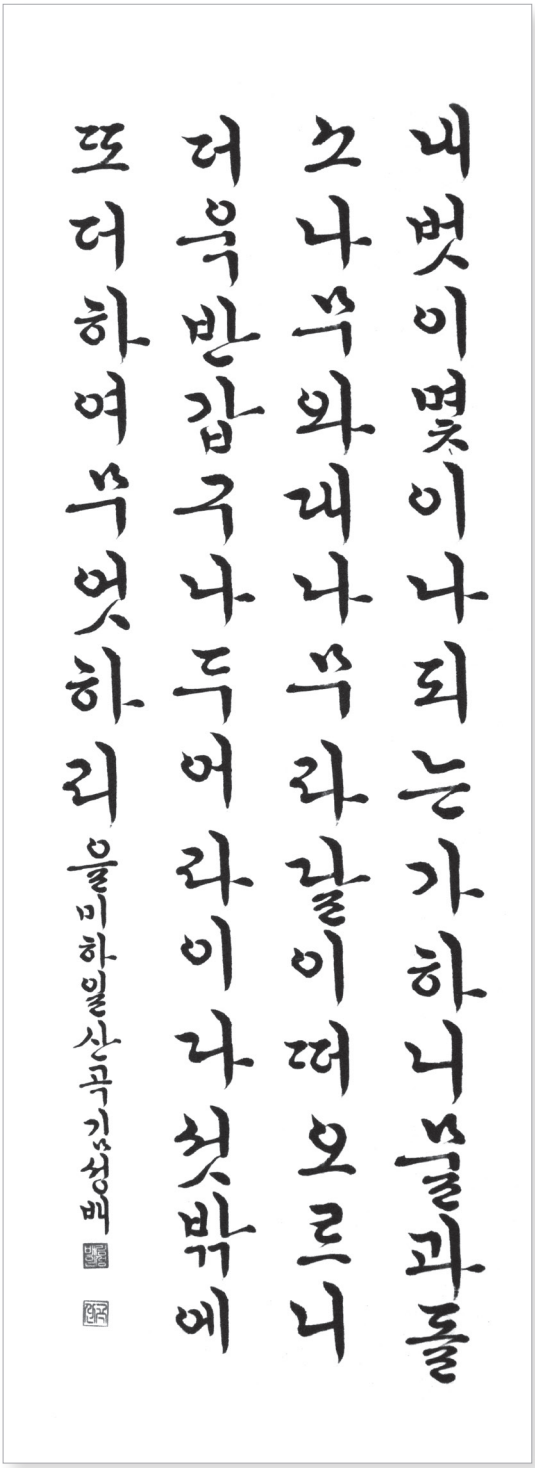
정 영 길

정 영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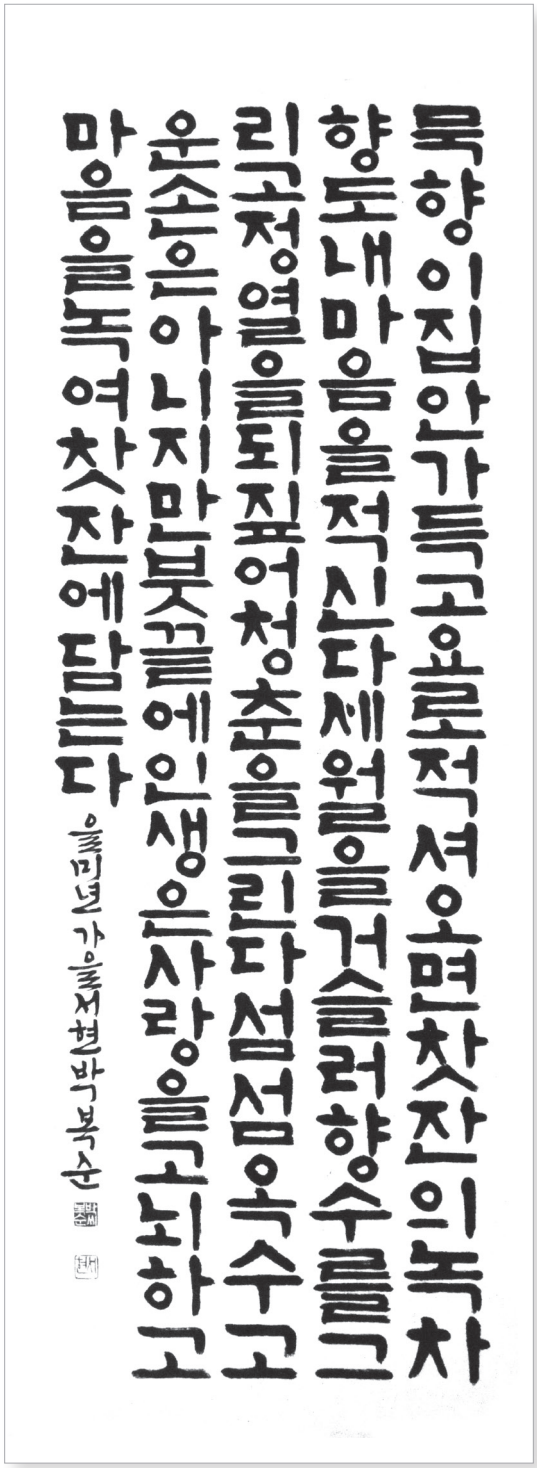
문인화 _ 특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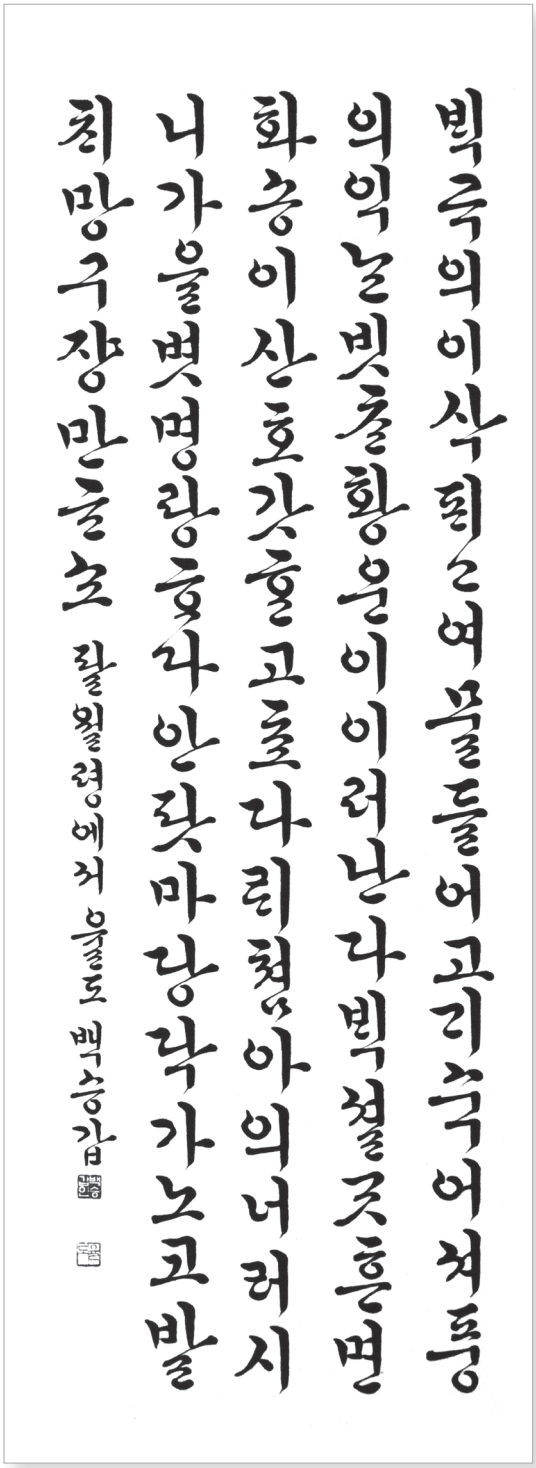
최 승 우


내벗이몇이나되는가하니
ㅅ나ㅅ와개나ㅅ라갈이떠오르니
더욱반갑구나두어라이나ㅅ밖에
또더하여ㅅ엇하리 을미하일산곡김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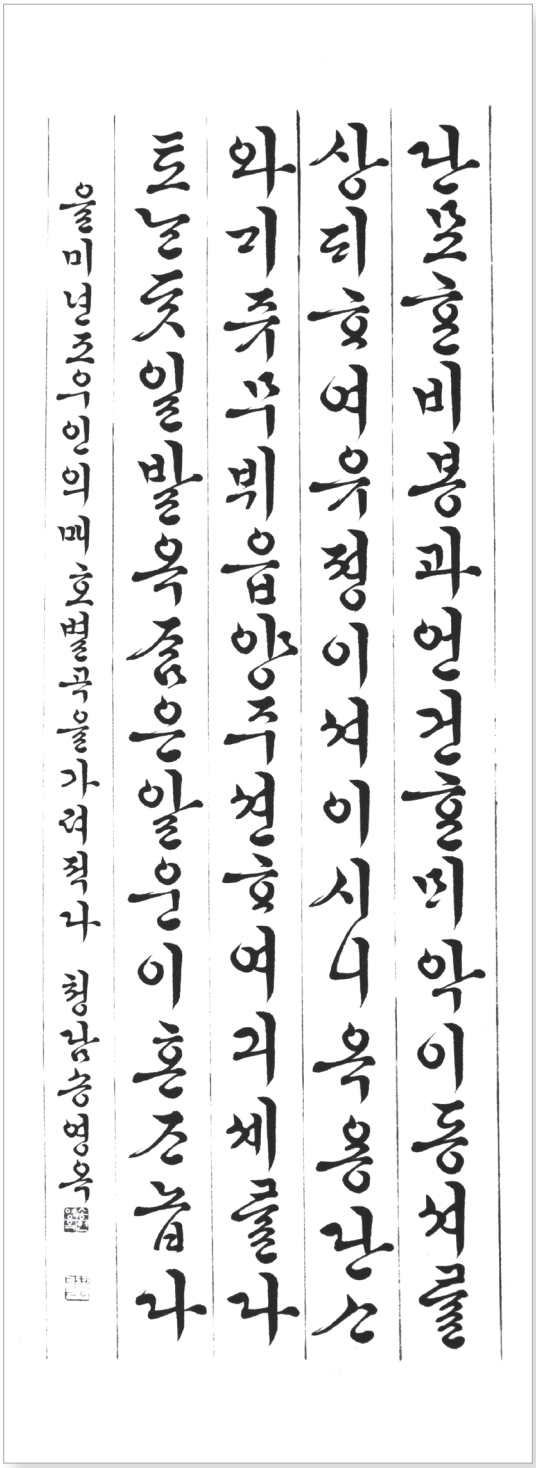
김 성 배


북향이집안가득고요로적셔오면찻잔의녹차
향도내마음을적신다세월을거슬러향수를그
리곳정열을되짚어청춘을그리다섬섬옥수고
운손은아니지만붓끝에인생은사랑을고뇌하고
마음을녹여찻잔에담는다 을미년가을서현박복순

박 복 순


빅즉의이삭되여물들어고리숙어쳐등
의익날빗출황을이이러난다빅설곳흔면
화승이산호갓흘고로다리쳥아의너러시
니가을벗명랑호다안랏마당락가노고발
쳐망구장만들쇼 칼월령에서 읍조 백승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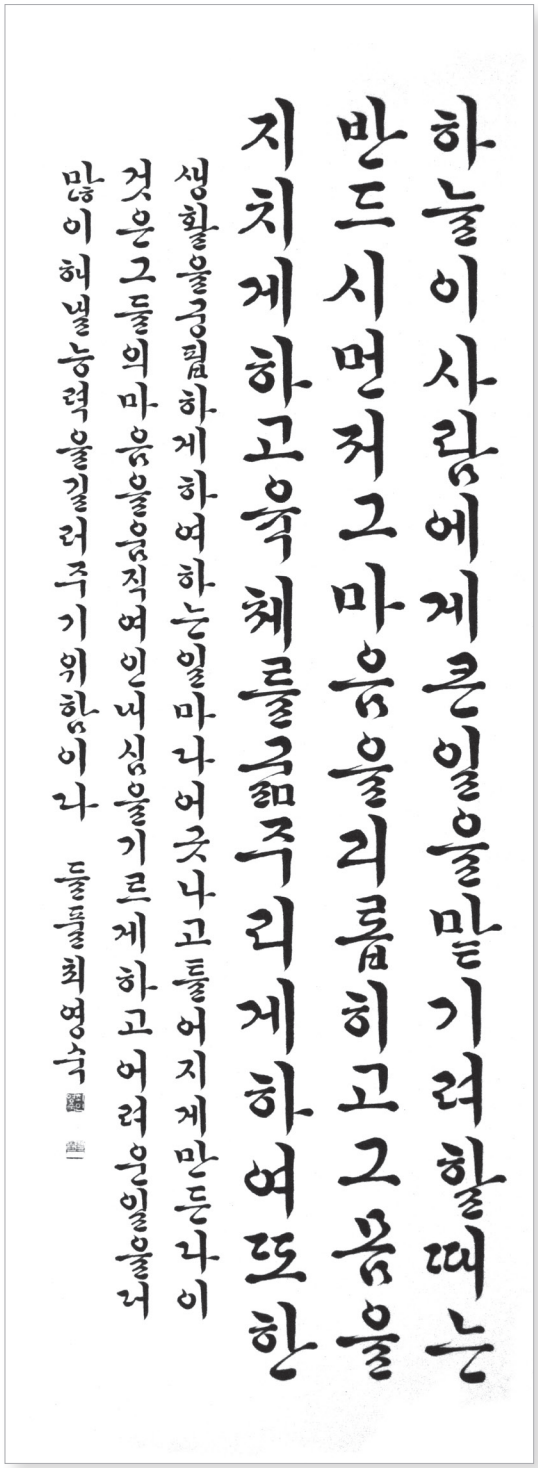
백 승 갑


간곡할비봉과얼겅할씨악이동서를
상디호여유졍이서이시니욱용간ᄉ
와기쥬ᄀᆞ뷔읍앙ᄌᆞ셜호여리세를나
토ᄂᆞᆯ듯일발욱즁은알을이혼ᄌᆞ급나
을미년조우인의매호별곡을가려적나 청남송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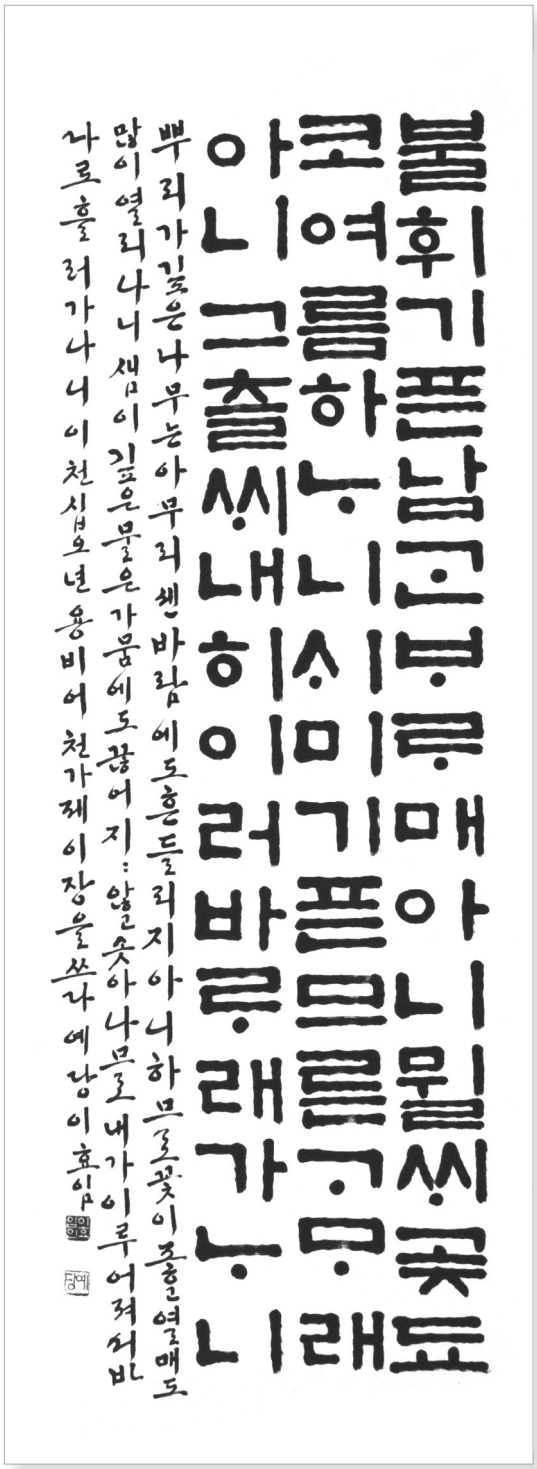
송 영 옥

내ᄆᆞ음속의리님의ᄀᆞ은ᄂᆞᆫ썽을ᄯᆞᄅᆞ는밤
읽ᄀᆞᆷ으로ᄆᆞᆯ게ᄊᆞ여ᄉᆞ하늘에ᄃᆞ앙ᄒᆞᆯ기ᄋᆞ심
어ᄂᆞᆺ디ᄂᆞᆼ지ᄉᆞᆫ딜ᄂᆞᆷ을ᄂᆞᆫ매ᄉᆞ성은ᄉᆞ세ᄀᆞ그
길ᄋᆞ를ᄀᆞ시ᄂᆞᆼ하ᄆᆞ비ᄀᆞᆼ이ᄀᆞ니네 서정주시동천을
안은미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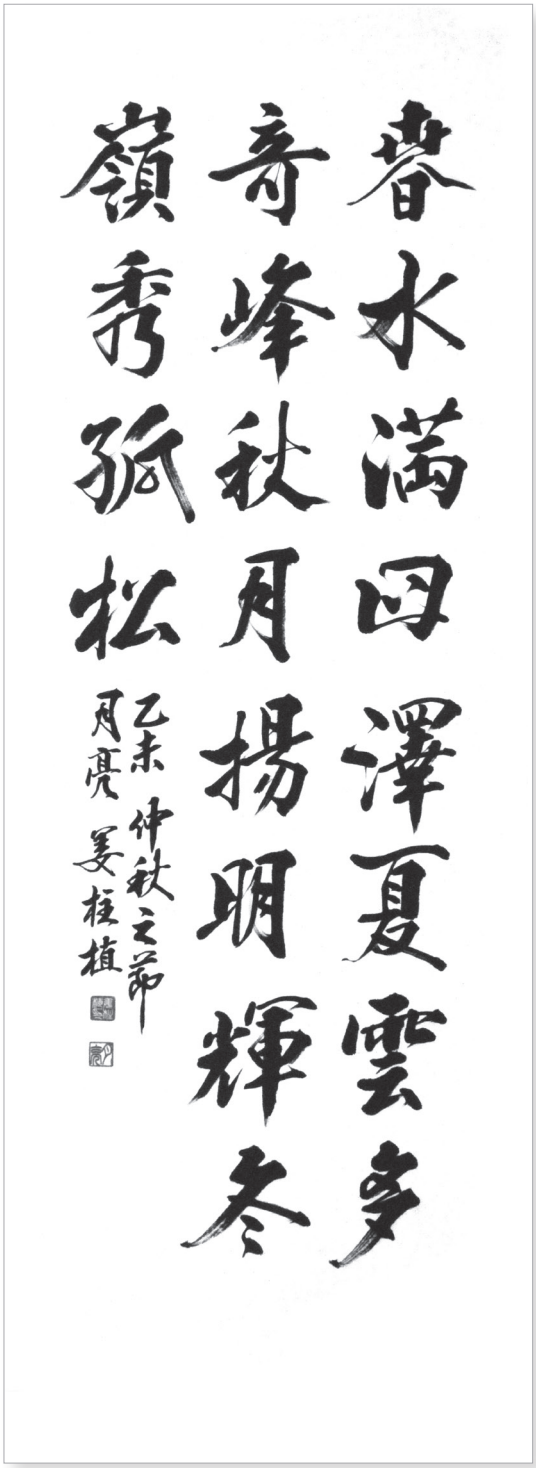
안 은 미


하늘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음을
지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여 또한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만든다 이
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해낼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함이다 들들 최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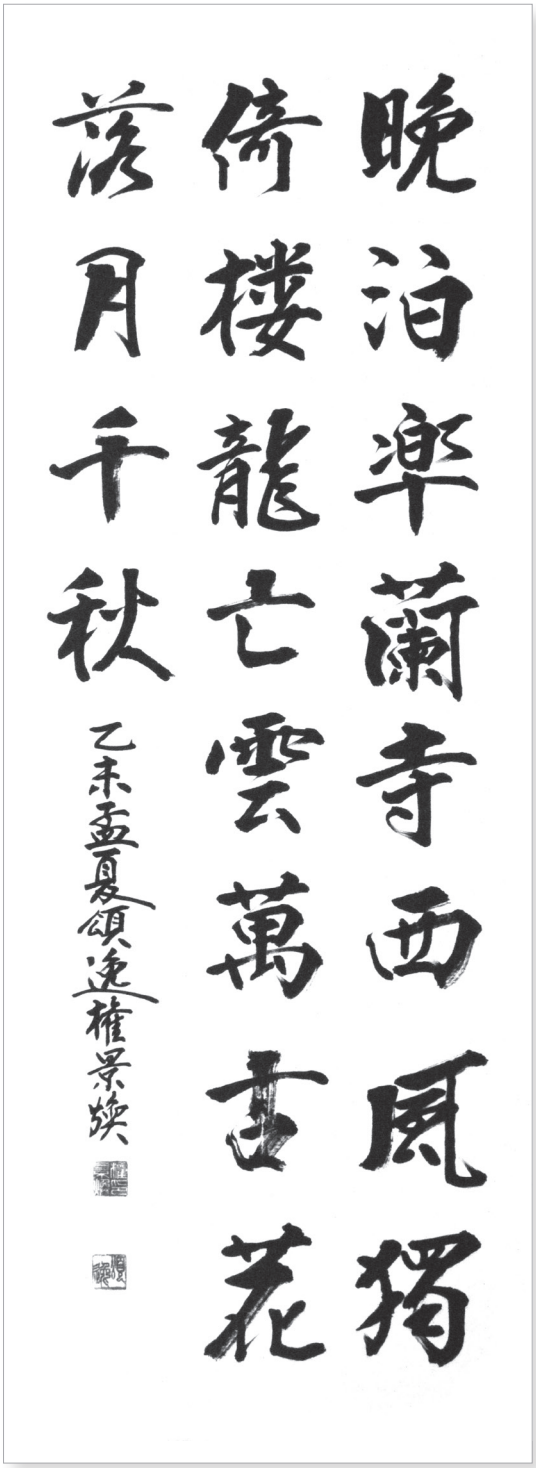
최 영 숙


불휘기픈남군 바ᄅᆞ매 아니ᄆᆞᆯ씨 곶도
코여름하ᄂᆞ니 시미기픈 ᄆᆞᄅᆞᆫ 가ᄆᆞ래
아니 그츨씨 내ᄂᆞ니 이ᄅᆞ러 바다ᄅᆞ래 가ᄂᆞ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않아 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
다로 흘러가나니 이 천십오년 용비어천가 제이장을 쓰다 예강 이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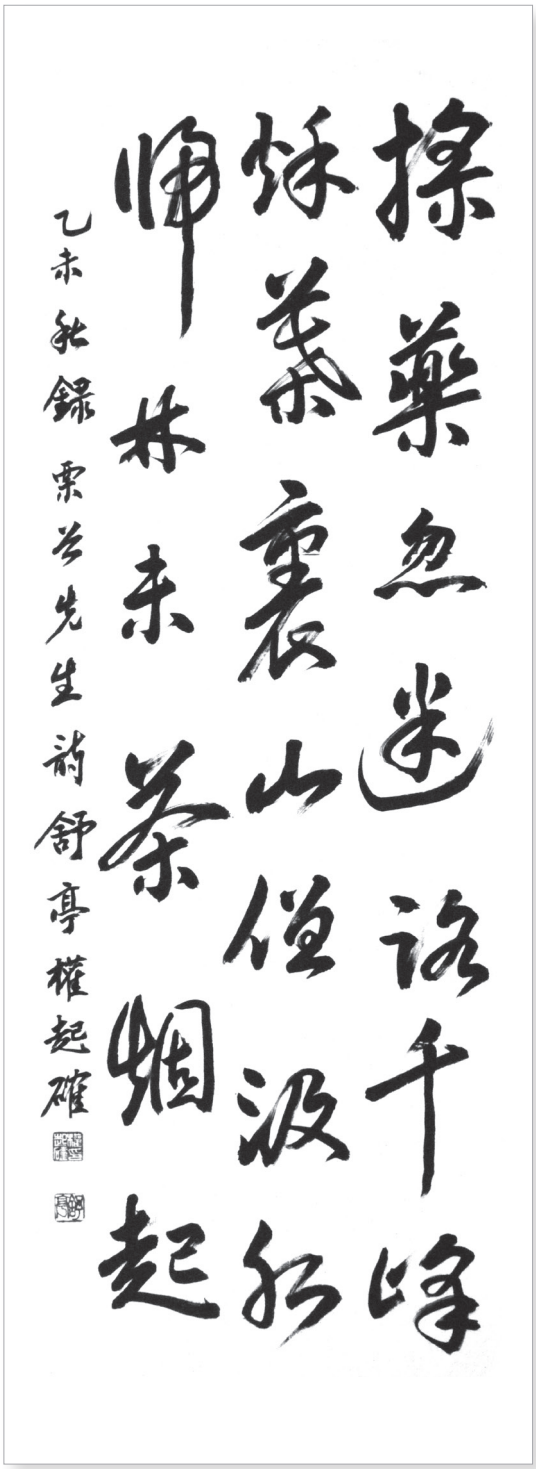
이 효 임


晩泊樂蘭寺西風獨倚樓龍亡雲萬古花落月千秋
乙未孟夏頌逸 權景煐

강 주 식


春水滿四澤夏雲多奇峰秋月揚明輝冬嶺秀孤松
乙未 仲秋之節 月亮 姜柱植

권 경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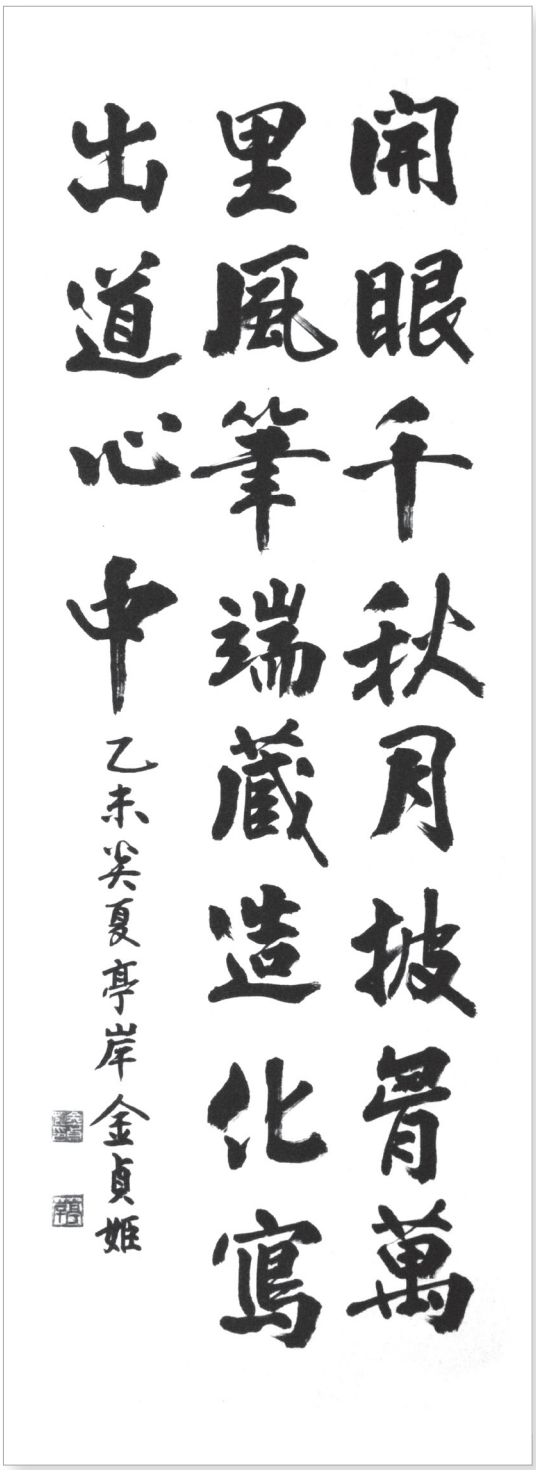


권 기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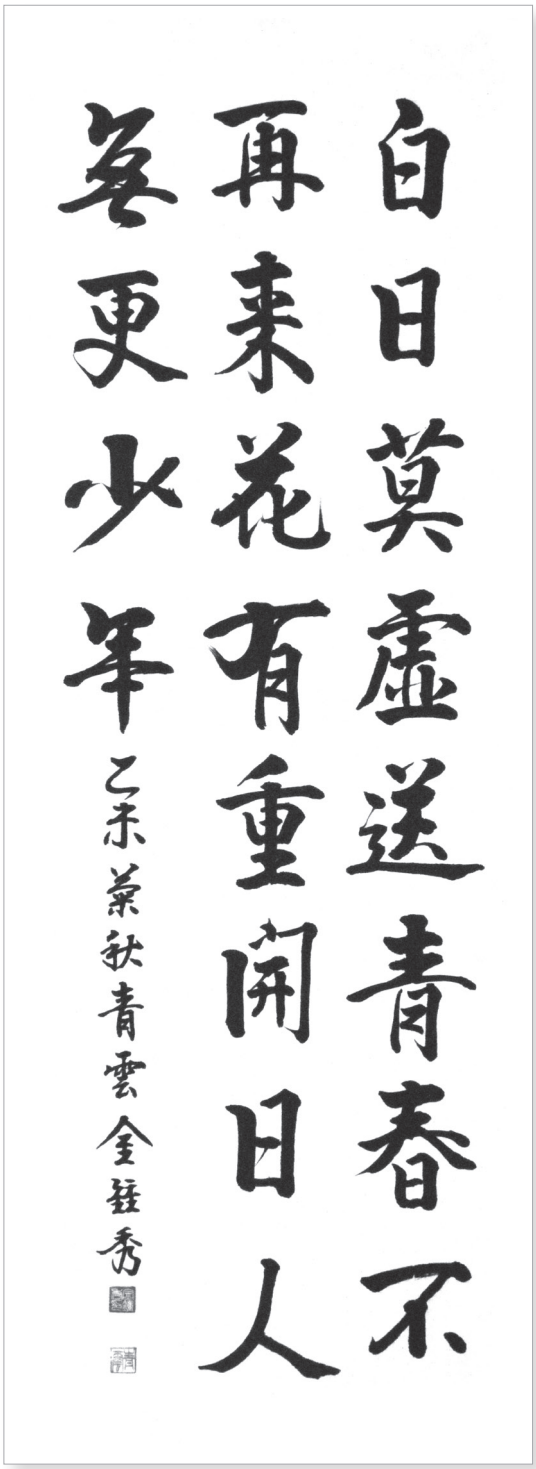
김 성 배

露冷雁聲緊更深燈
燼垂枕涼無夢寐此
境有誰知
乙未夏錄梅月堂先生詩
文耕 金承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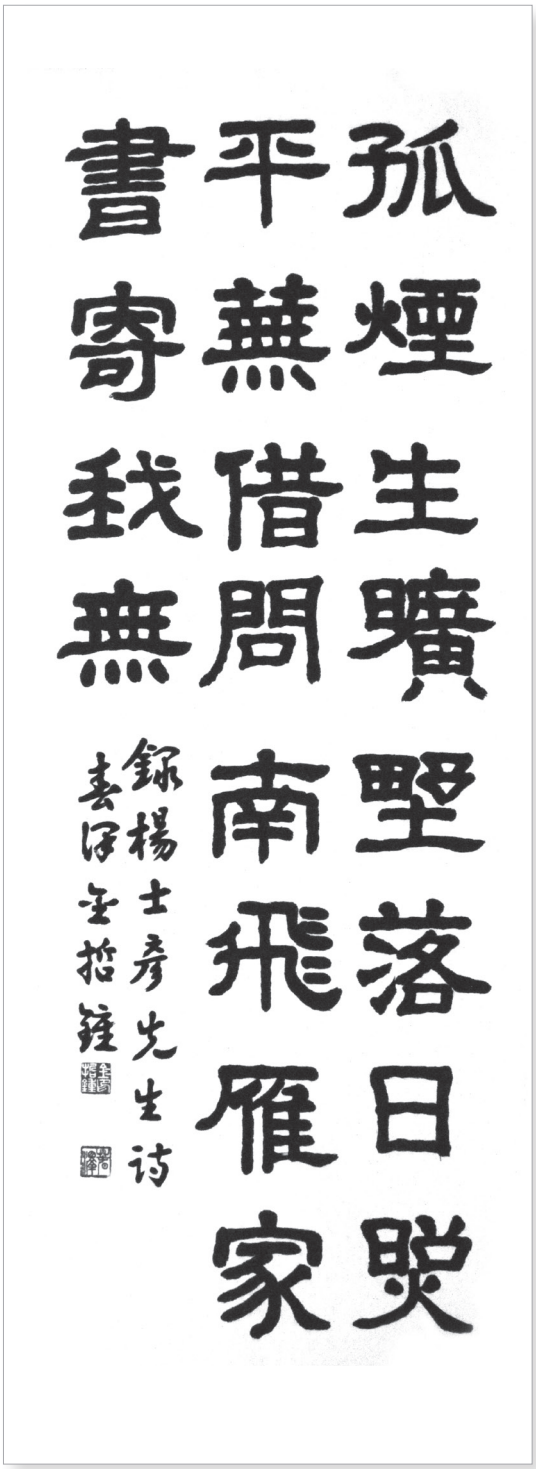
김 승 한


開眼千秋月披胷萬
里風筆端藏造化寫
出道心中
乙未 癸夏 亭岸 金貞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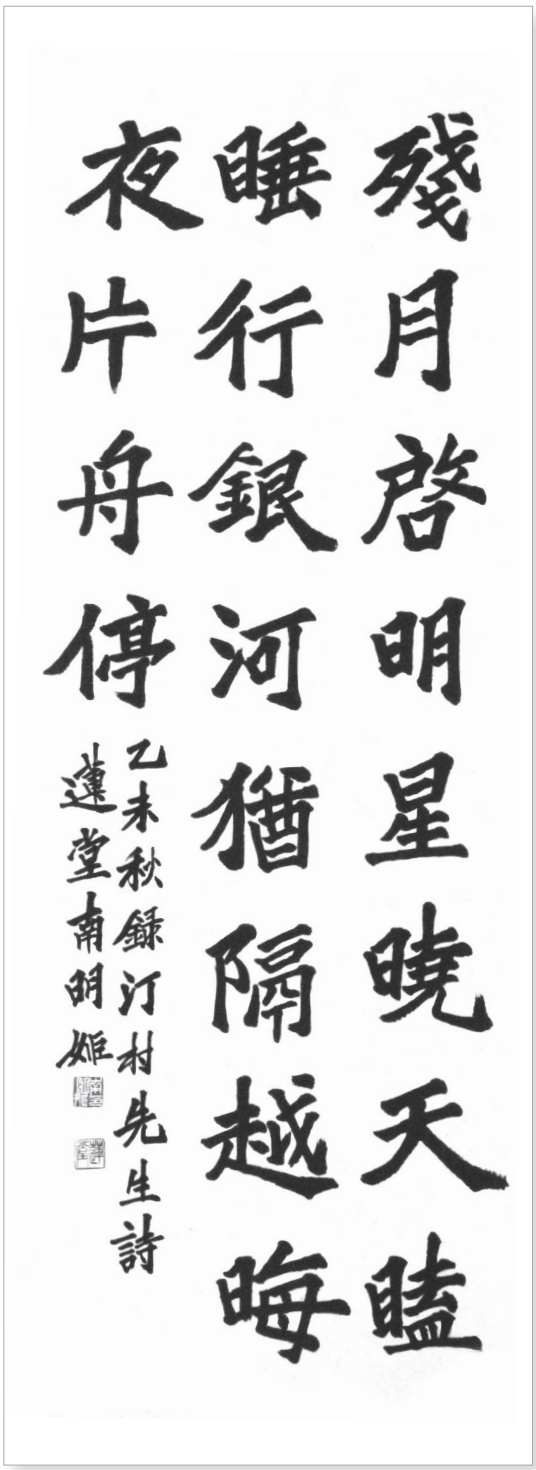
김 정 희


白日莫虛送青春不再來花有重開日人無更少年
乙未菊秋青雲金鍾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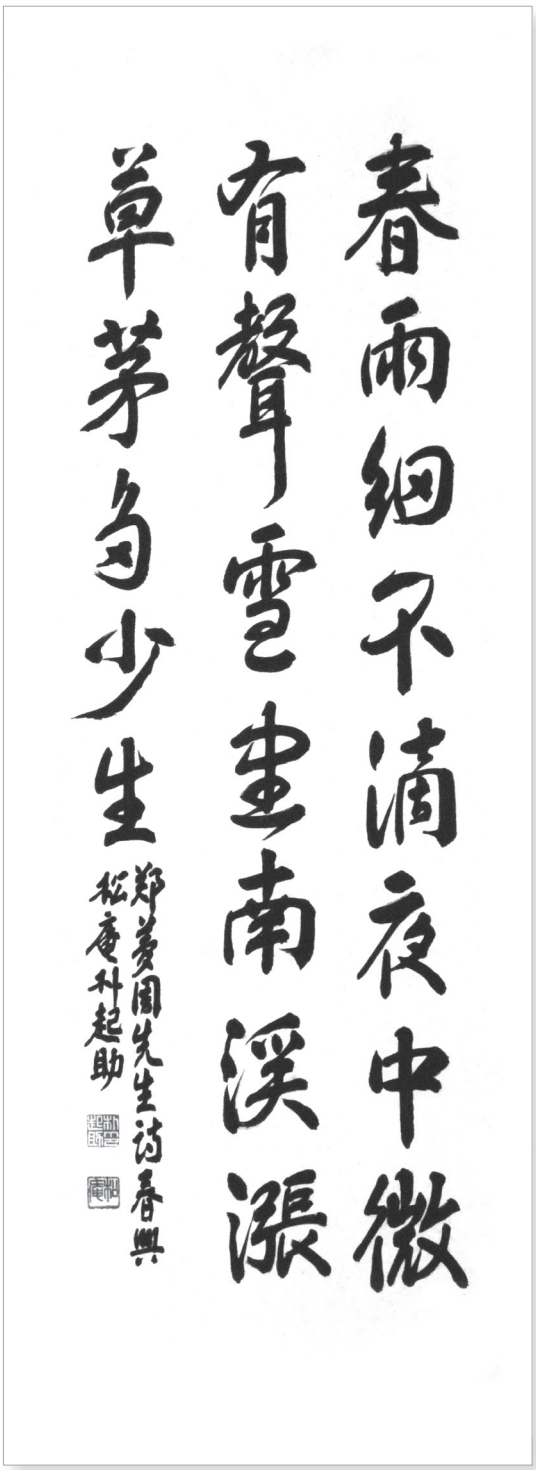
김 종 수


孤煙生曠野墅落日照平蕪借問南飛雁家書寄我無
錄楊士彥先生詩
書法金拾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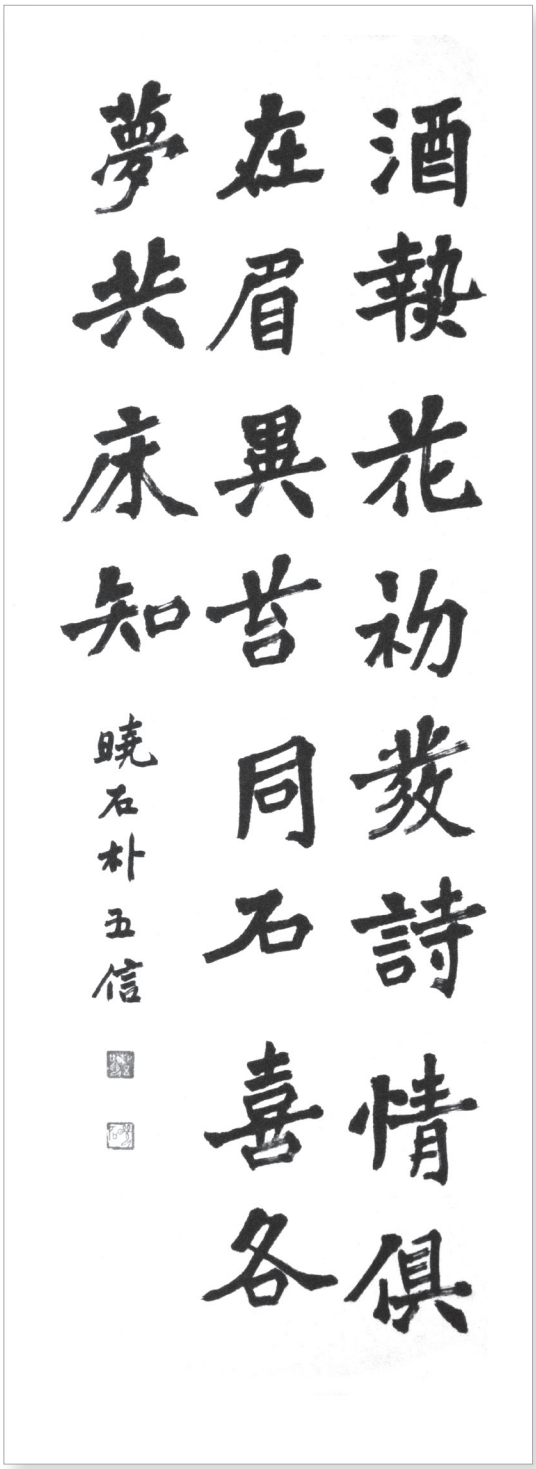
김 철 종


殘月啓明星曉天曉
睡行銀河猶隔越晦
夜片舟停
乙未秋錄汀村先生詩
蓮堂南明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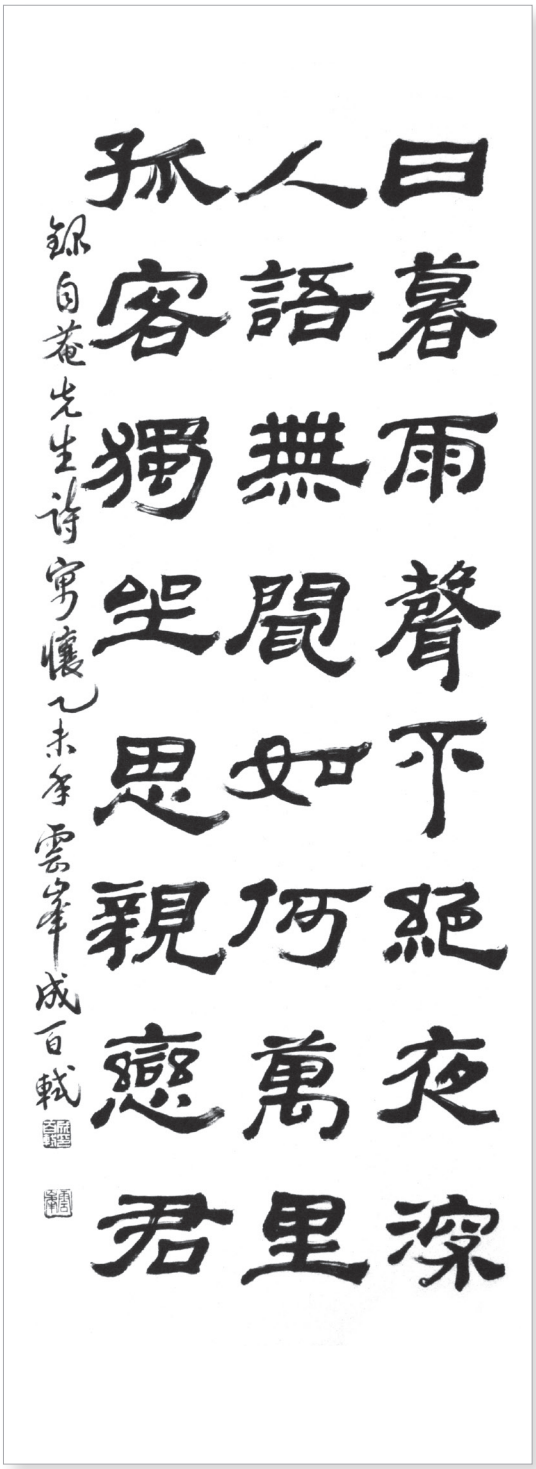
남 명 희


春雨細不滴夜中微
有聲雪堂南溪漲
草茅多少生
鄭芙園先生詩春興
松庵朴起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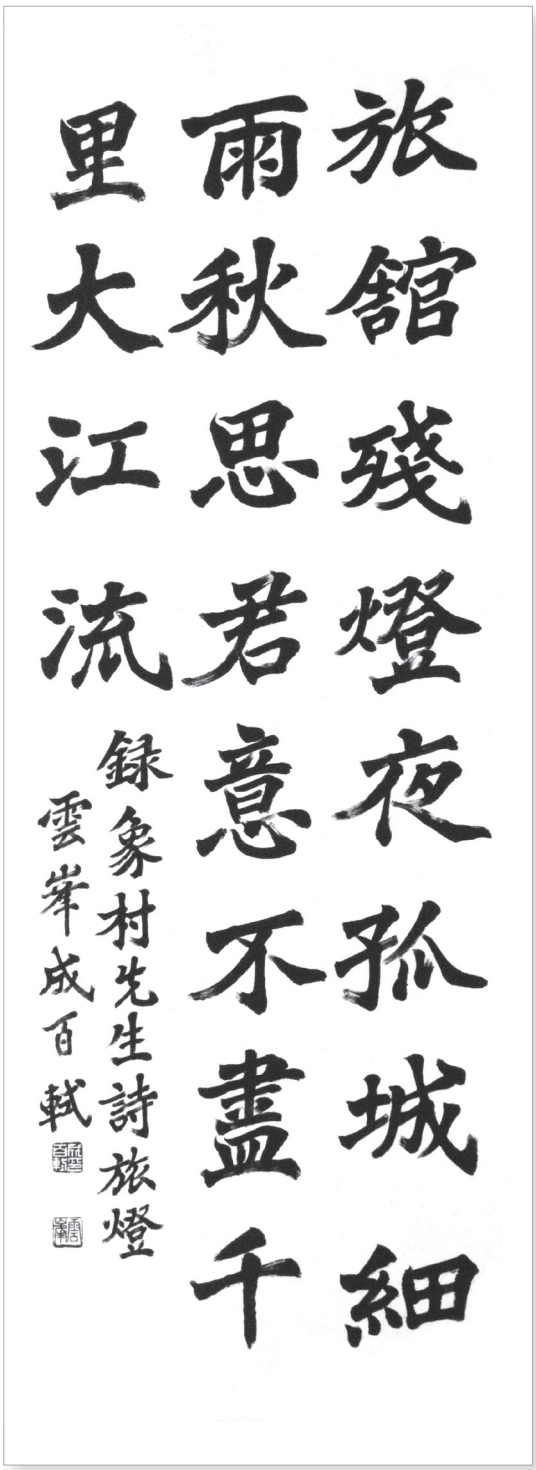
박 기 조


酒執花初發詩情俱
在眉異苔同石喜各
夢共床知
曉石朴五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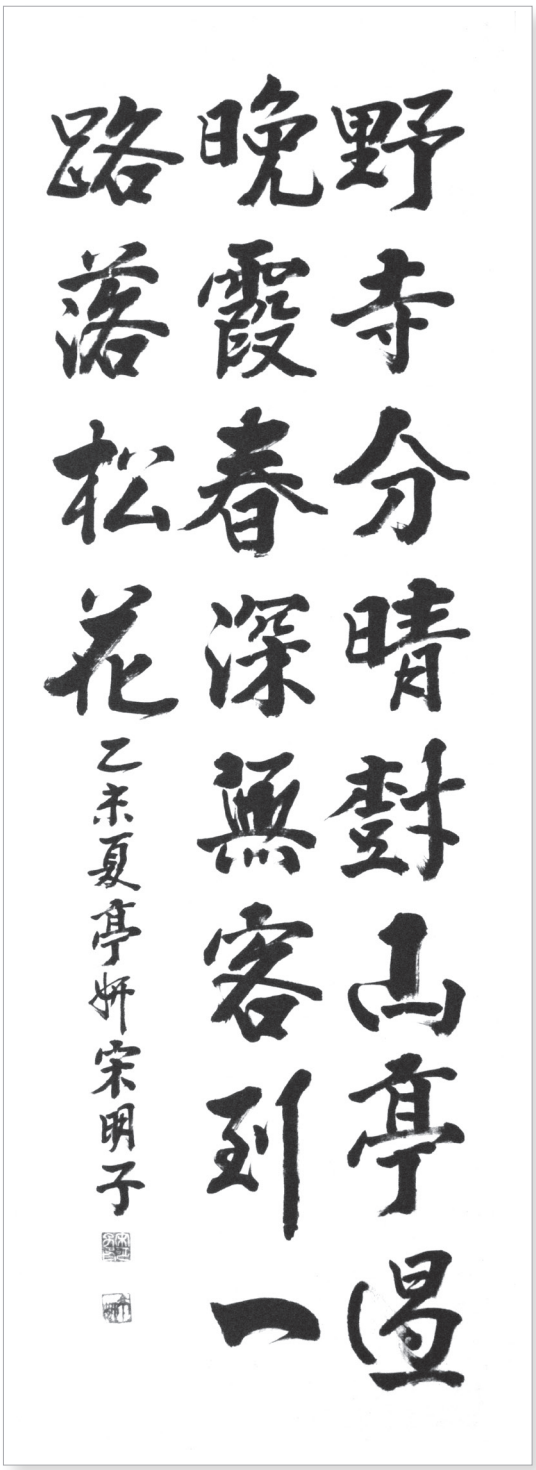
박 오 신


日暮雨聲下絶夜深
人語無聞如何萬里
孤客獨坐思親戀君
鄭自菴先生詩 寓懷 己未季 雲峯 成百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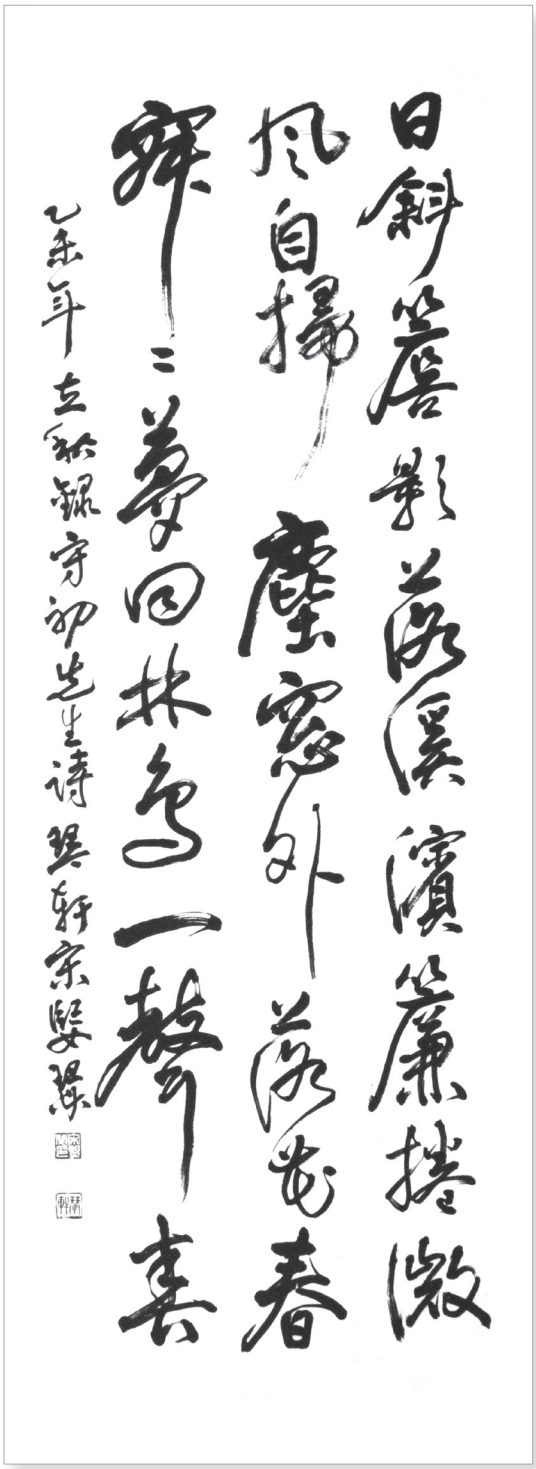
성 백 식


旅館殘燈夜孤城細
雨秋思君意不盡千
里大江流
錄象村先生詩旅燈
雲峯成百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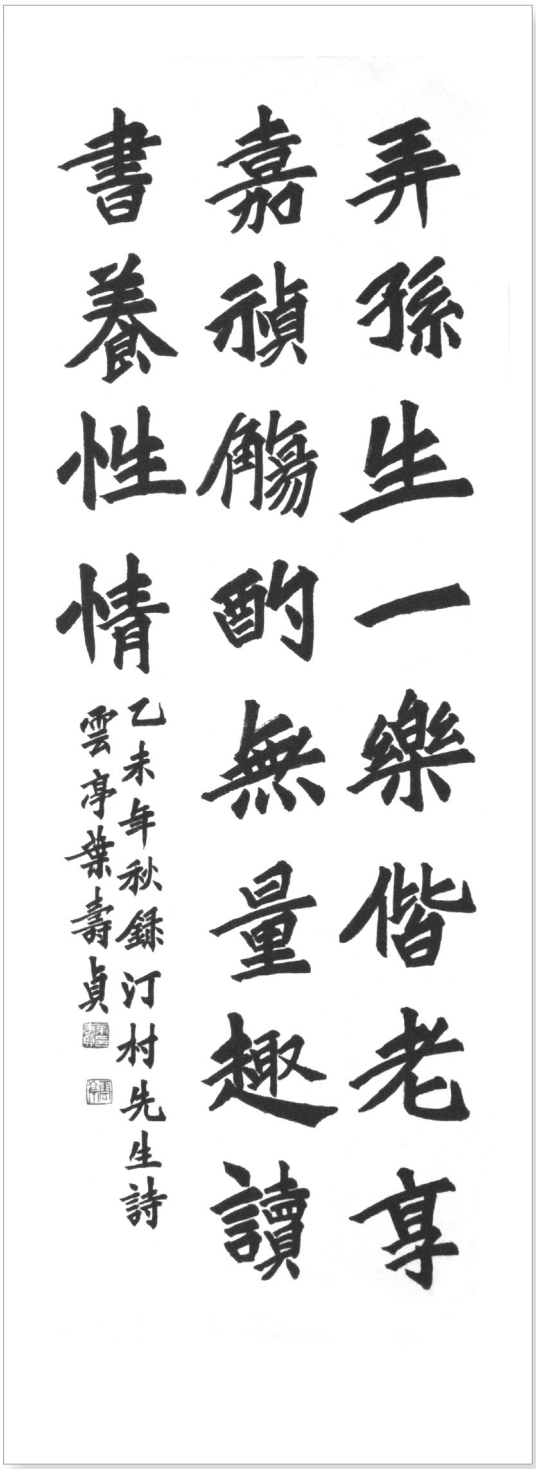
성 백 식


野寺分晴對高亭晝
晚霞春深無客到一
路落松花
乙未夏亭炳宋明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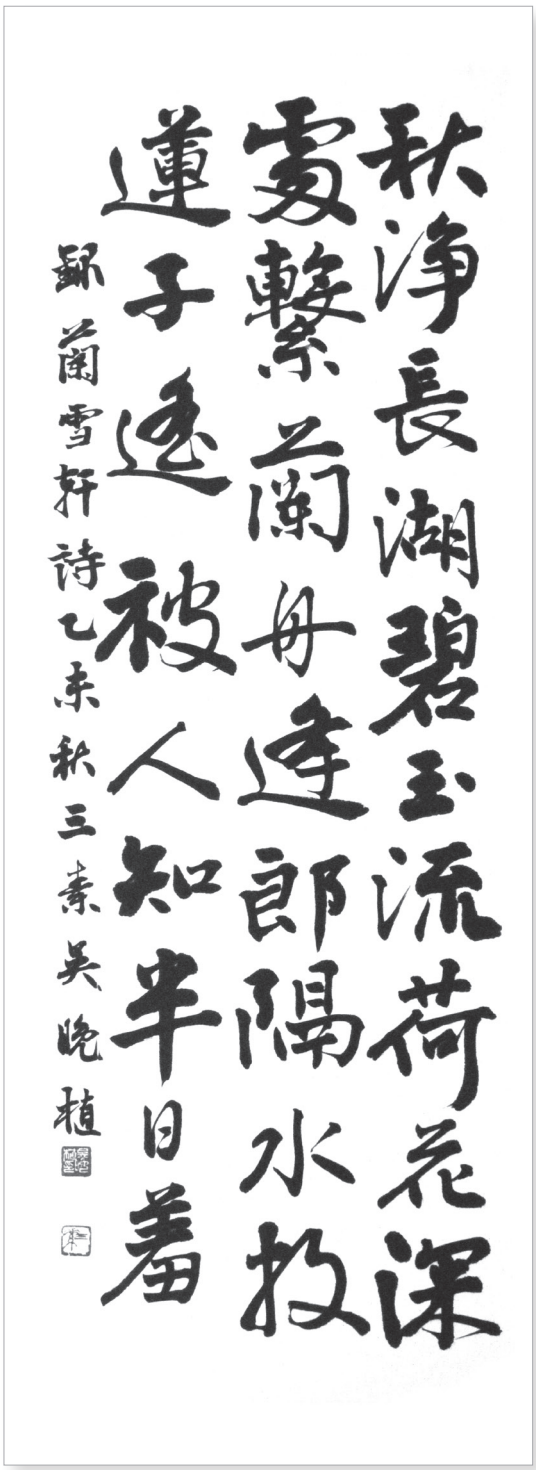
송 명 자


日斜簾影落溪濱簾捲數風自掃
塵窓外落花春
寐三夢回林鳥一聲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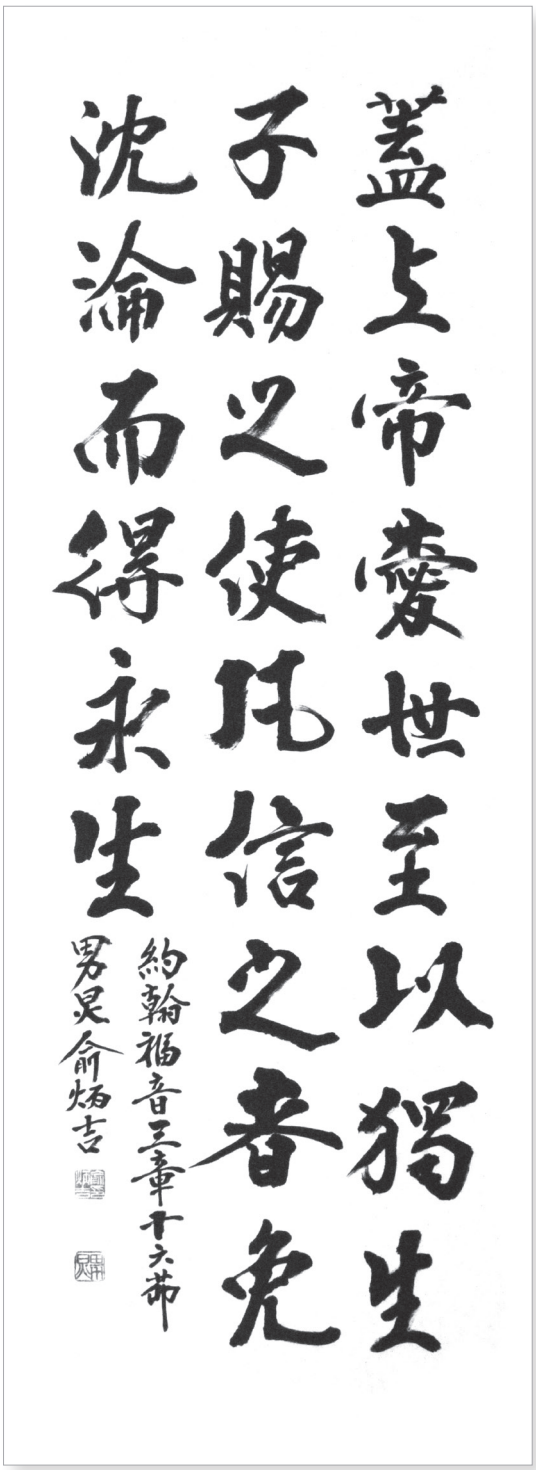
송 이 슬


弄孫生一樂偕老享
嘉禎觴酌無量趣讀
書養性情
乙未年秋錄汀村先生詩
雲亭葉壽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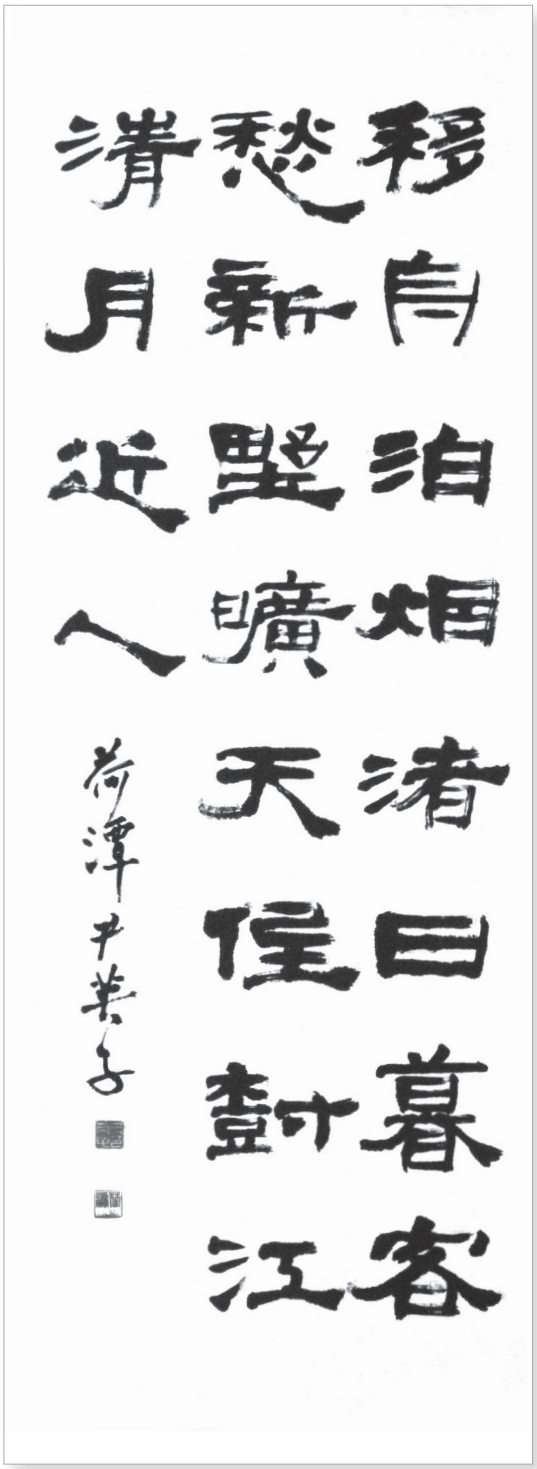
엽 수 정


秋淨長湖碧玉流荷花深
處繫蘭舟逢郎隔水投
蓮子遙被人知半日羞
歸蘭雪軒詩乙未秋三素吳晩植

오 만 식


蓋上帝愛世至以獨生
子賜之使凡信之者免
沈淪而得永生
約翰福音三章十六節
男昊俞炳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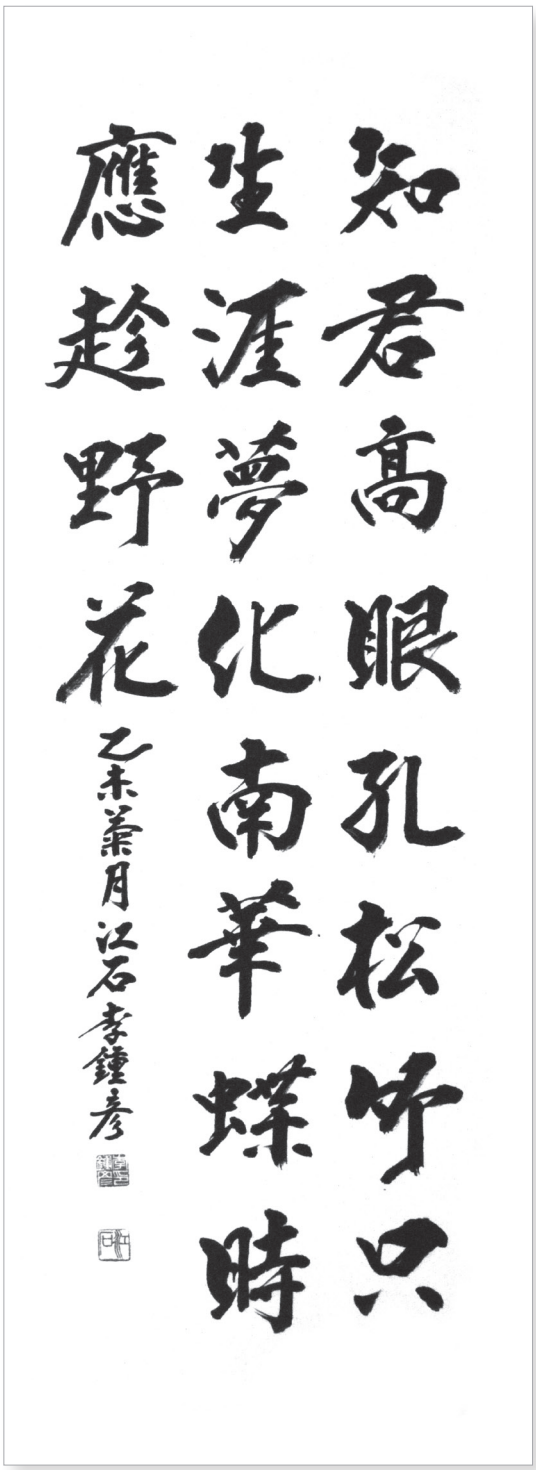
유 병 길


移舟泊烟渚日暮客愁新野曠天低樹江清月近人
荷澤 尹英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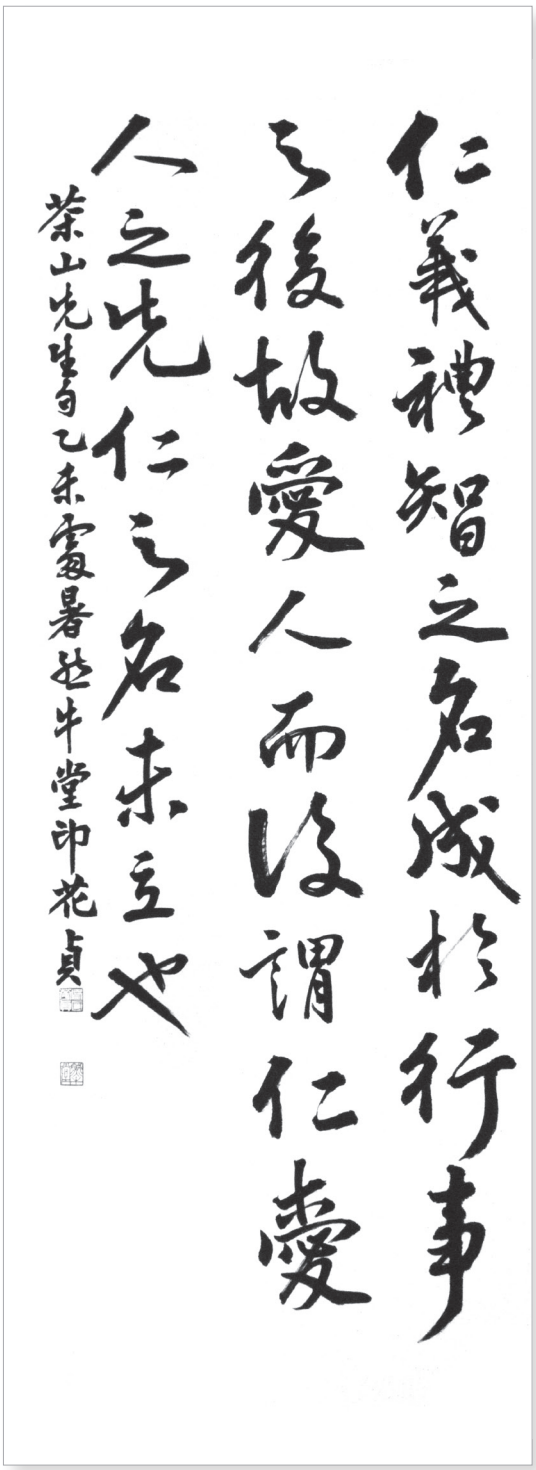
윤 영 자

獨坐幽篁裏彈琴復長嘯深林人不知明月來相照
嵋山李允範

이 윤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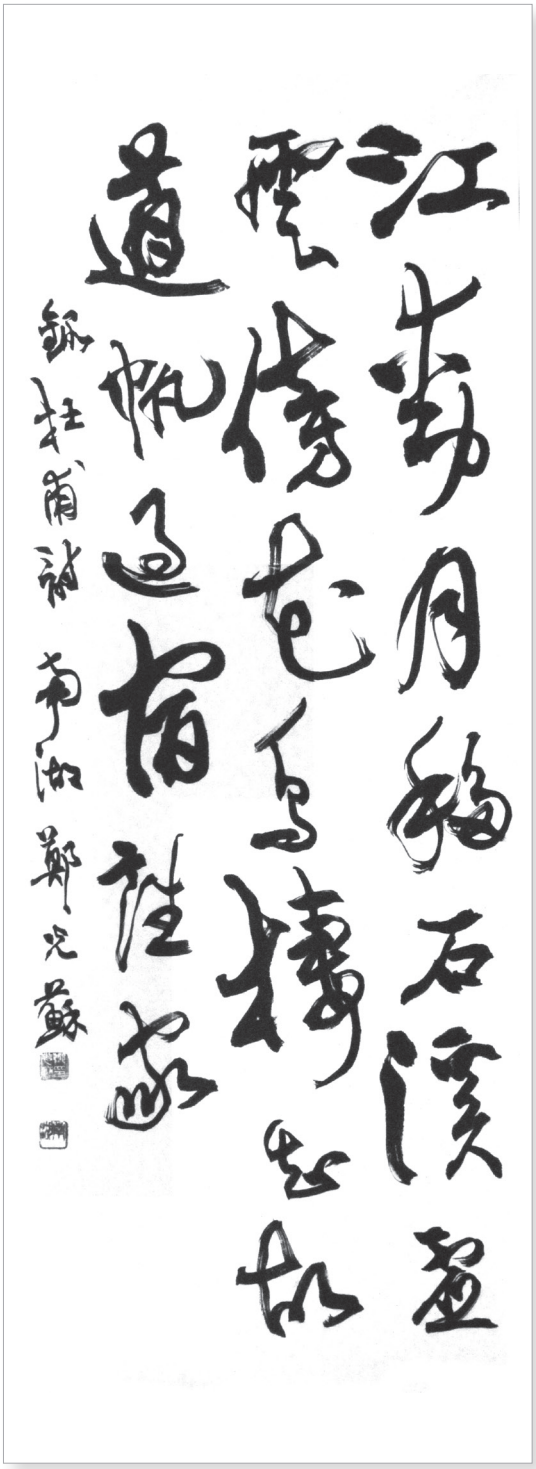


이 종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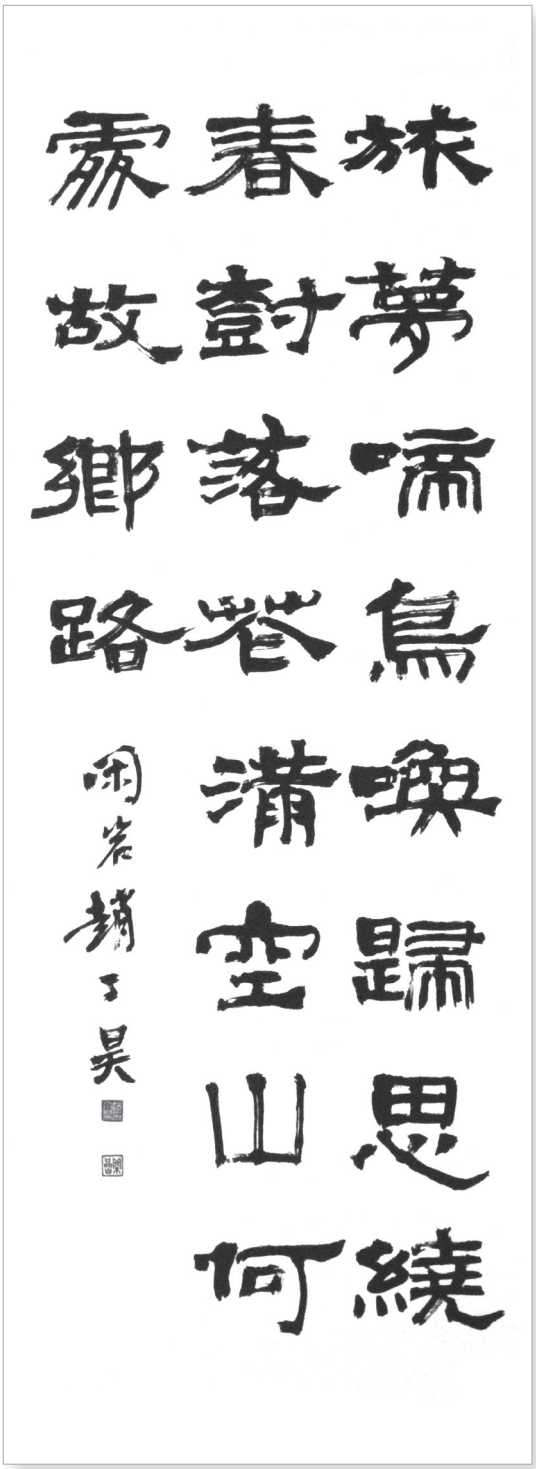
인 화 정

임 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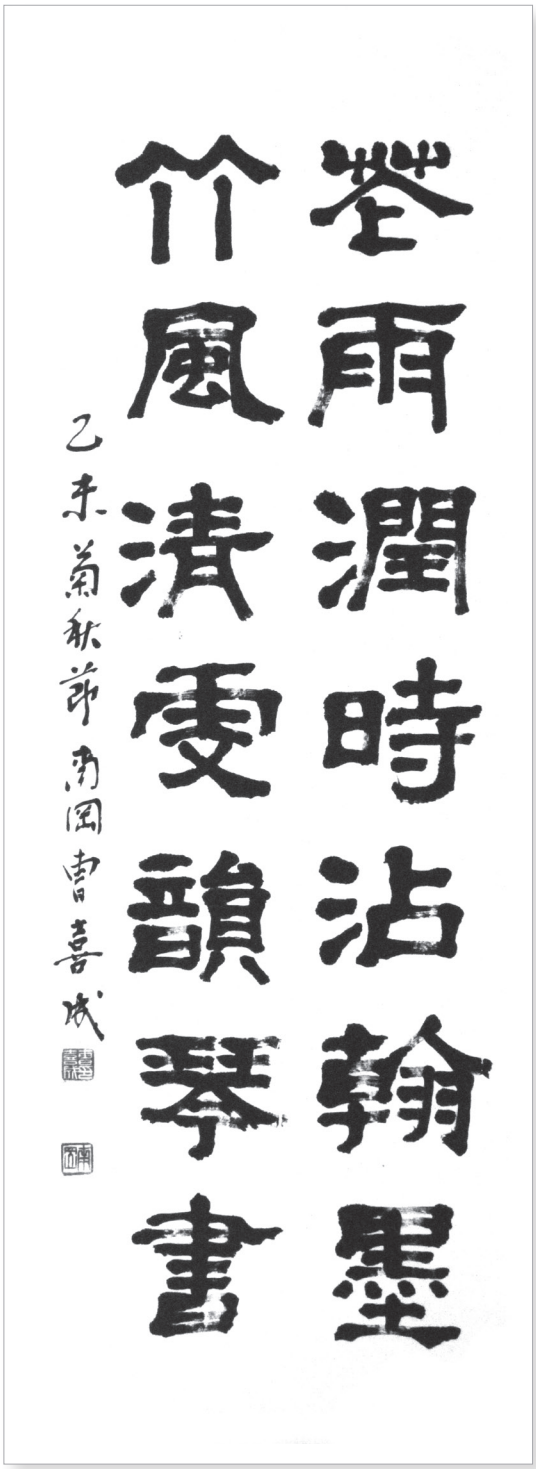


정 광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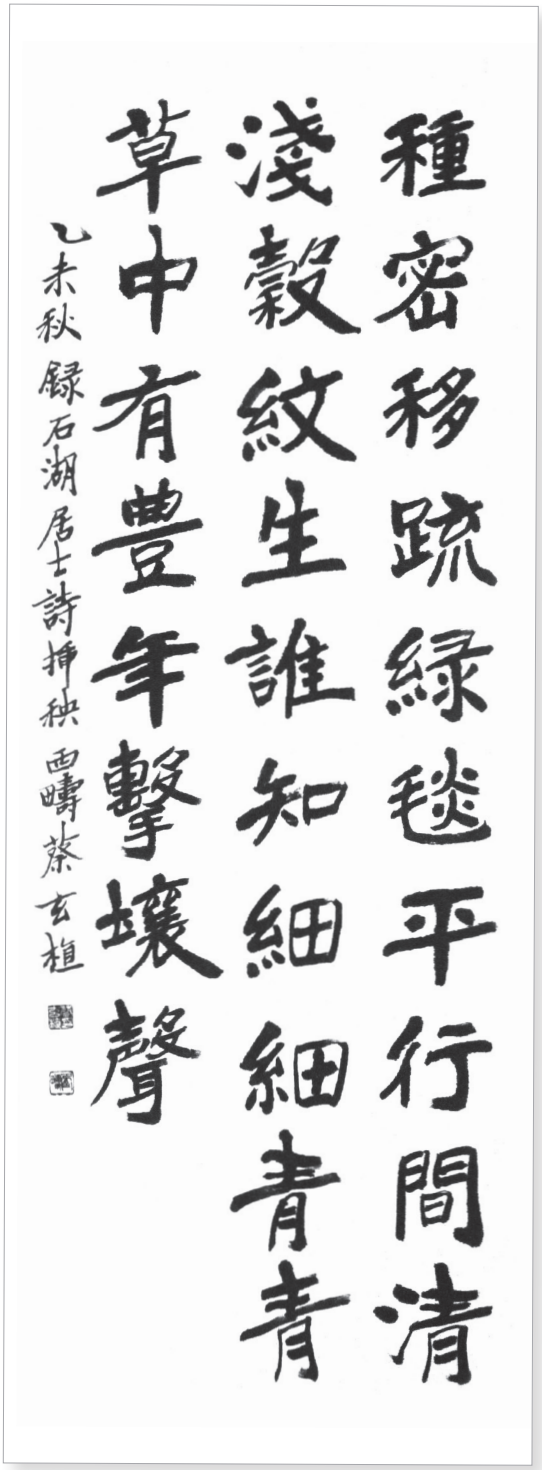
정 은 량



조 정 호



조 희 성



채 현 식

최 수 식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입 선

문인화

권기확 김승한 김영오 김옥순 김종순 박은수 이광혜 이명희 이상길 이원순 임일순
장영애 천건수 최승우

한 글

김정환 김종권 문서린 양길석 이종희 이효임 전영숙 조한별 조희원 피재천

한 문

권석일 권혁휘 길기택 김경현 김관훈 김능식 김돈기 김숙기 김영렬 김정명 김종순
김태복 김태순 김해종 김효민 류종열 박광용 박광해 박상희 박옥희 박은수 박종후
박찬배 변무섭 변정환 안병인 양길석 원완희 윤우근 이규배 이범중 이상길 이승호
이은숙 이인식 이재구 이종암 이진식 이태호 이희성 장천수 전우진 정은량 조국영
진현복 촌월명 최문수 최익진 최창수 하의철

문인화 _ 입 선

권 기 확

김 승 한

김 영 오

김 영 오

문인화 _ 입 선

김 옥 순

김 종 순

김 종 순

박 은 수

문인화 _ 입 선

이 광 혜

이 명 희

이 상 길

이 원 순

문인화 _ 입 선

임 일 순

장 영 애

천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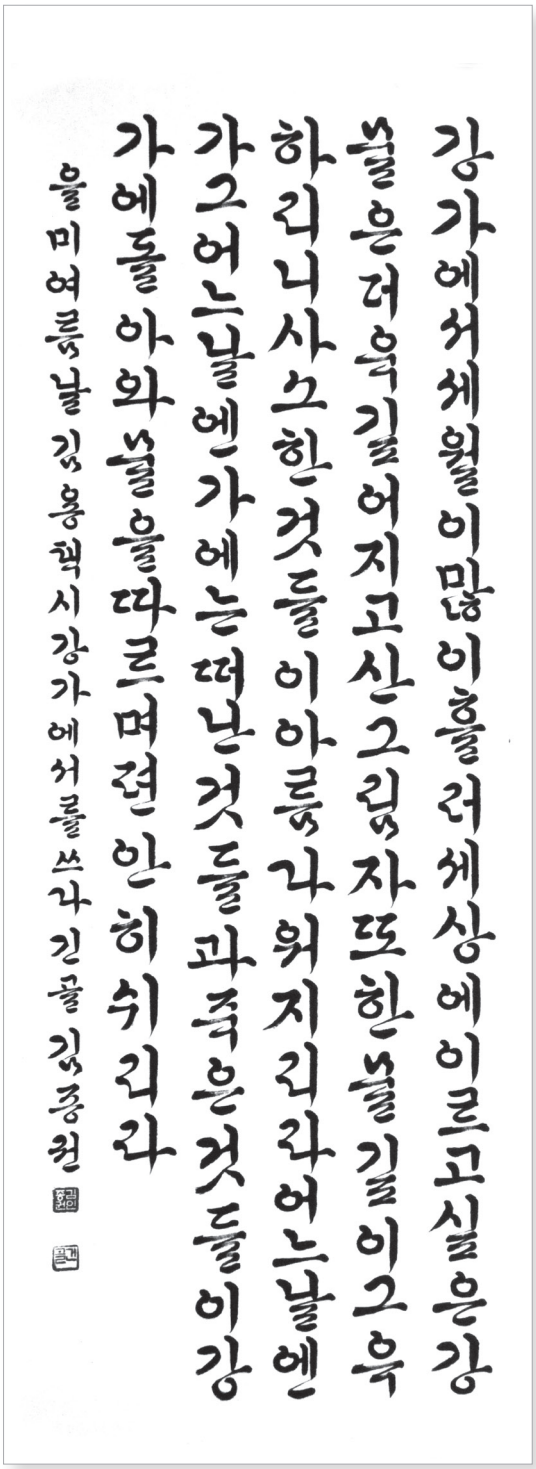
천 건 수

최 승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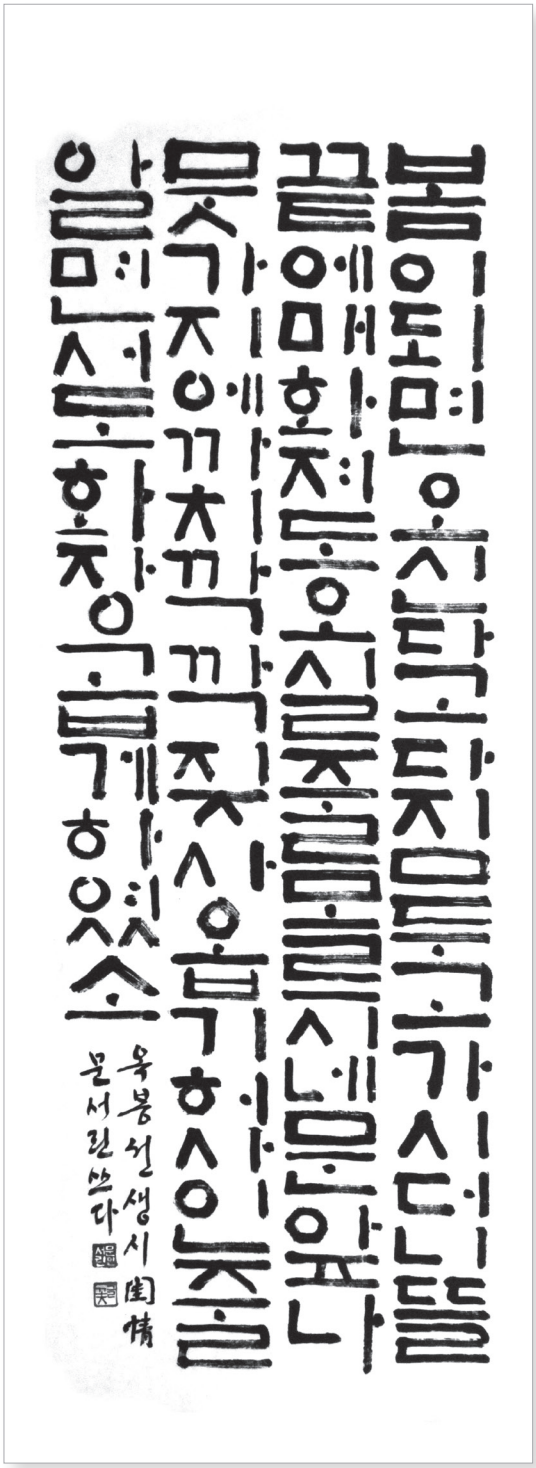
최 승 우

도고리노
와가를인
야난양을
한한보공
다사하경
람여하
들외여
을롭자
선산적림초교육학연구김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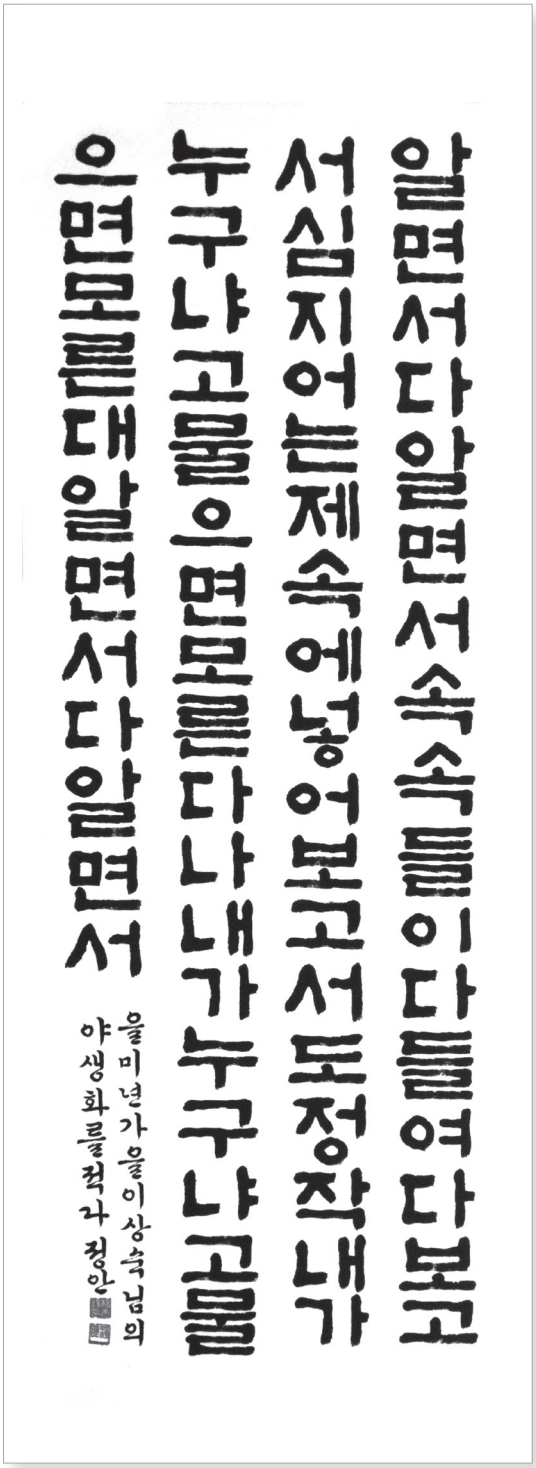
김 정 환


강가에서세월이많이흘러세상에이르고싶은강
물을건너욕길어지고산그림자또한물길이그윽
하리니사소한것들이아름다워지리라어느날엔
가그어느날에가에는떠난것들과죽은것들이강
가에돌아와물을따르며편안히쉬리라
을미여름날김용택시강가에서를쓰다김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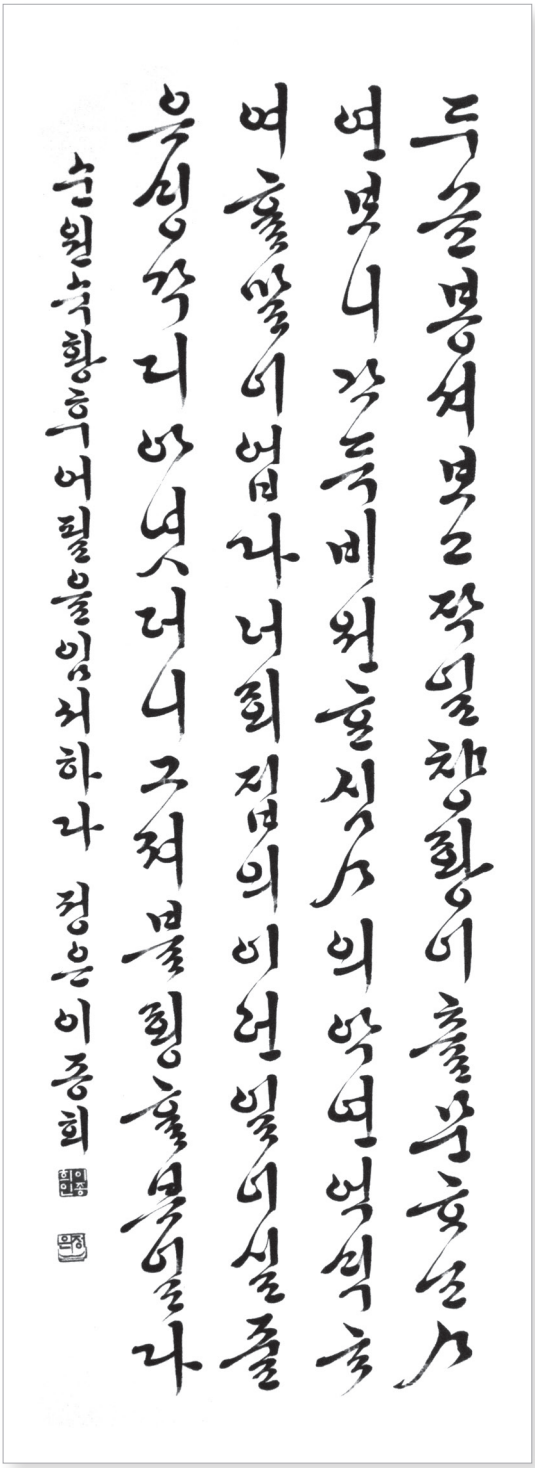
김 종 권


봄이도면오시는듯하시더니
꽃에매화등오시는듯하시는
뭇가지에가지가지오시는
알음다운향기에취하소서
육봉선생시 陶情
문서린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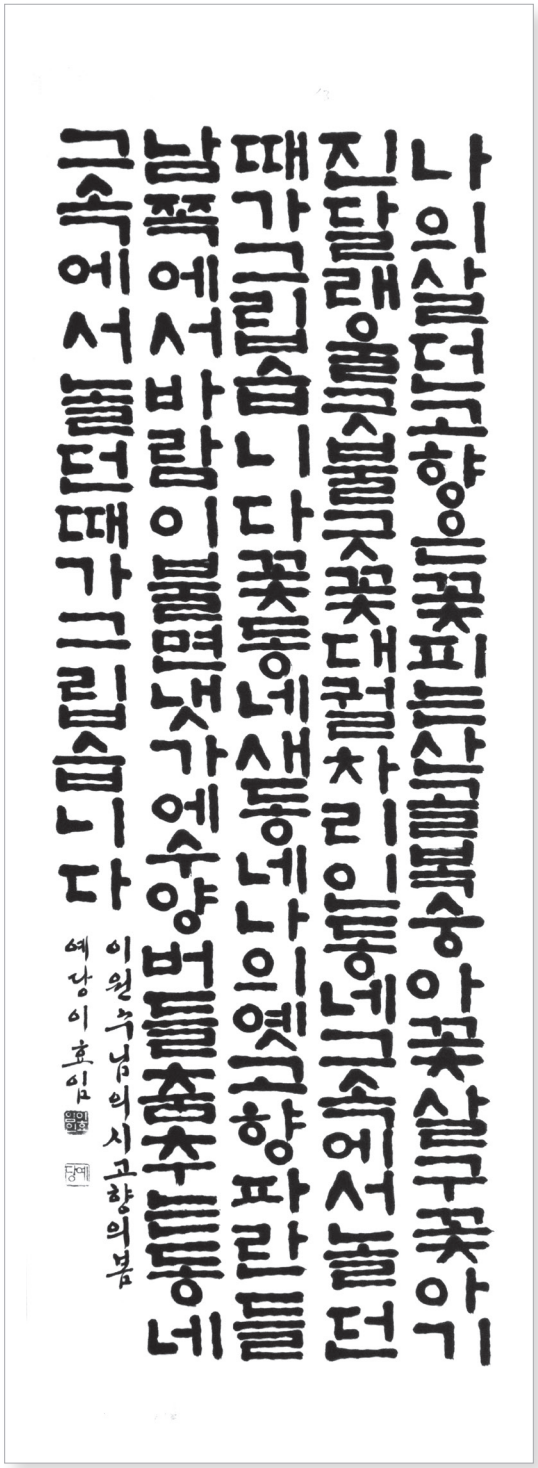
문 서 린


알면서다알면서속속들이다들여다보고
서심지어는제속에넣어보고서도정작내가
누구냐고물으면모른다나내가누구냐고물
으면모른대알면서다알면서
을미년가을이상숙님의
야생화를적다 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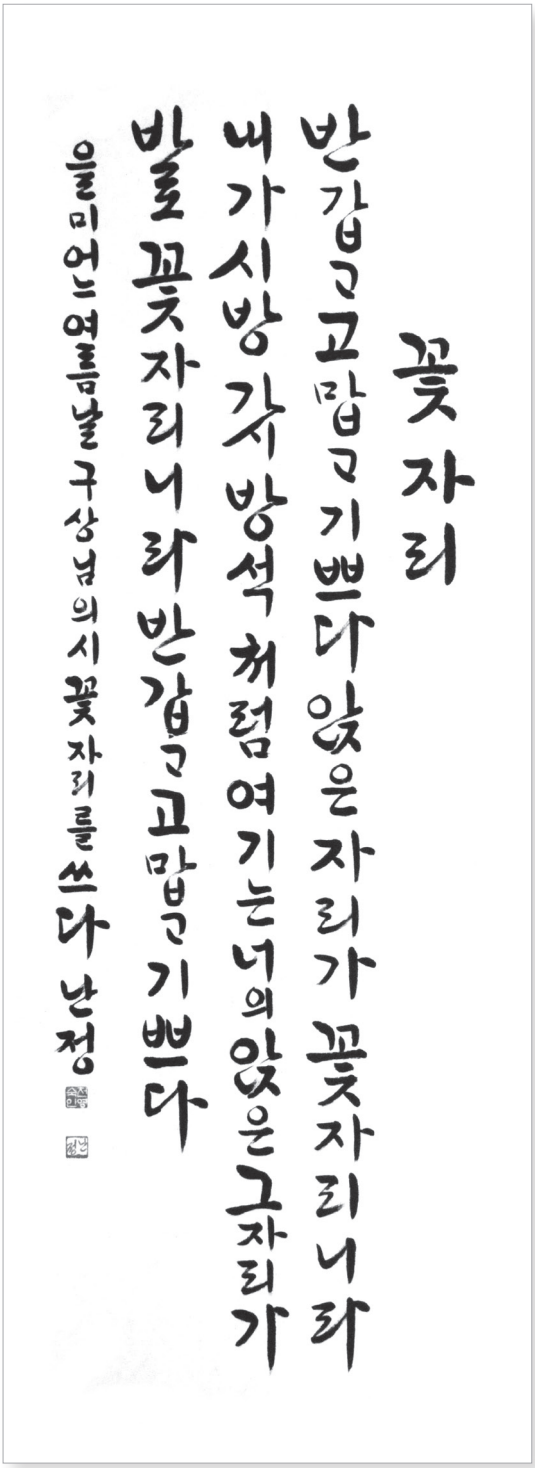
양 길 석


두견명사 봄 작설 창황이 출금 호수가
연못 나 꽃 늑비 원 흘 시가 의 박 연 벽 력 학
며 흘 살 이 엄 나 너 회 집 의 이 선 빛 이 실 줄
웅 싱 작 니 아 녓 더 니 그 쳐 불 횡 흘 불 이 를 나
순원 숙황 학 어 릴 을 임 서 하 나 정 은 이 종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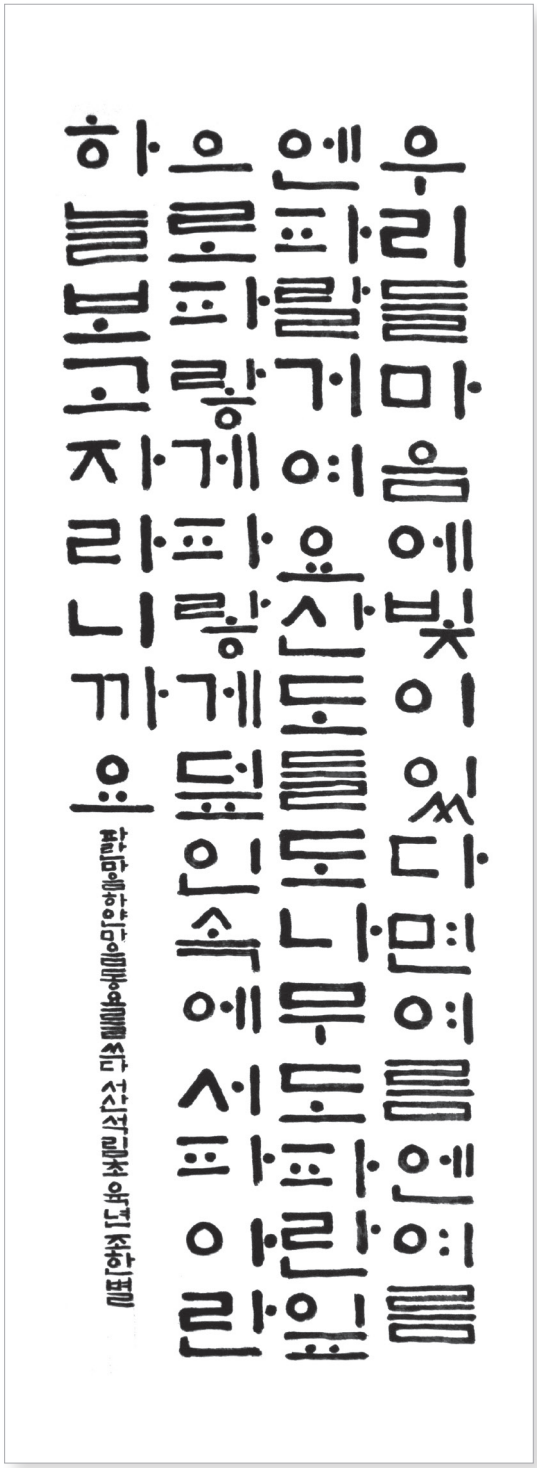
이 종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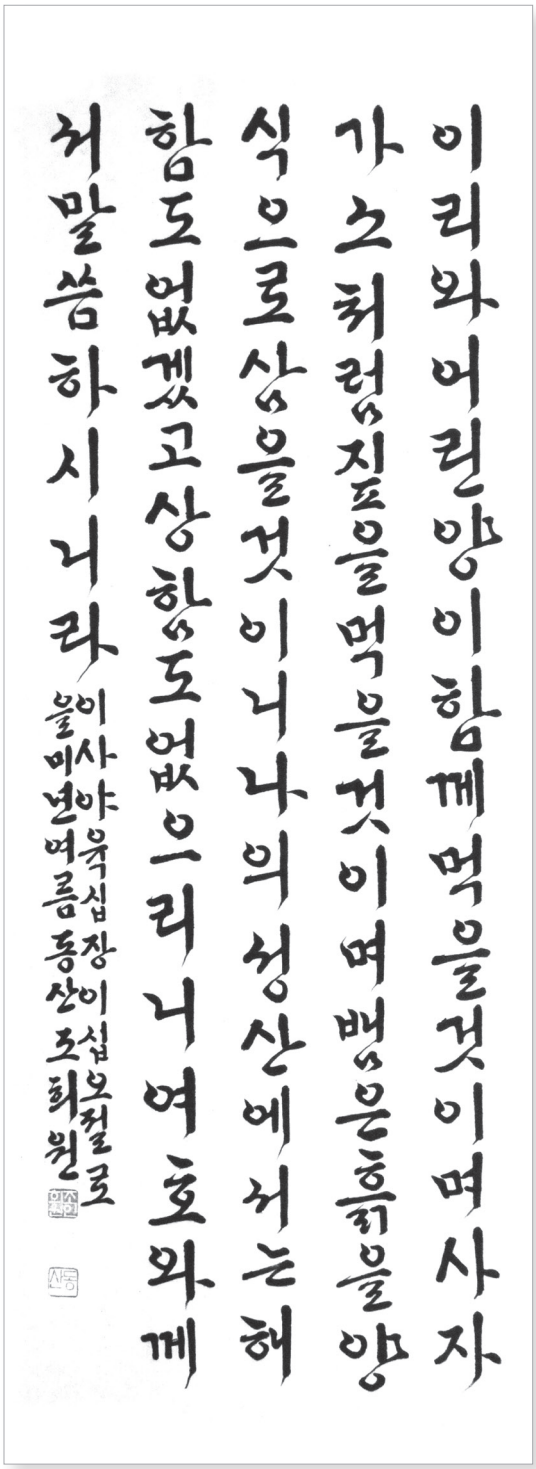

나 이 살 던 고 향 은 꽃 피 는 산 골 복 숭 아 꽃 살 구 꽃 아 기
진 달 래 울 긋 불 긋 꽃 대 궐 차 리 이 동 네 그 속 에 서 놀 던
때 가 그 립 습 니 다 꽃 동 네 새 동 네 나 의 옛 고 향 파 란 들
남 쪽 에 서 바 람 이 불 면 냇 가 에 수 양 버 들 춤 추 는 동 네
그 속 에 서 놀 던 때 가 그 립 습 니 다
이원수님의 시 고향의 봄
예당 이 효 임

이 효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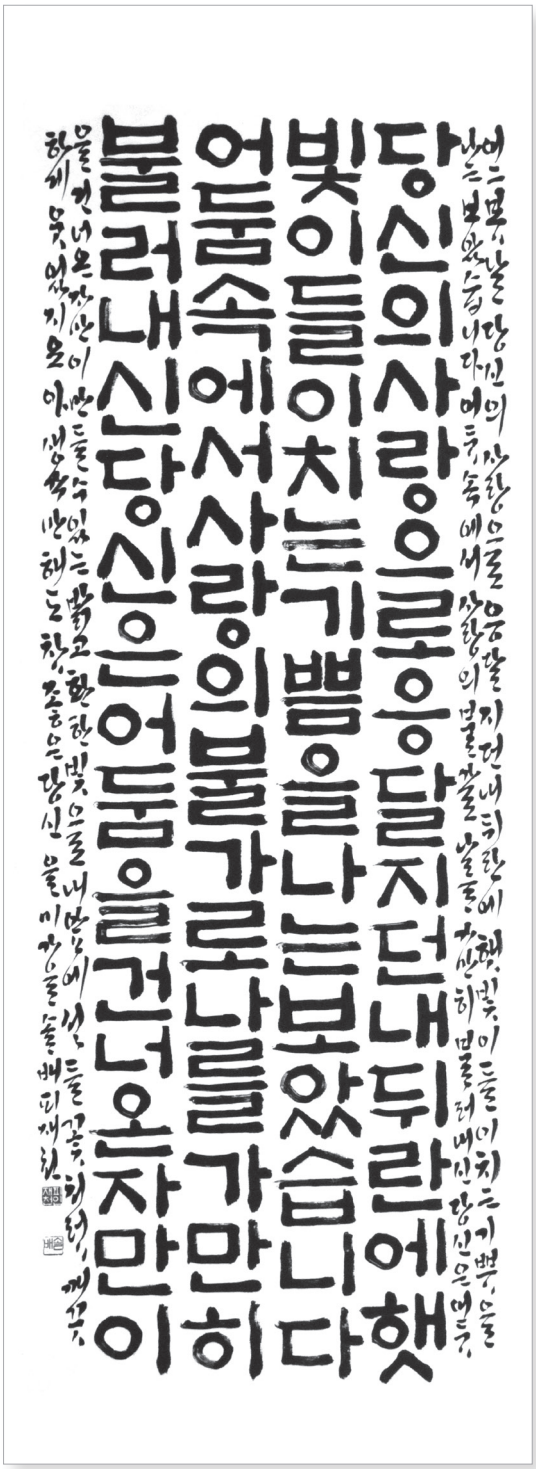


전 영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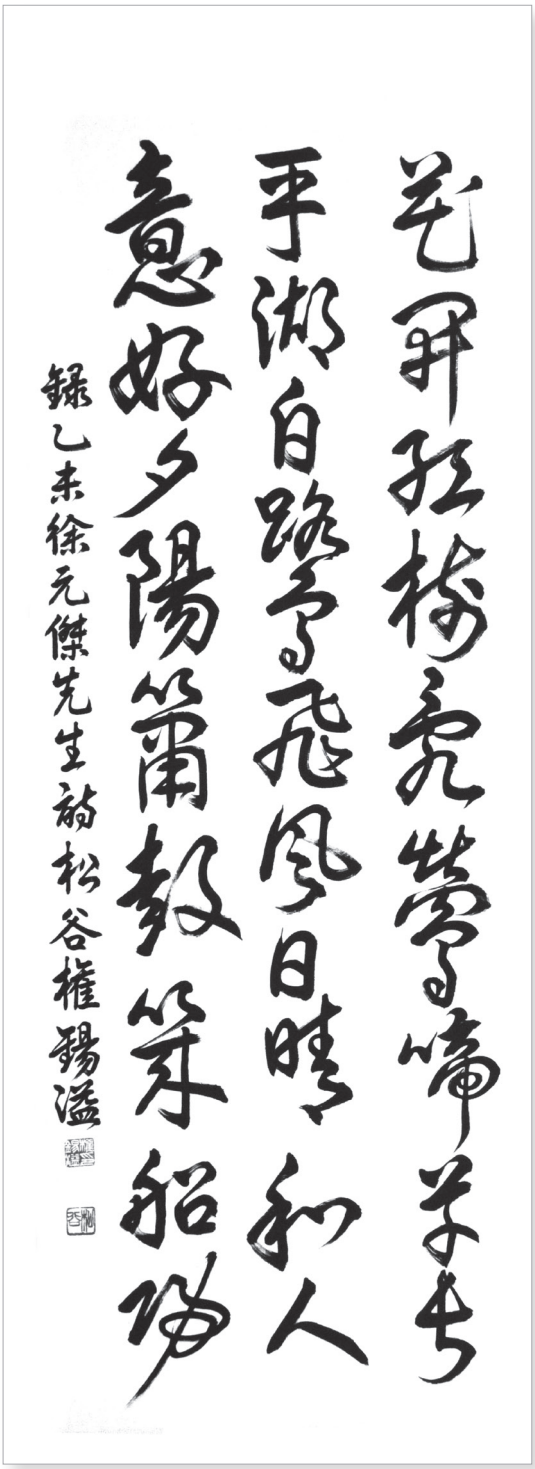

우리들 마음에 있다 만이 이름 인 파리 파랑 거미 요 산 도 들 도 나무 서 도 파 인 이 름 인 파 랑 이 파 랑 이 파 요 산 도 들 도 나 무 서 도 파 인 이 름 인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것이며 사자
가 소처럼 짚을 먹을것이며 뱀은 흙을 양
식으로 삼을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
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
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육십장 이십오절로
을미년 여름 동산 조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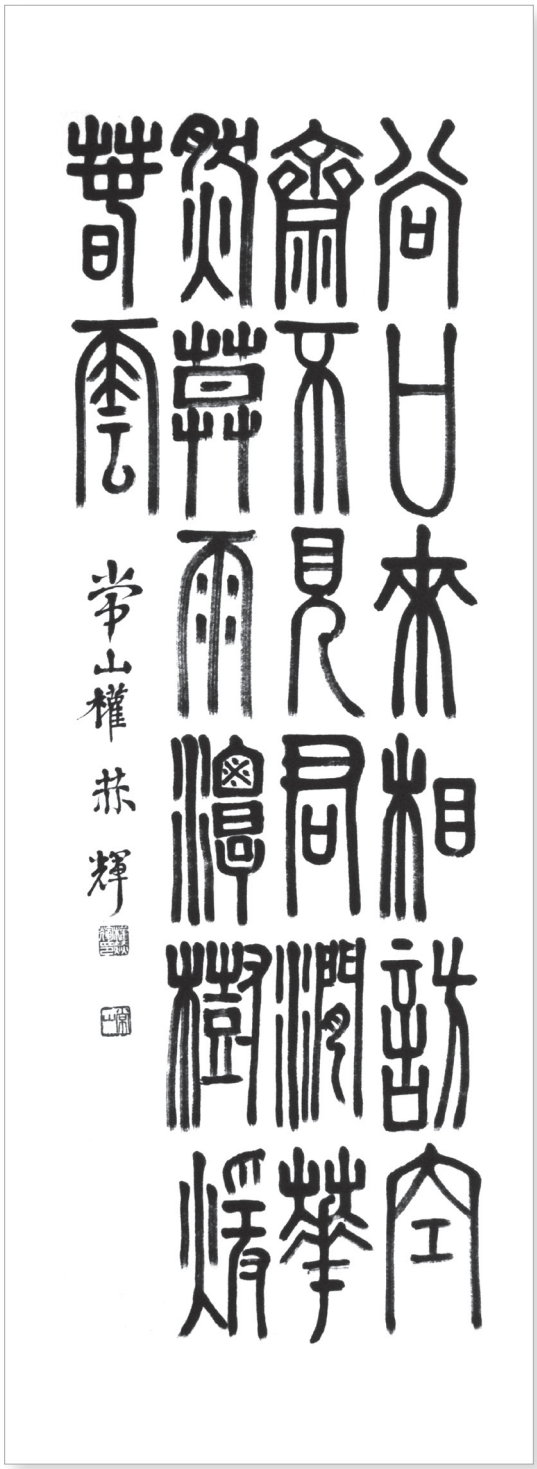
조 희 원


당신의사랑으로응달지던내뒤란에햇
빛이들이치는기쁨을나는보았습니다
어둠속에서사랑의불가로나를가만히
불러내신당신은어둠을건너오자만이

피 재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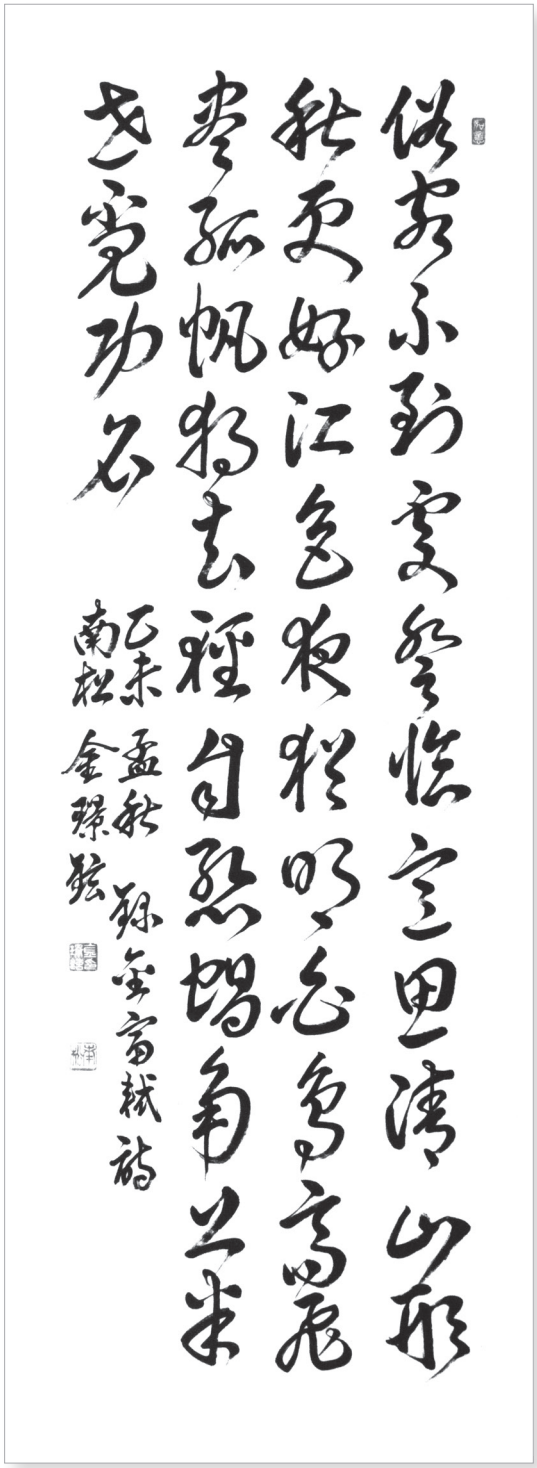


권 석 일



권 혁 휘

길 기 택



김 경 현

輕雲華月吐芳樹澹
烟沈夜久孤村靜清
泉響竹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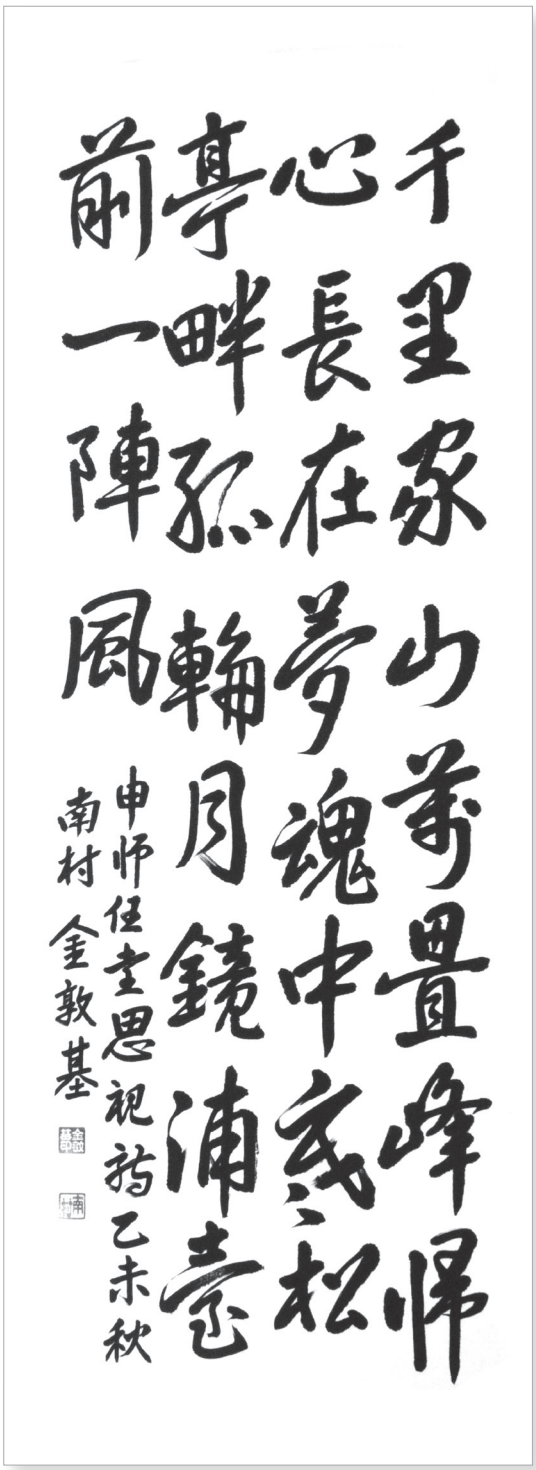
滿谷 金寬勲

김 관 훈

綠水明秋月南湖采
白蘋荷花嬌欲語愁
殺蕩舟人

乙未季秋日錄李太白先生詩
輝岩 金能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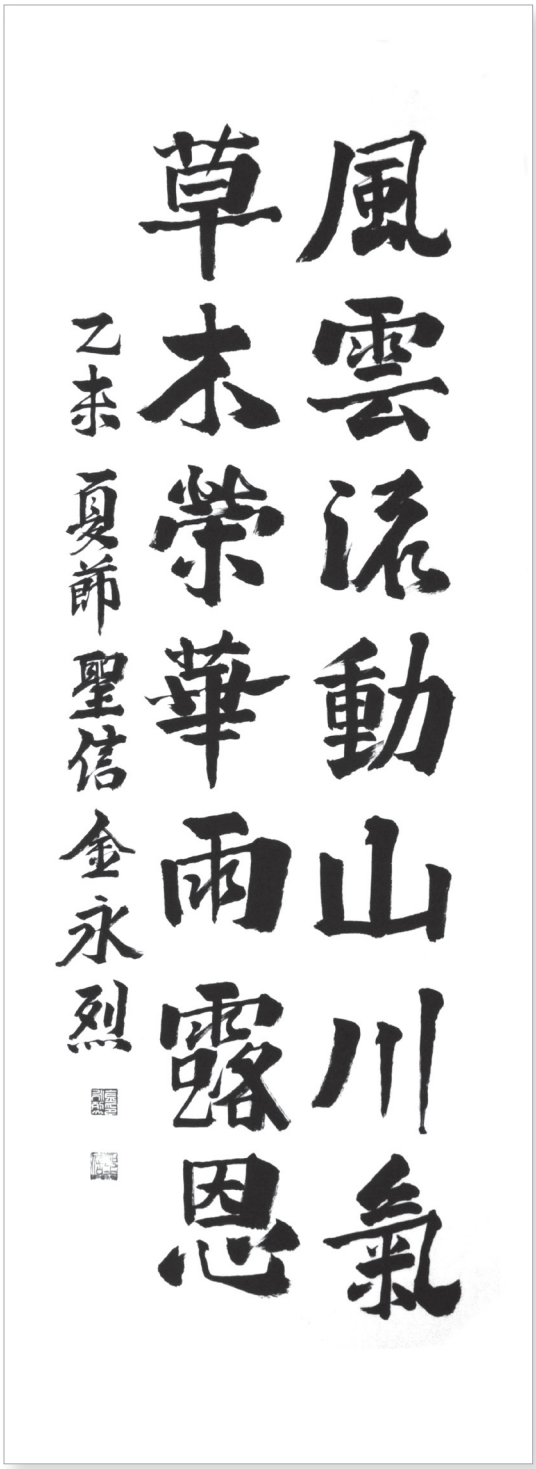
김 능 식


千里衆山兼畫峰歸
心長在夢魂中炎松
亭畔孤輪月鏡浦壹
前一陣風
申怀任圭思祝於乙未秋
南村金敦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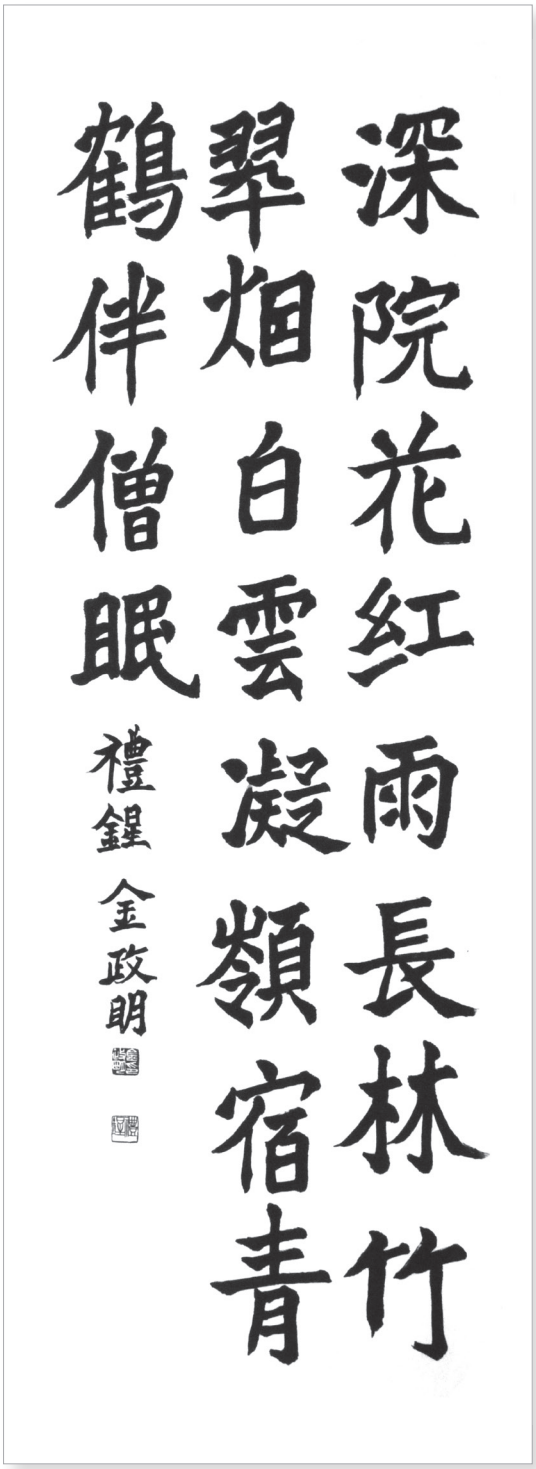
김 돈 기

此身難去就南北自
沈浮縱是思鄉切還
家亦有愁
和宇金琡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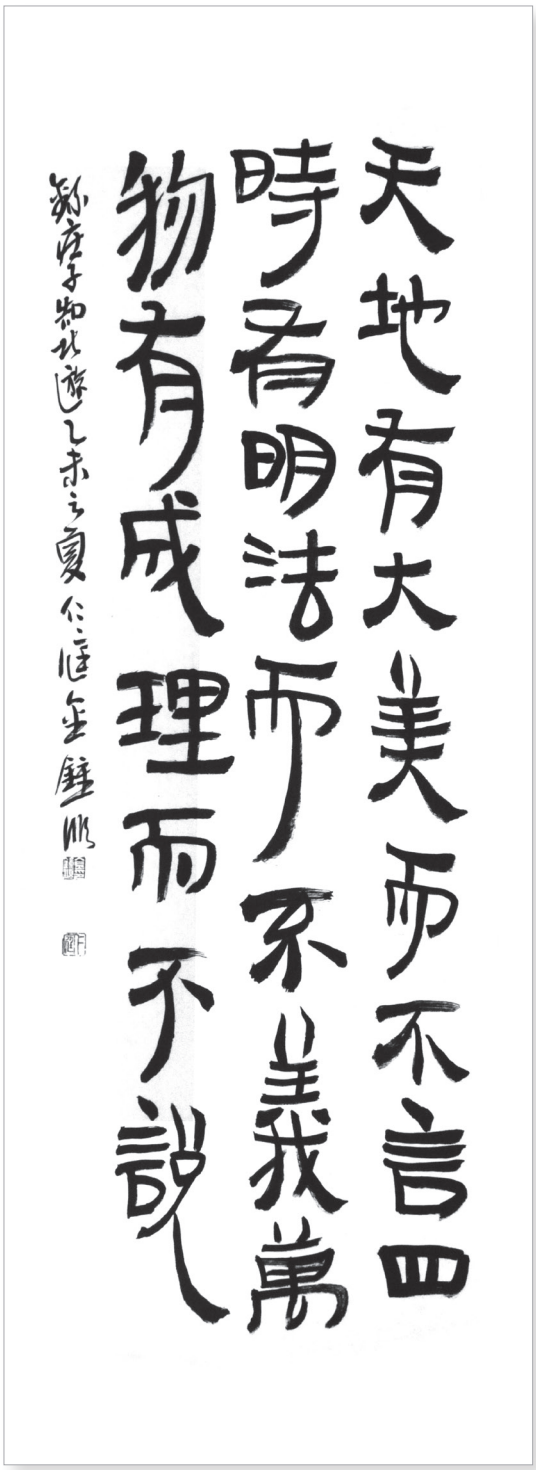
김 숙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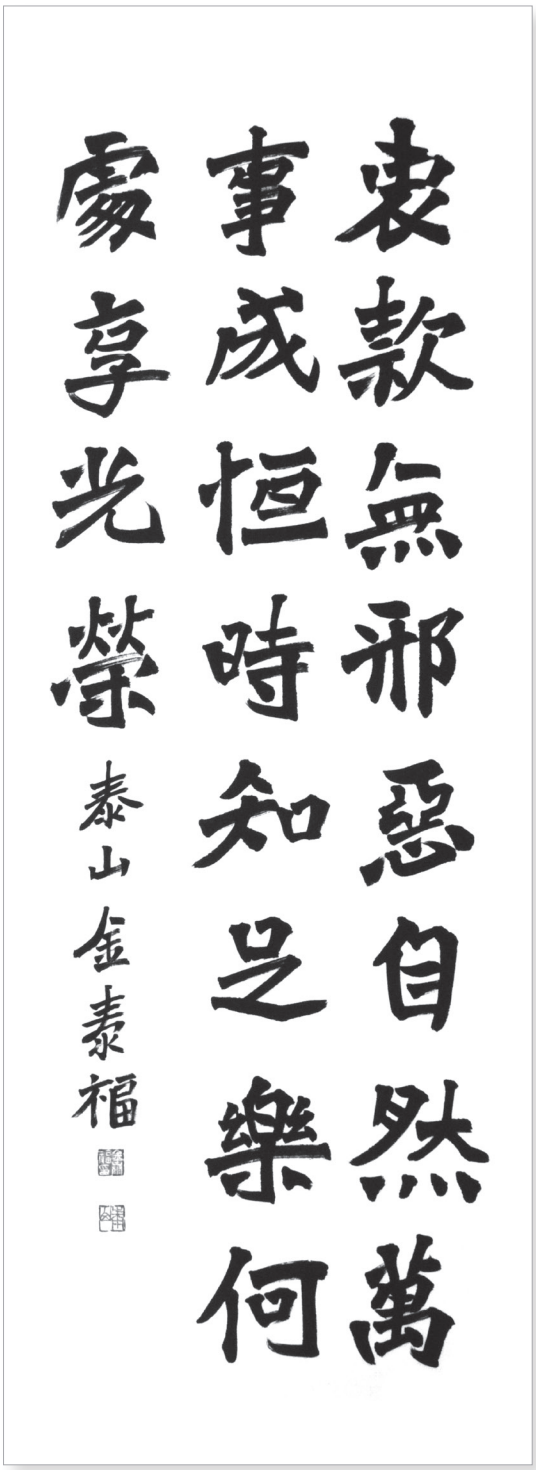
김 영 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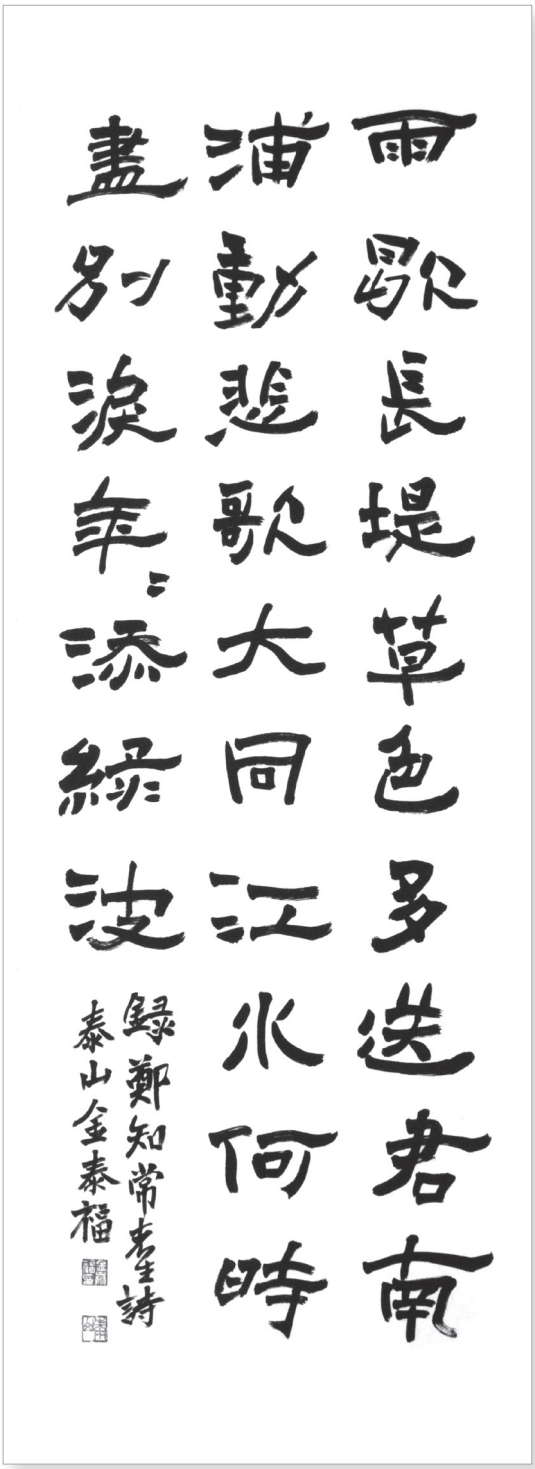
김 정 명



김 종 순



김 태 복


雨歌長堤草色多送君南
浦動悲歌大同江水何時
盡別淚年年添綠波
錄鄭知常先生詩
泰山金泰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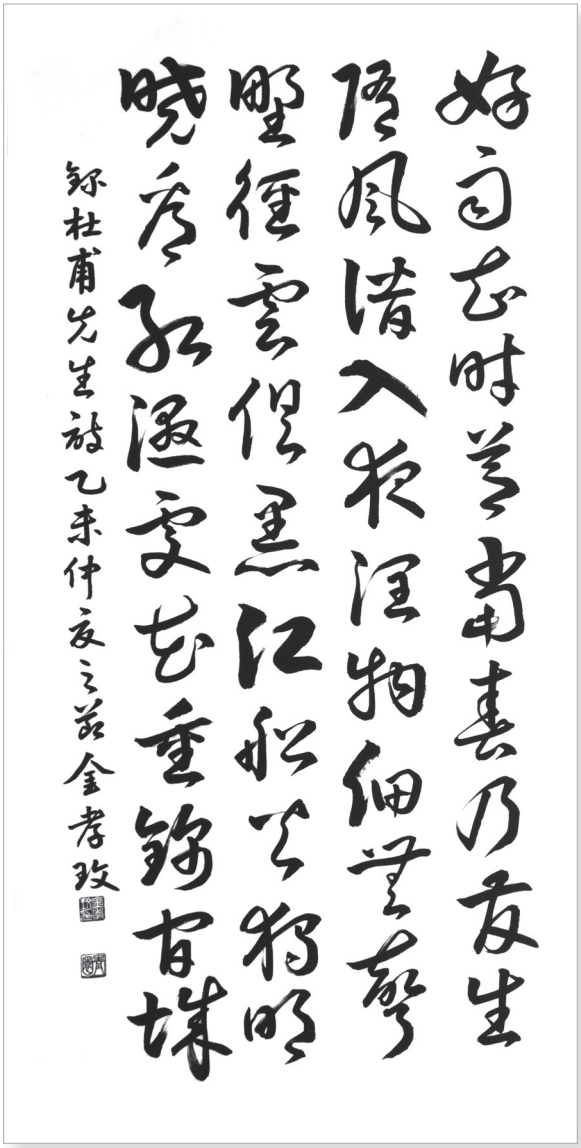
김 태 복

一勤天下無難事
百忍堂中有泰和
名句乙未夏日演堂金泰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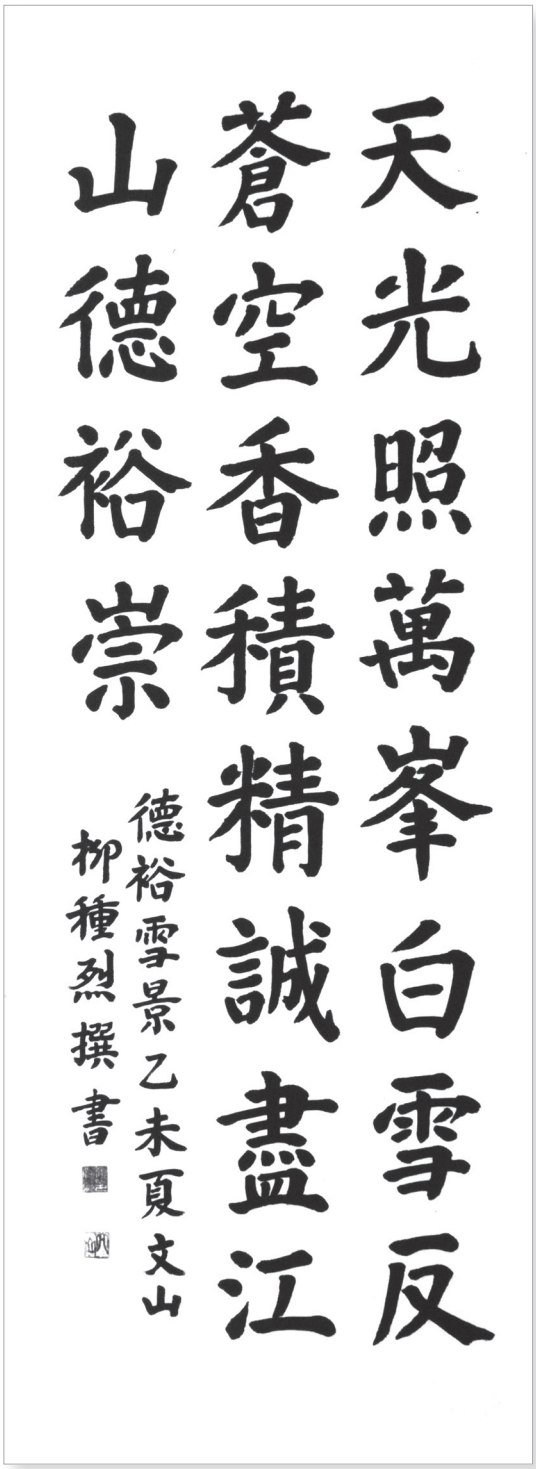
김 태 순

靜中動
乙未夏節九峯金海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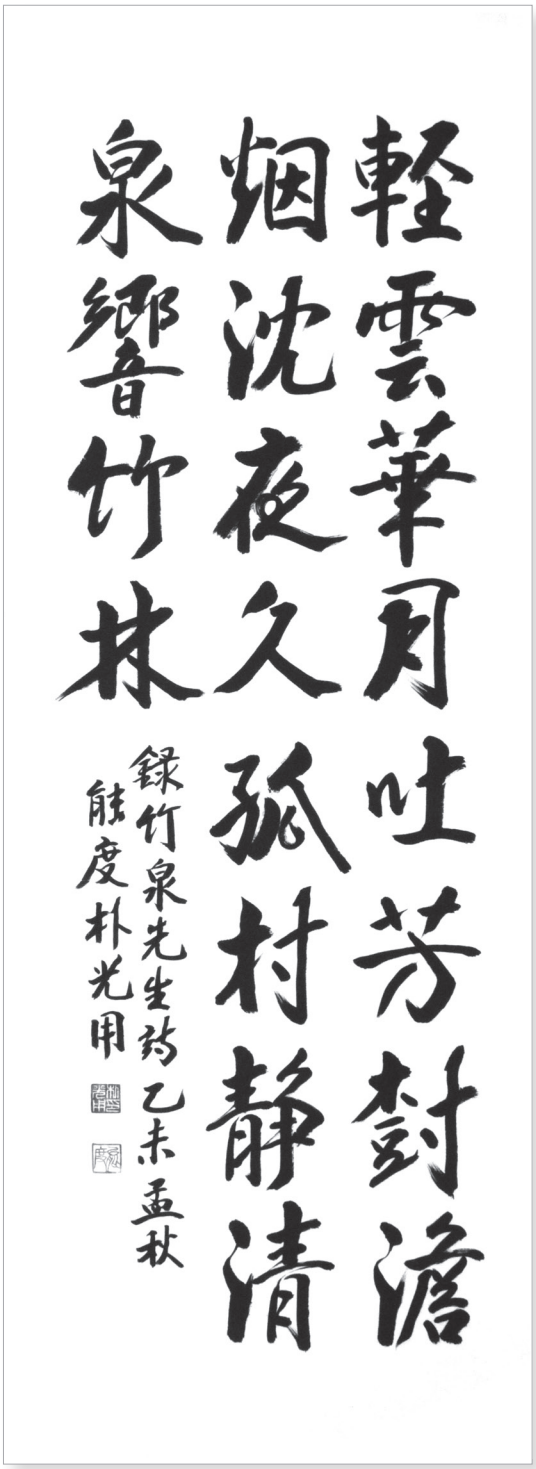
김 해 종


好雨乘時節當春乃發生
隨風潛入夜潤物細無聲
野徑雲俱黑江船火獨明
曉看紅濕處花重錦官城
杜甫先生詩乙未仲夏之岳金孝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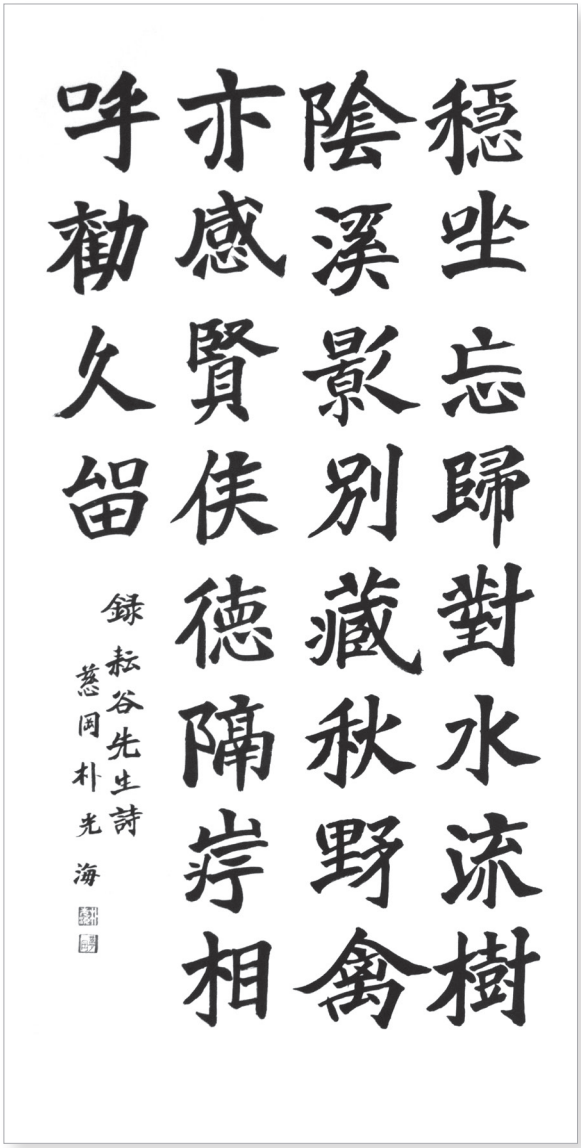
김 효 민


天光照萬峯白雪反
蒼空香積精誠盡江
山德裕崇
德裕雪景乙未夏文山
柳種烈撰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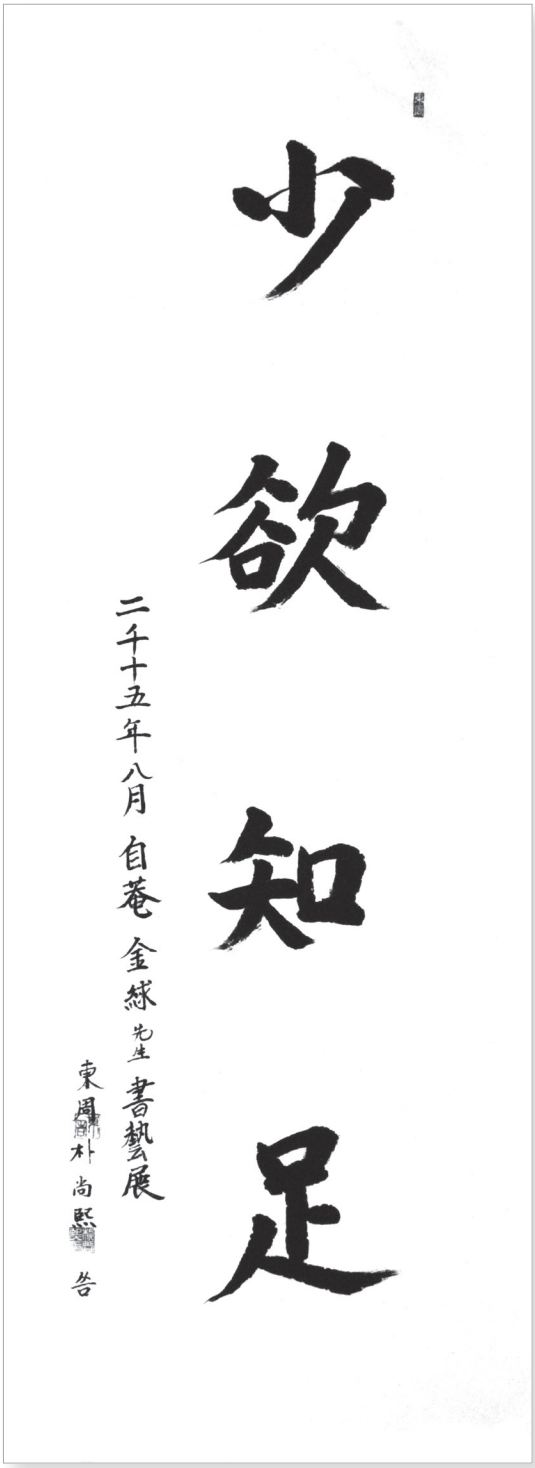
류 종 열


輕雲華月吐芳對潘
烟沈夜久孤村靜清
泉響竹林
録竹泉先生句乙未孟秋
熊度朴光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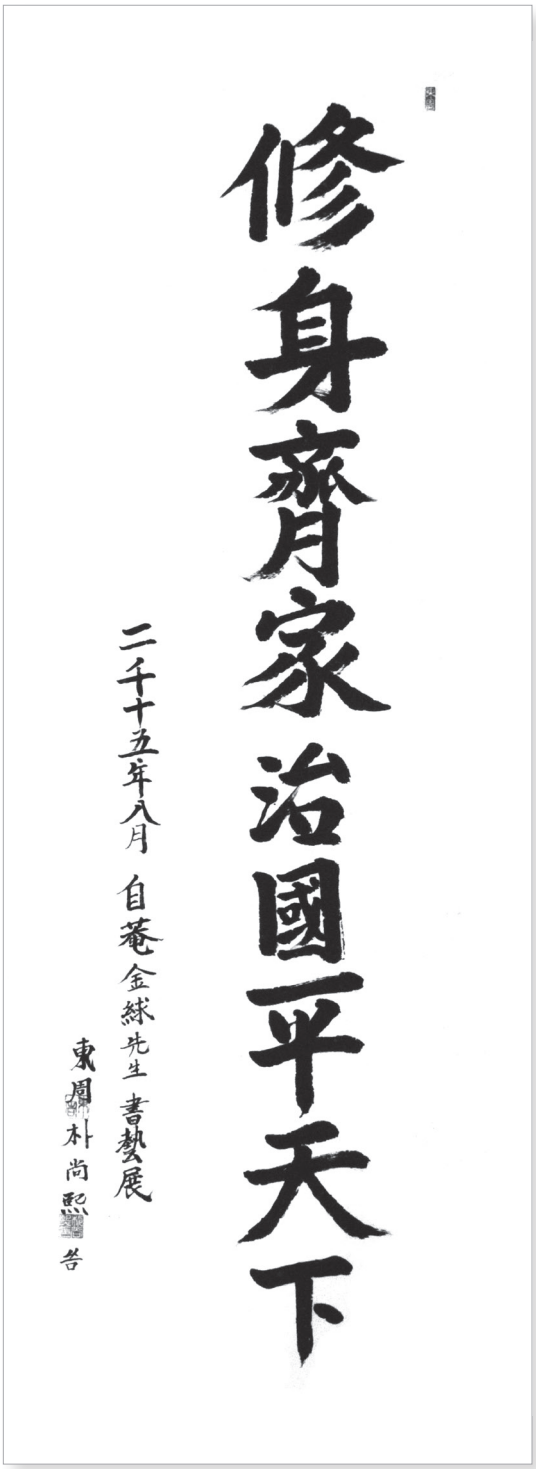
박 광 용


穩坐忘歸對水流樹
陰溪影別藏秋野禽
亦感賢侯德隔岸相
呼勸久留
錄 耘谷先生詩
慈岡 朴光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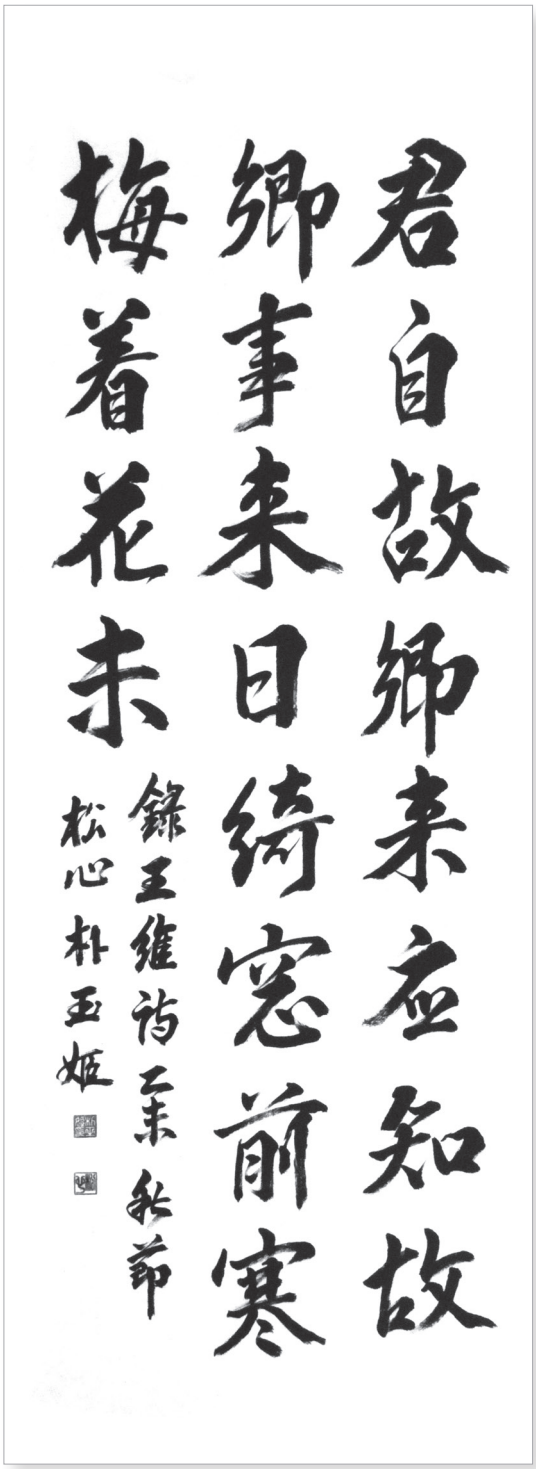
박 광 해


少欲知足
二千十五年八月 自菴 金緑 先生 書藝展
東岡 朴尚熙 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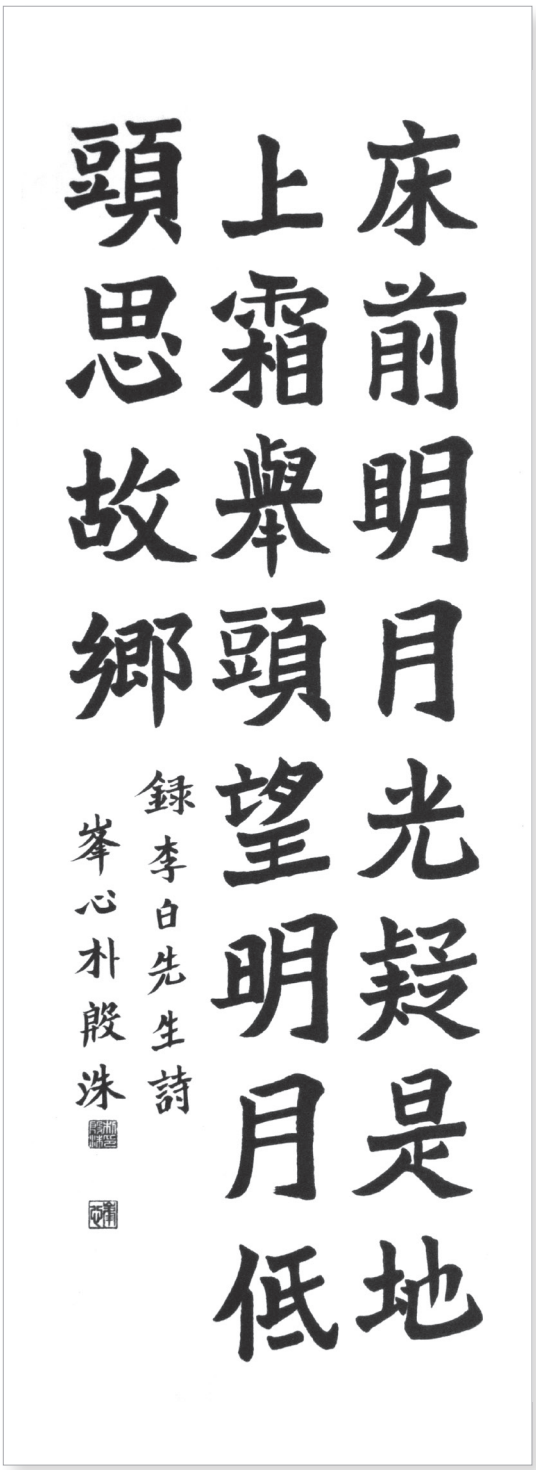
박 상 희


修身齊家治國平天下
二千十五年八月 自菴金絿先生 書藝展
東園朴尚熙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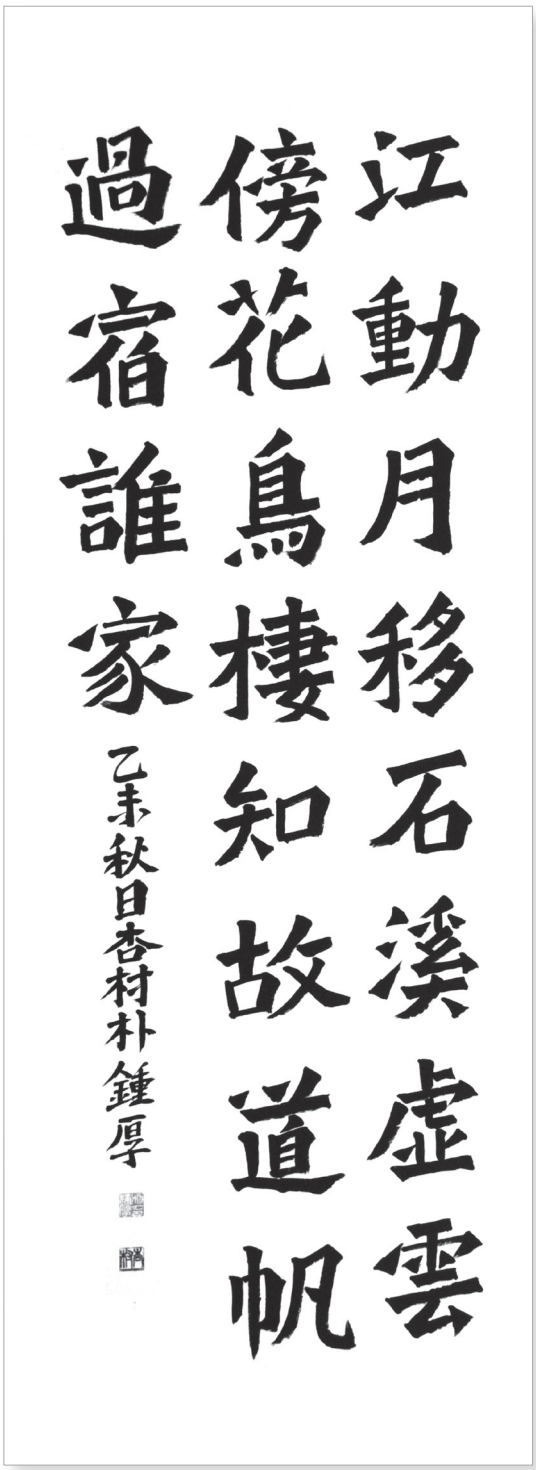
박 상 희


君自故鄉來應知故
鄉事來日綺窓前寒
梅着花未
錄王維詩 二首 秋節
松心朴玉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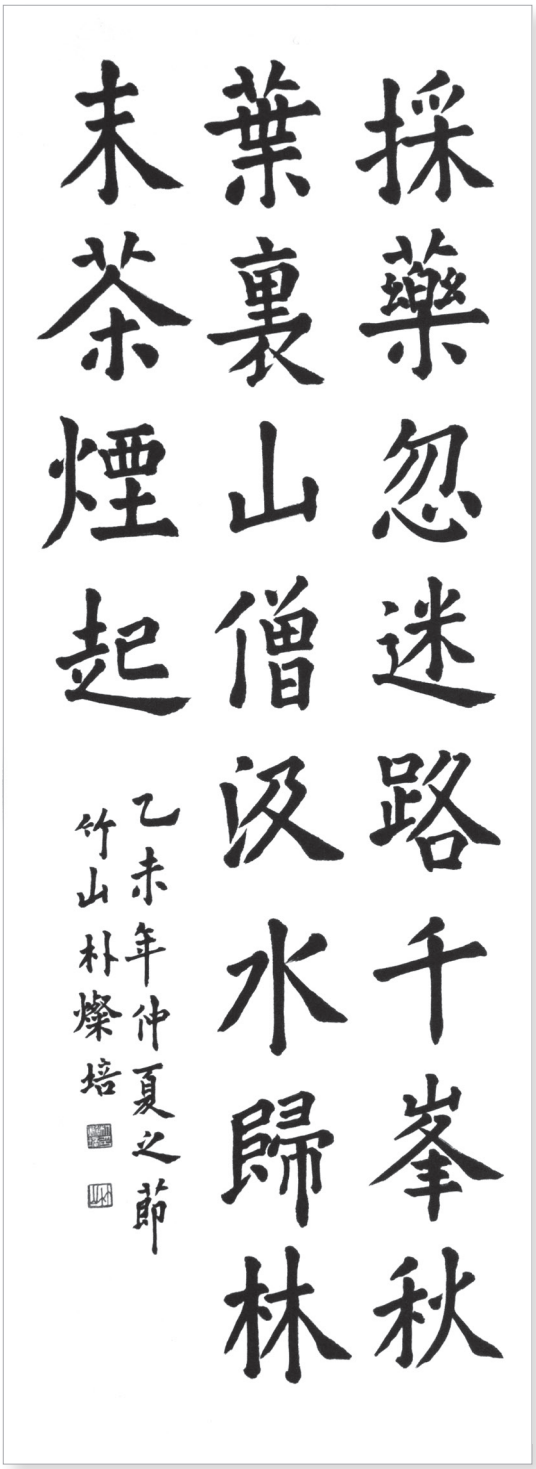
박 옥 희


床前明月光疑是地
上霜舉頭望明月低
頭思故鄕
錄李白先生詩
峯心朴殷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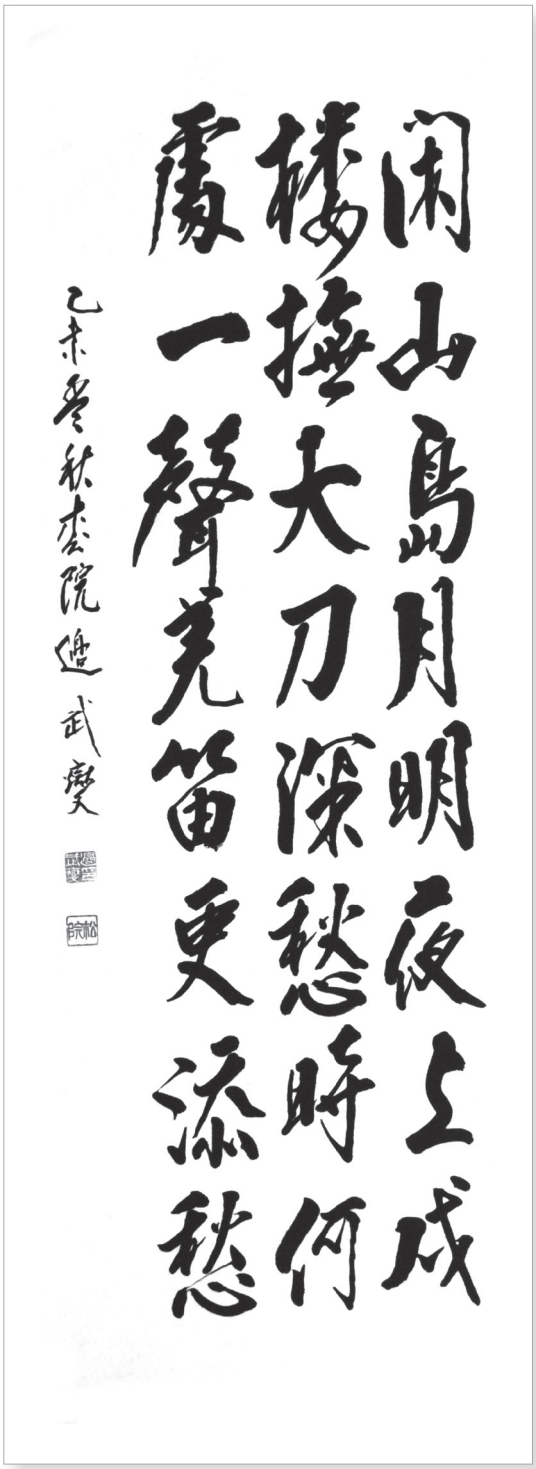
박 은 수


江動月移石溪虛雲
傍花鳥棲知故道帆
過宿誰家
乙未秋日杏村朴鍾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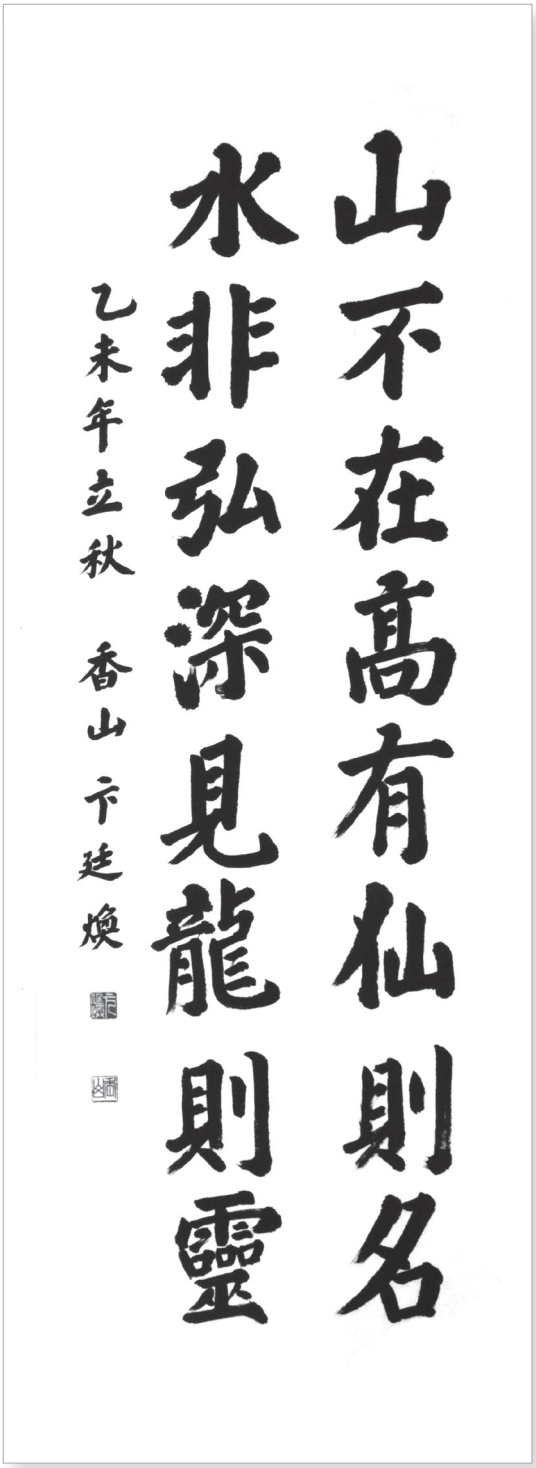
박 종 후


採藥忽迷路千峯秋
葉裏山僧汲水歸林
末茶煙起
乙未年仲夏之節
竹山朴燦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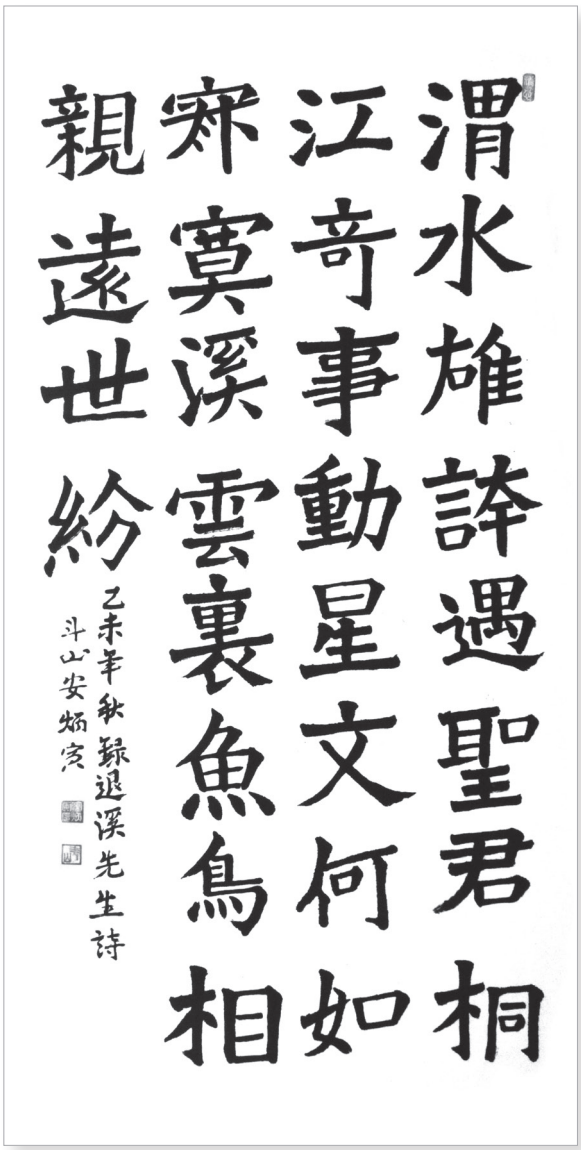
박 찬 배


閑山島月明夜上戍
樓撫大刀深愁時何
處一聲羌笛更添愁
乙未季秋雲院遊 武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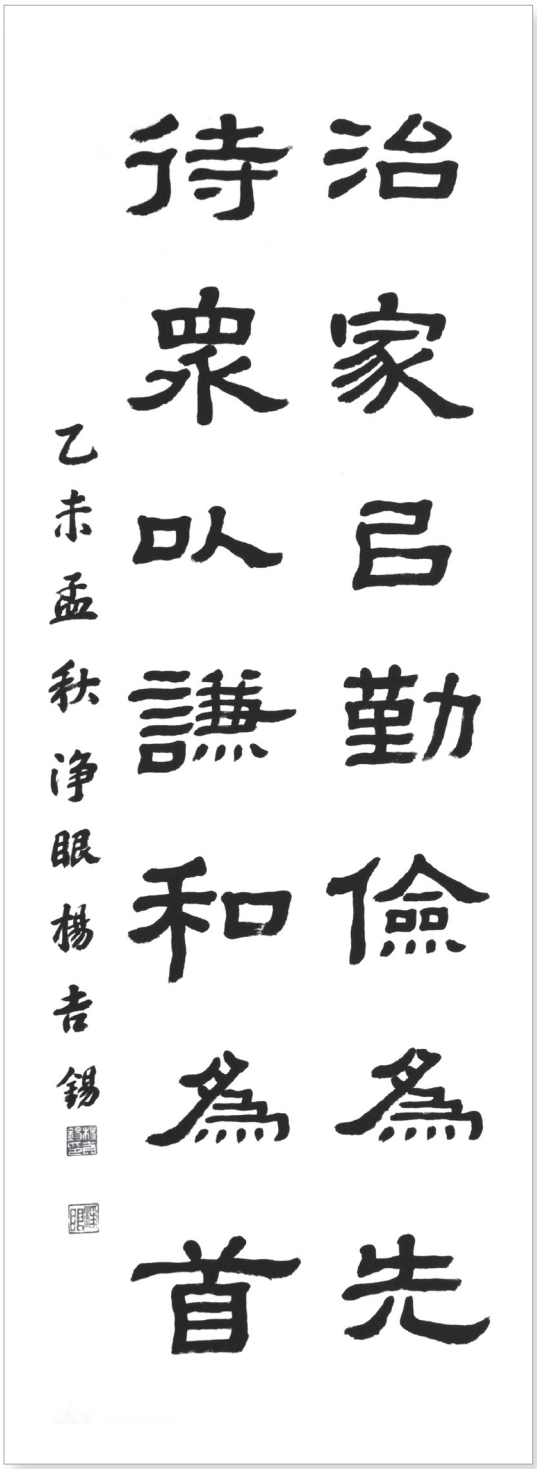
변 무 섭


山不在高有仙則名
水非弘深見龍則靈
乙未年立秋 香山 卞廷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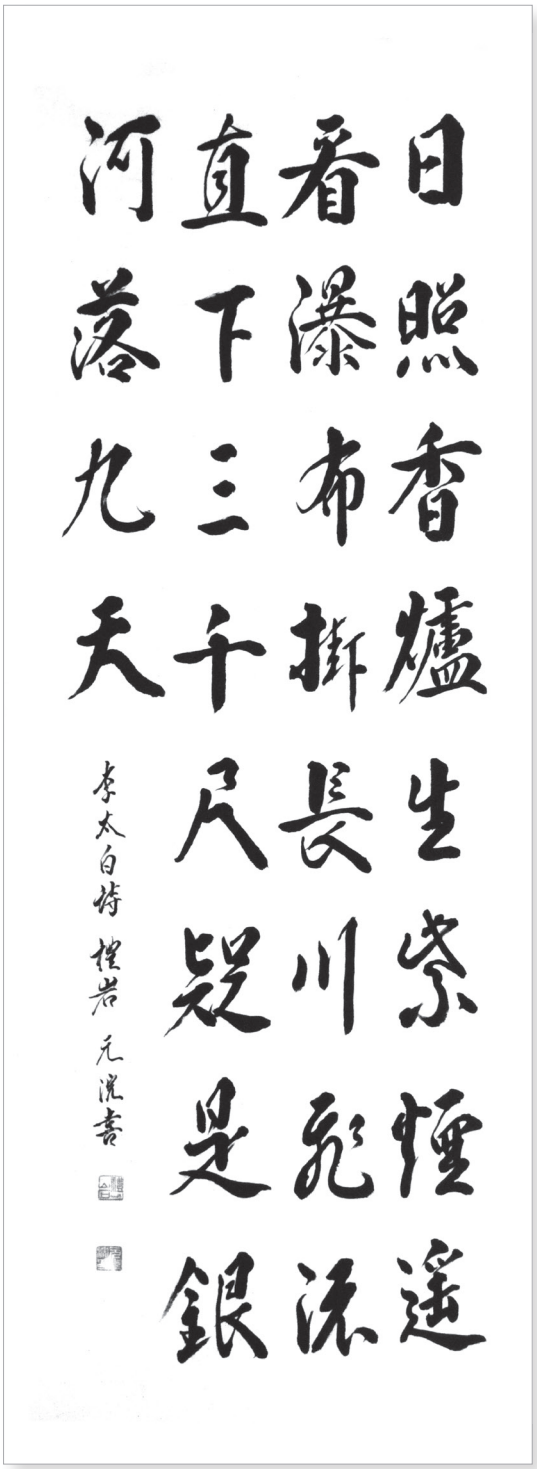
변 정 환


渭水雄詩遇聖君桐
江奇事動星文何如
寐寞溪雲裏魚鳥相
親遠世紛
乙未年秋 錄退溪先生詩
斗山安炳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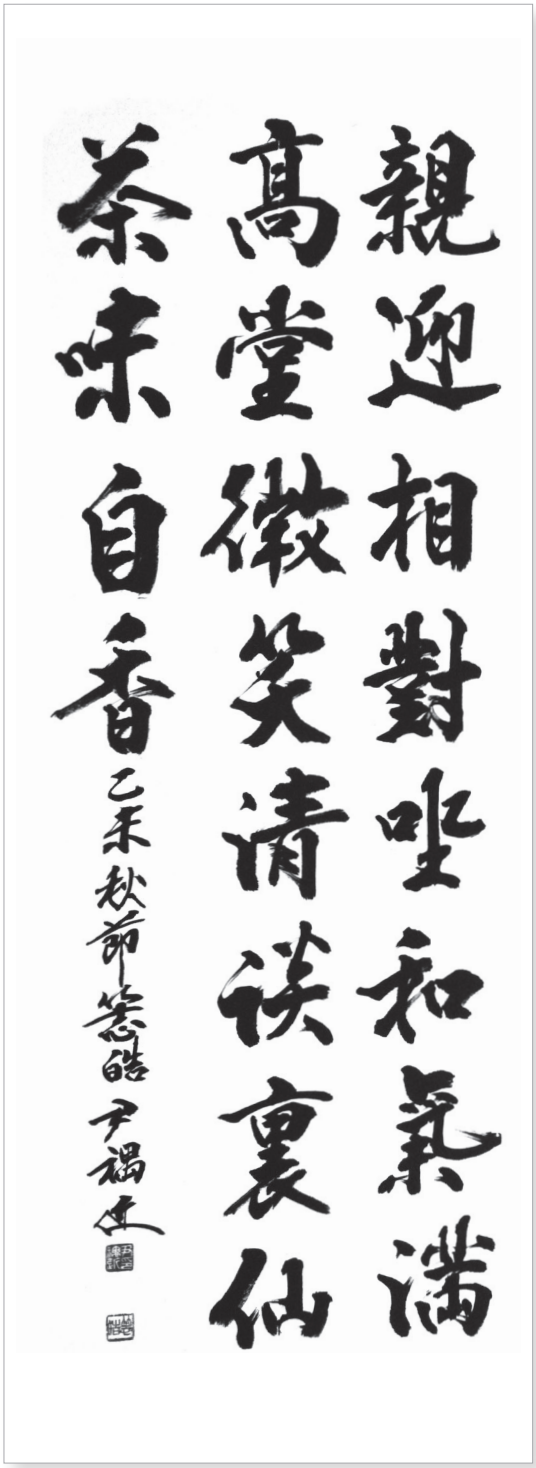
안 병 인


治家呂勤儉爲先
待衆以謙和爲首
乙未孟秋淨眼楊吉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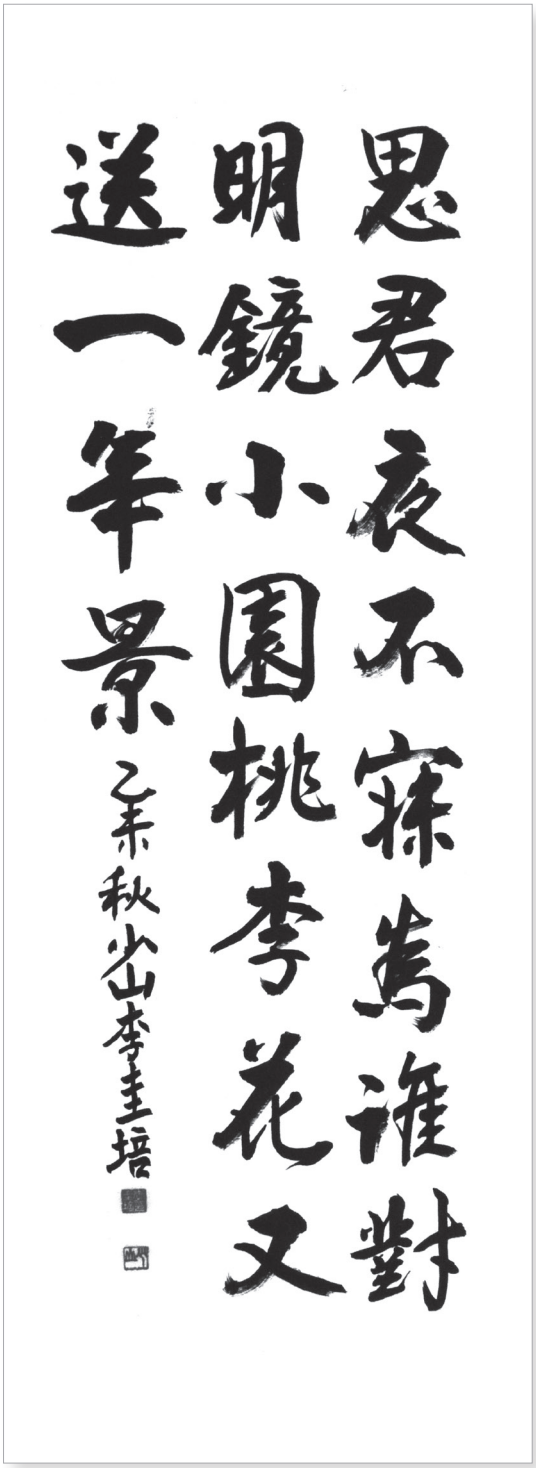
양 길 석


日照香爐生紫煙遠
看瀑布掛長川飛流
直下三千尺疑是銀
河落九天
李太白詩 槿岩 元流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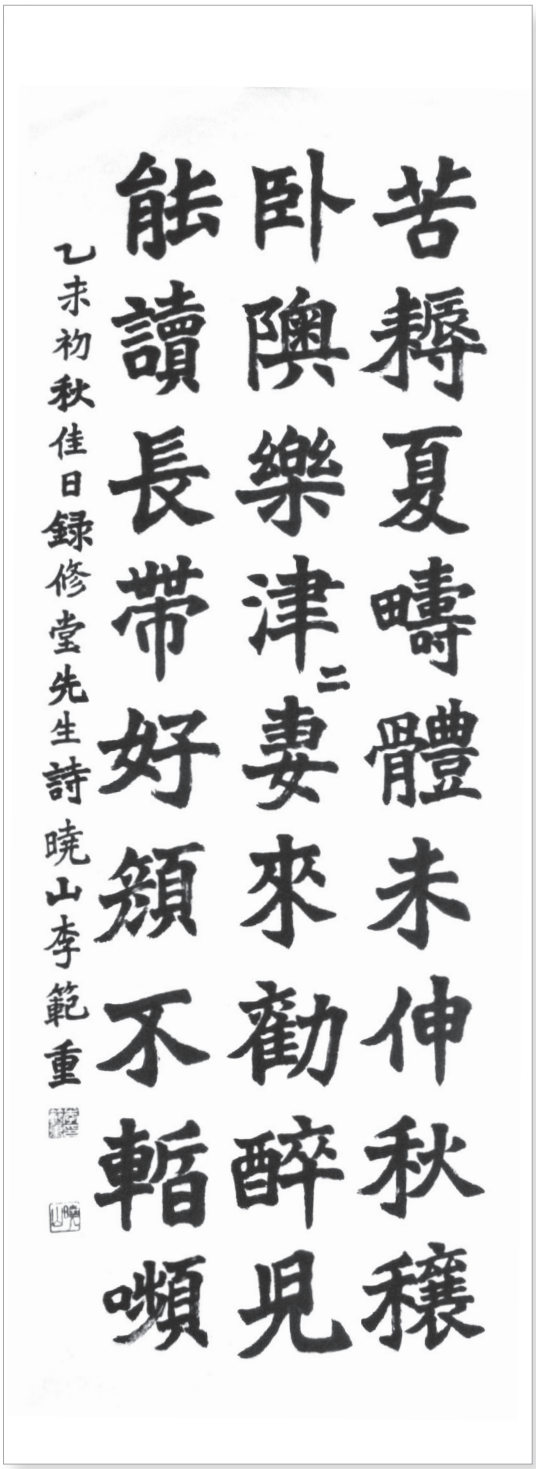
원 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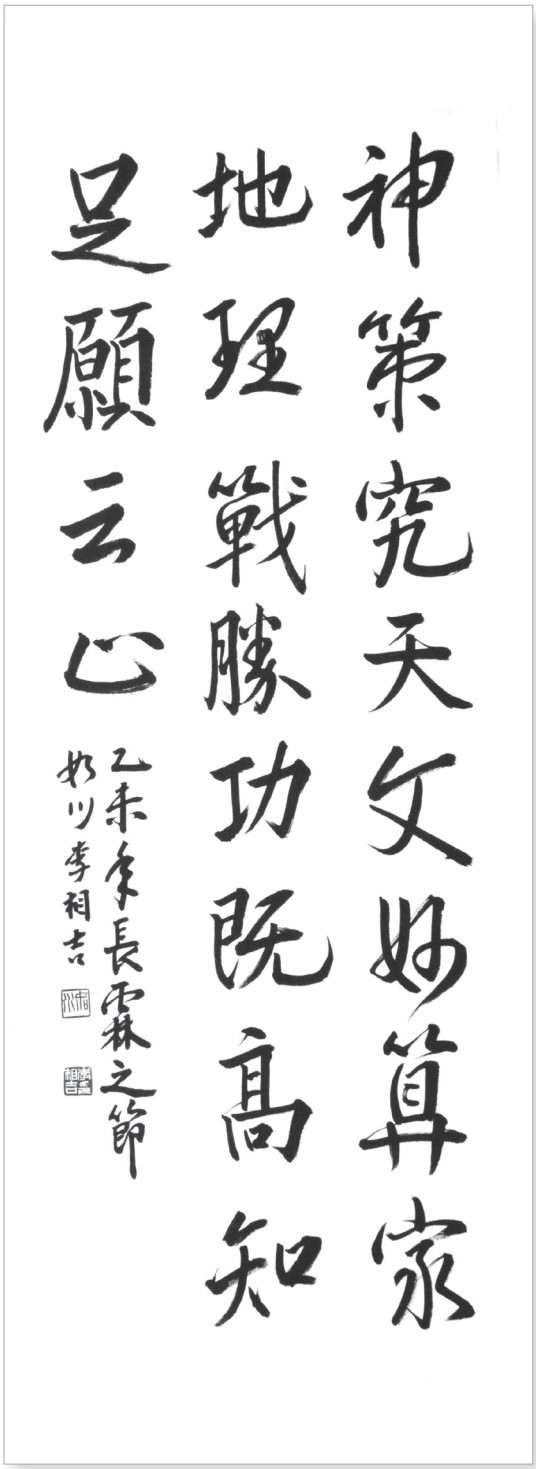
윤 우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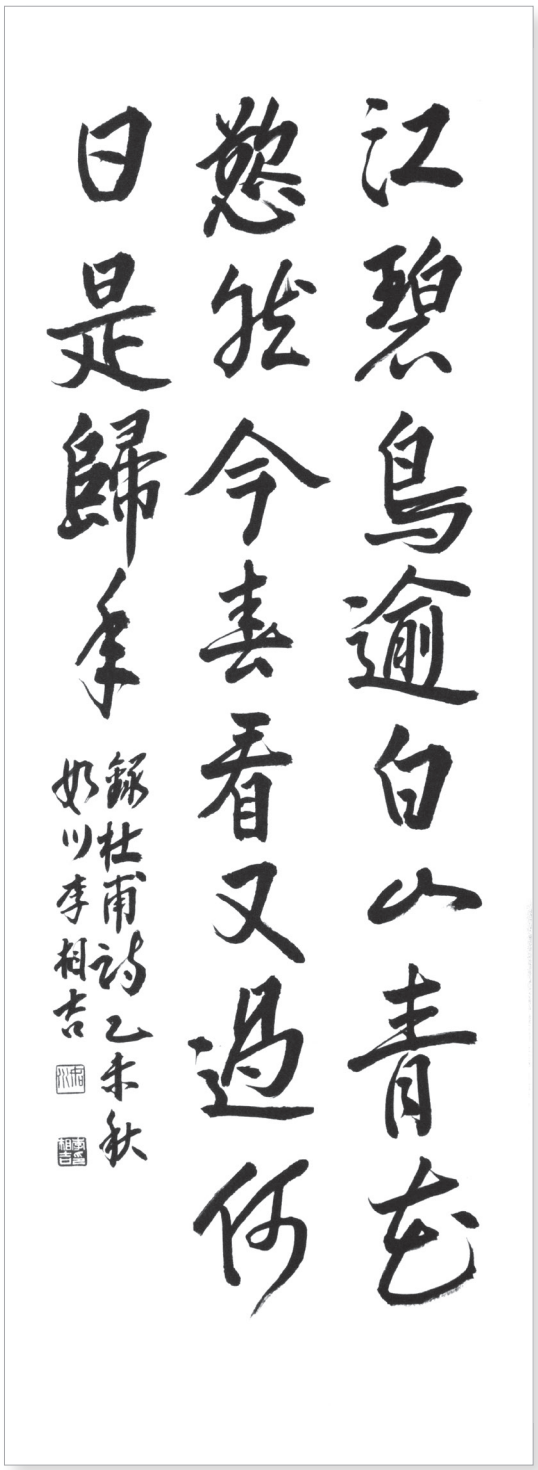
이 규 배


苦耨夏疇體未伸秋穰
卧隩樂津二妻來勸醉兒
能讀長帶好頻不輟嚬
乙未初秋佳日錄修堂先生詩曉山李範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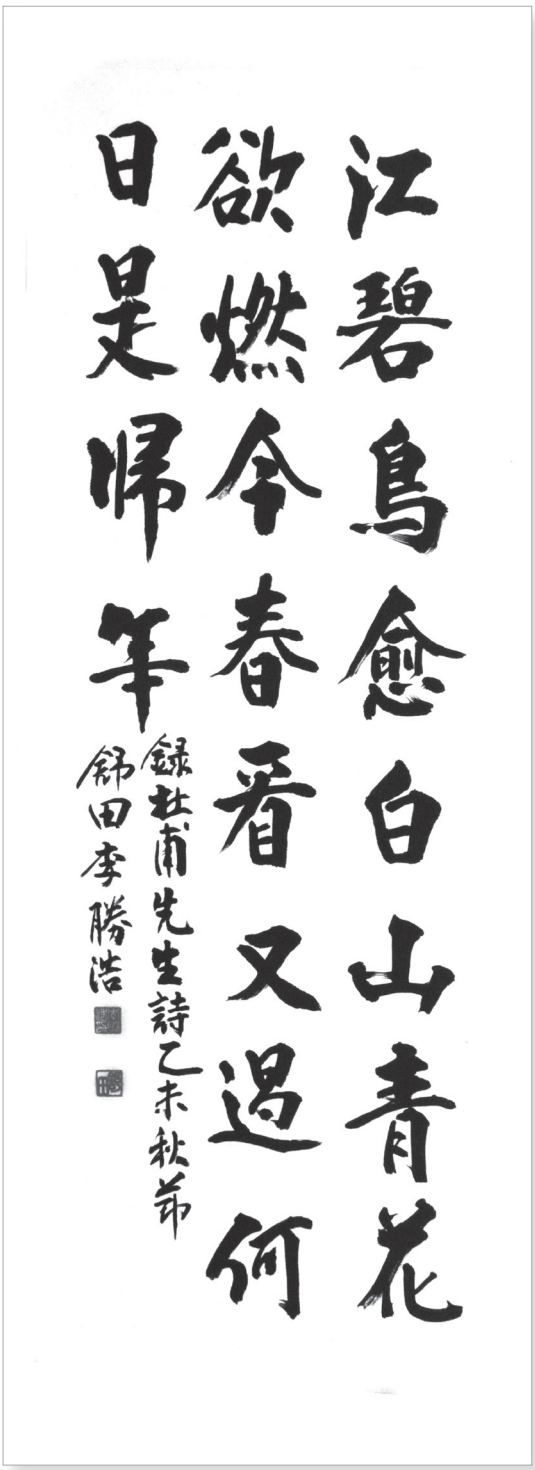
이 범 중


神策究天文妙算家
地理戰勝功既高知
足願云止
乙未季長霖之節
於丁李相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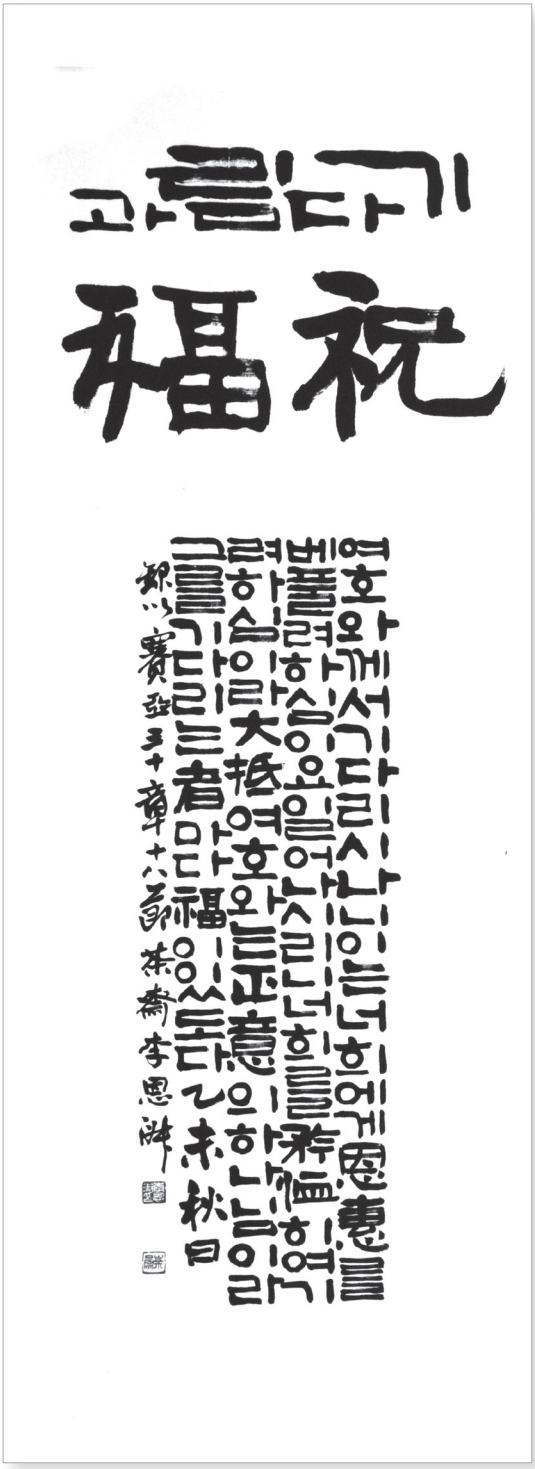
이 상 길


江碧鳥逾白山青花
欲燃今春看又過何
日是歸年
錄杜甫詩乙未秋節
錦田李勝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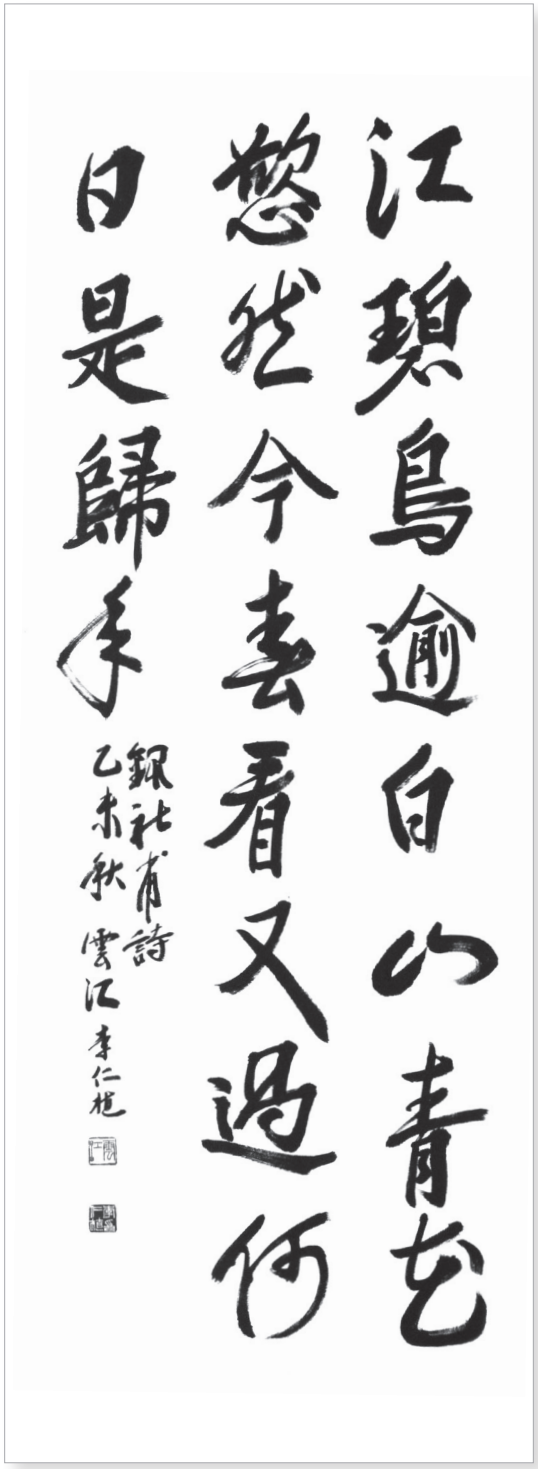
이 승 호


江碧鳥逾白山青花
欲然今春看又過何
日是歸年
錄杜甫詩乙未秋
如川李相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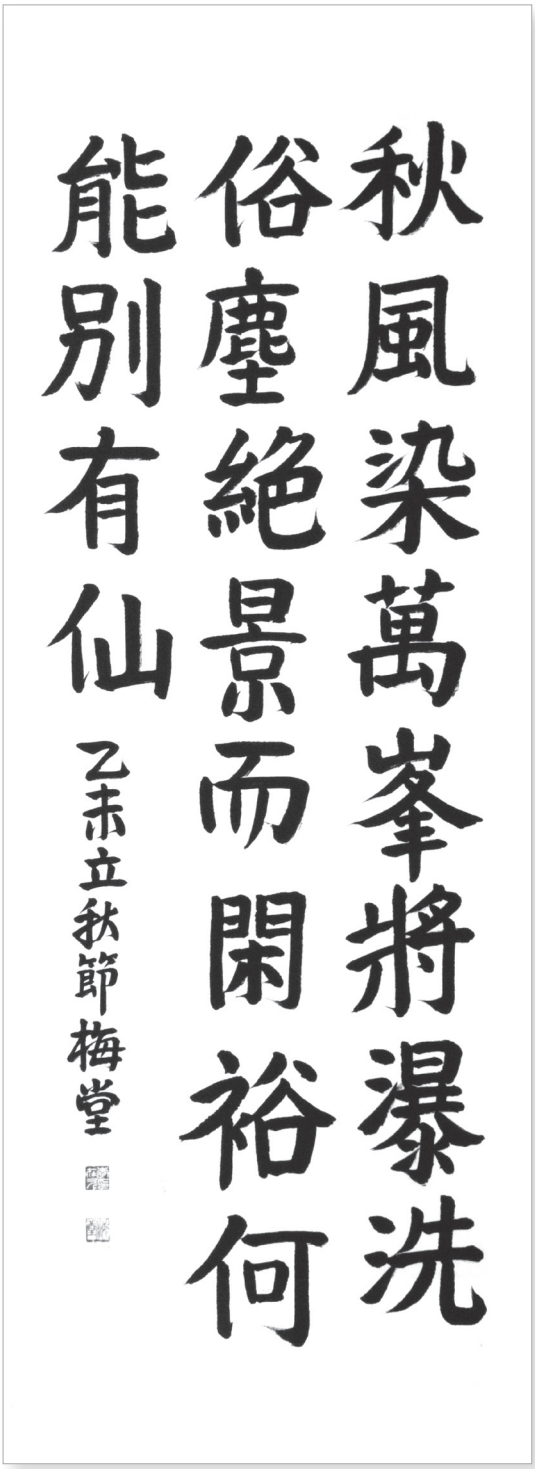
이 상 길



이 은 숙



이 인 식


秋風染萬峯將瀑洗
俗塵絶景而閑裕何
能別有仙
乙未立秋節梅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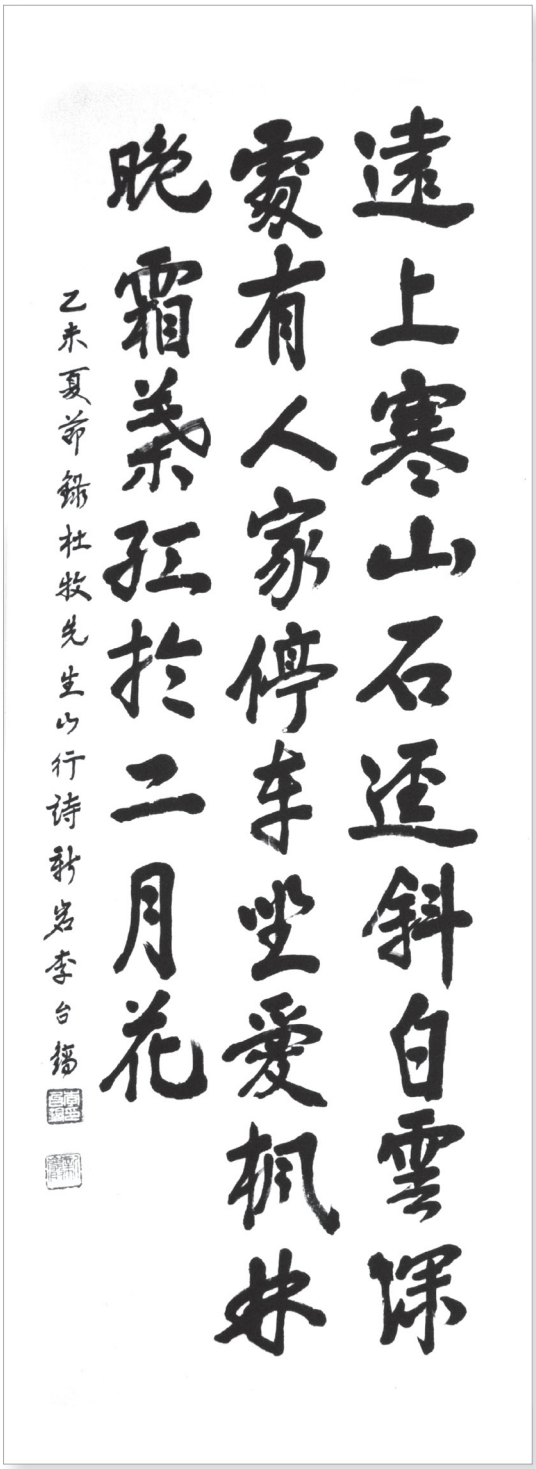
이 재 구

悵別亭皐酒新秋海
嶠愁鳳山何處是迢
遞白雲頭
錄自庵金紘先生詩
研泉李鎔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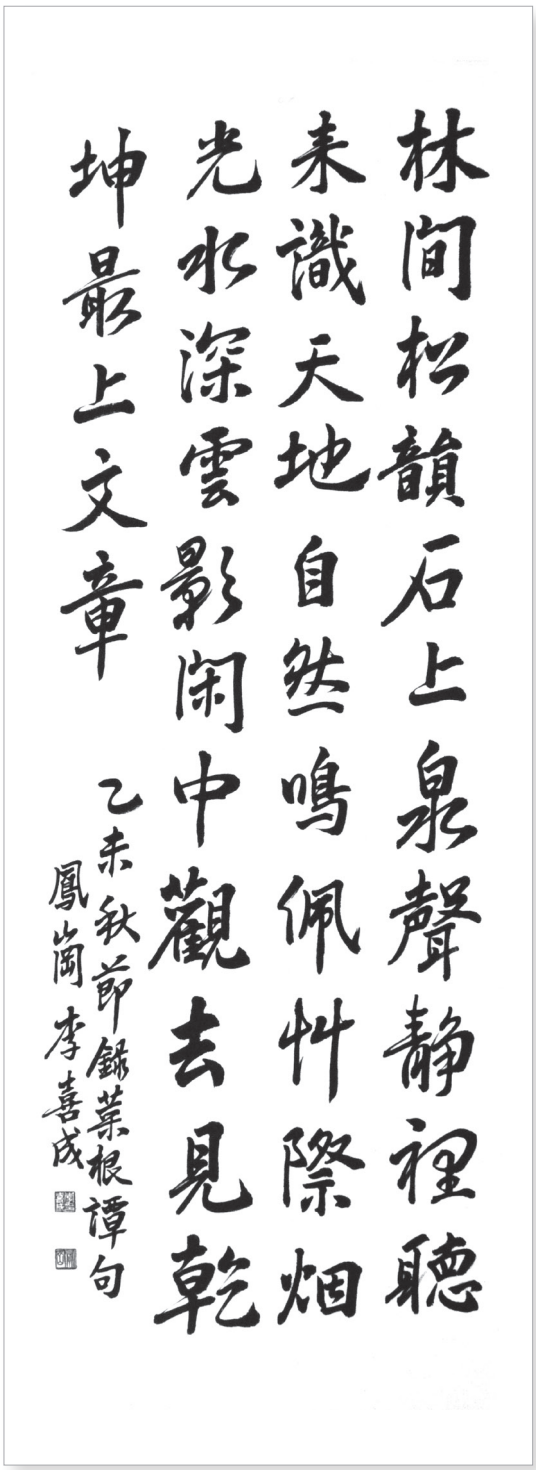
이 종 암

連翹嫌朔氣隱密備
迎春裸裎持寒苦黃
葩放質真
乙未秋錄汀村先生詩
禎庵李鎮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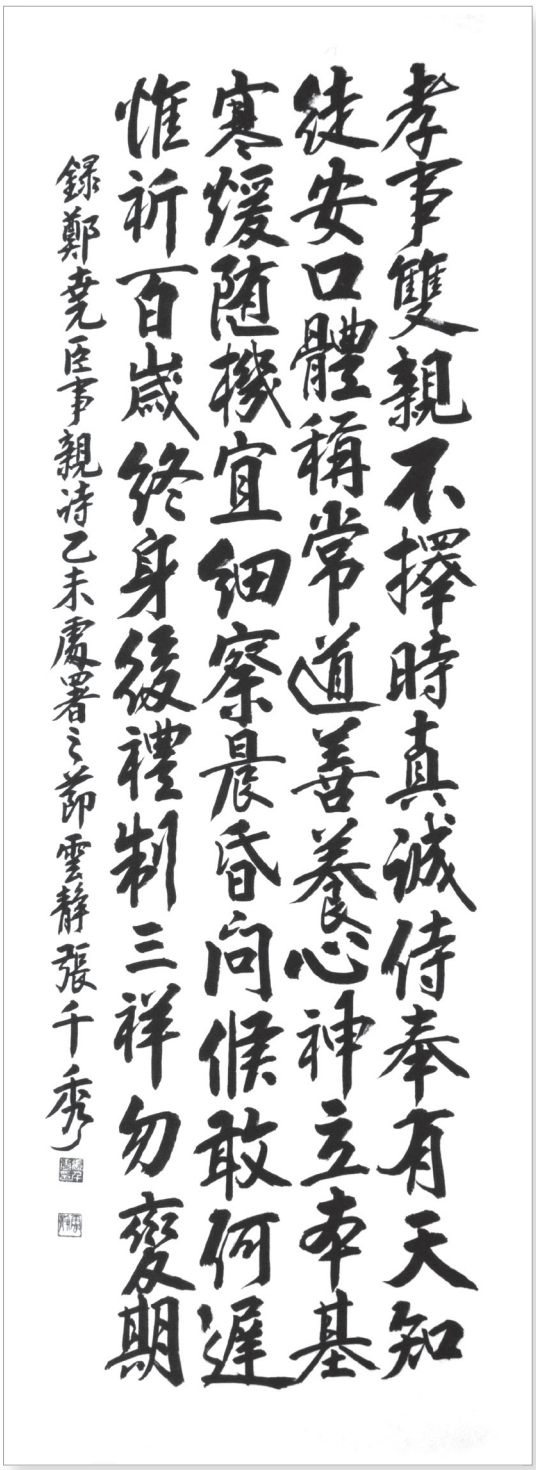
이 진 식


遠上寒山石逕斜白雲深
處有人家停車坐愛楓林
晚霜葉紅於二月花
乙未夏節錄杜牧先生山行詩 新岩李台錫

이 태 호


林間松韻石上泉聲靜裡聽
未識天地自然鳴佩忭際烟
光水深雲影閑中觀去見乾
坤最上文章
乙未秋節 錄葉根 譚句
鳳崗 李喜成

이 희 성


孝事雙親不擇時真誠侍奉有天知
徒安口體稱常道善養心神立本基
寒煖隨機宜細察晨昏問候敢何遲
惟祈百歲終身後禮制三祥勿變期
錄鄭堯臣事親詩 乙未處暑節 雲靜 張千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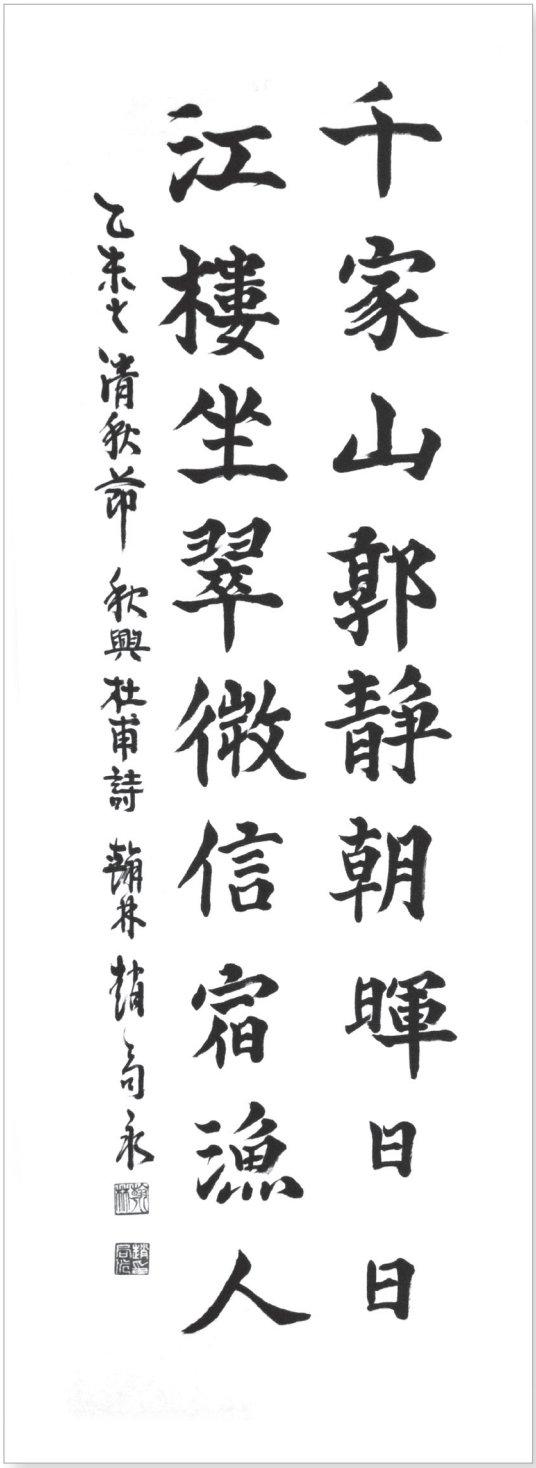
장 천 수

採藥忘迷路千峰秋
葉裏山僧汲水歸林
末茶煙起
錄 栗谷先生詩 乙未孟秋
雪松 田宇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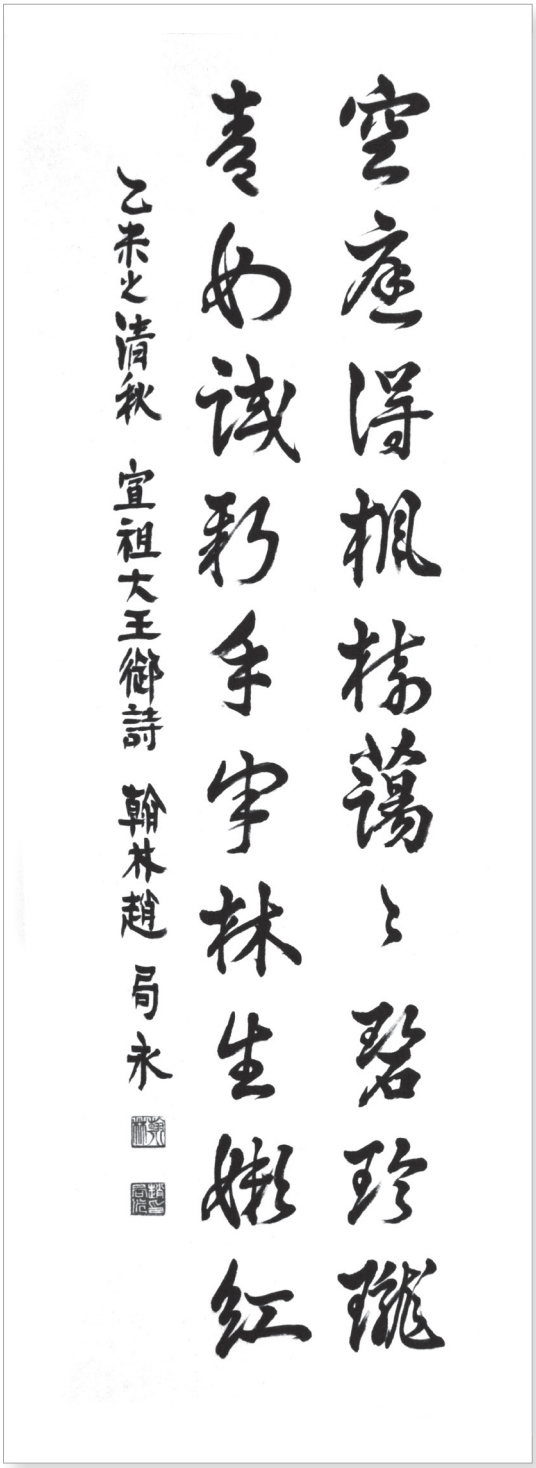
전 우 진

玉不琢兮難器物讀
書增智自成功富不
驕人富不盡賢無凌
賤貴無窮
錄金泳璧先生詩 乙未初秋
義服鄭殷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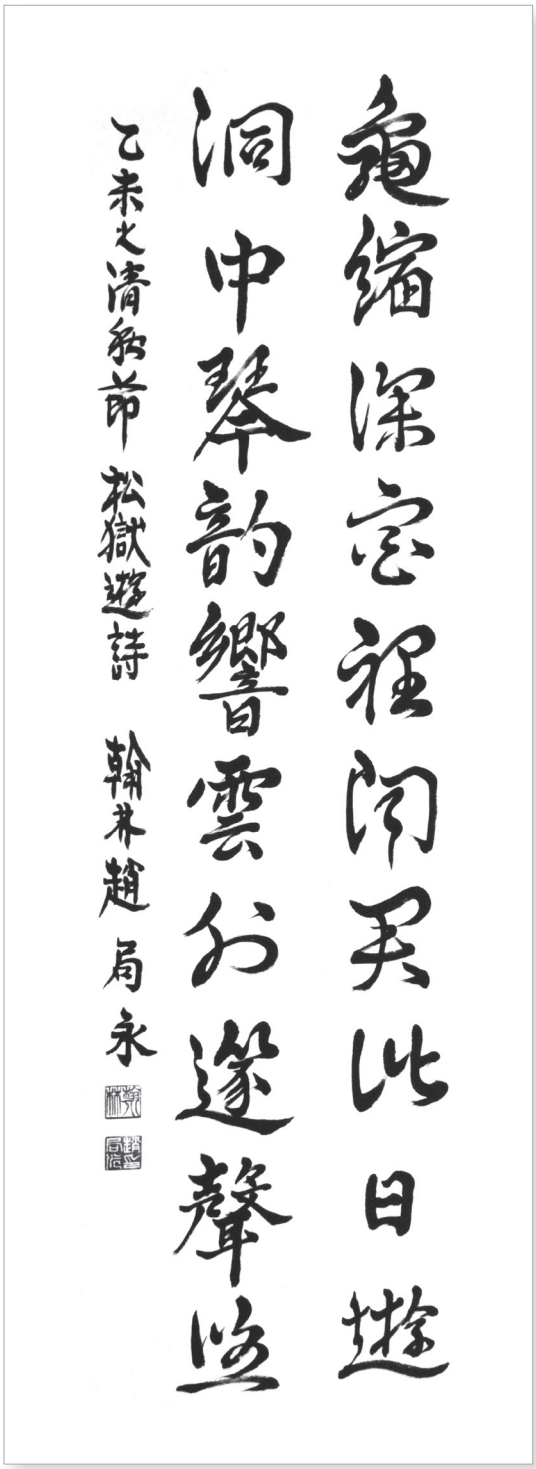
정 은 량



조 국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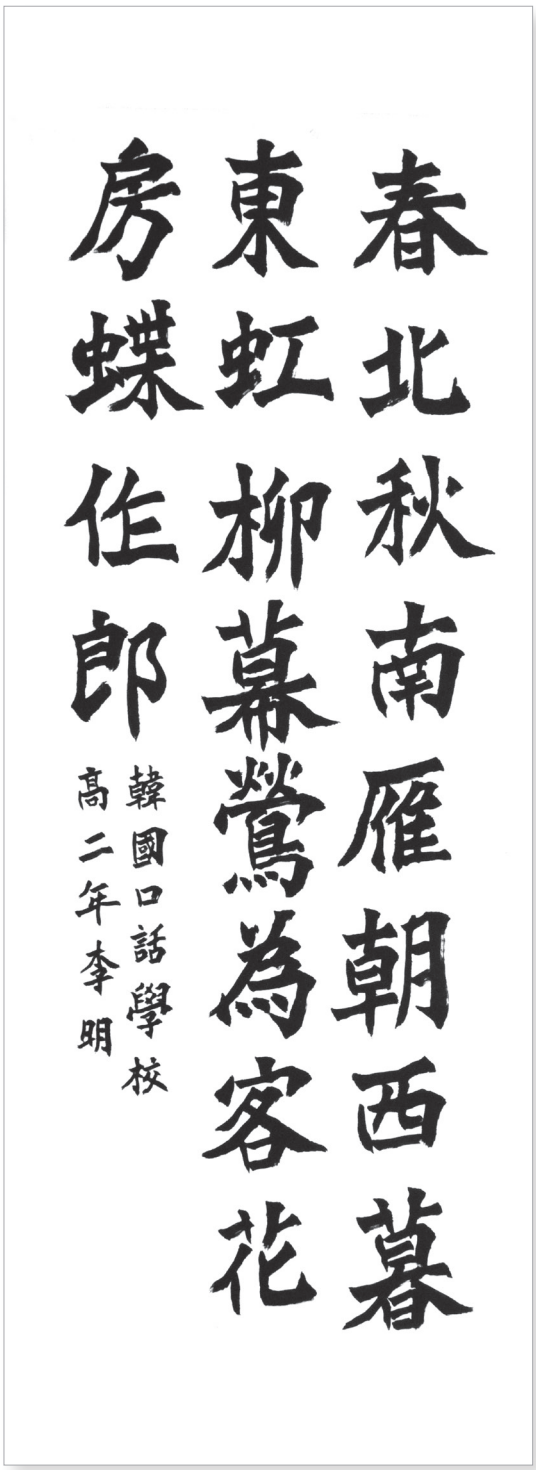
조 국 영


龜縮深宮猶閉戶此日遊
洞中琴韵響雲外遂聲遠
乙未之清秋節 松獄遊詩 翰林趙局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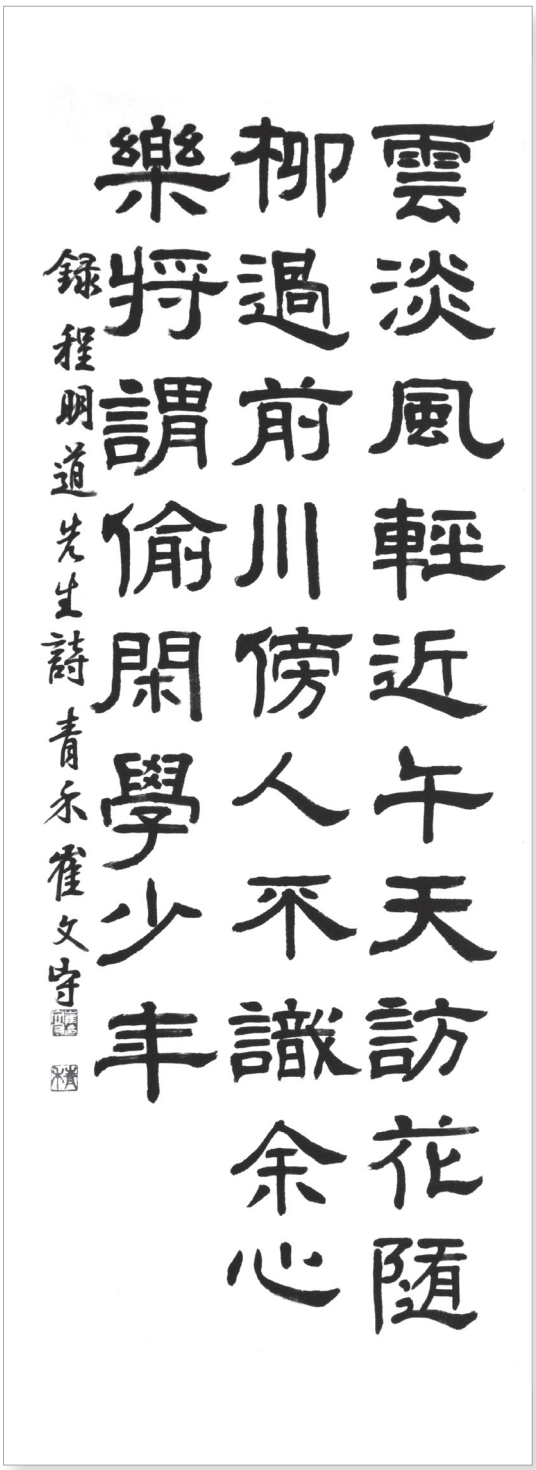
조 국 영

無藥可醫卿相壽
有錢難買子孫賢
錄明心寶鑑 乙未秋仲夏仙岩陳鉉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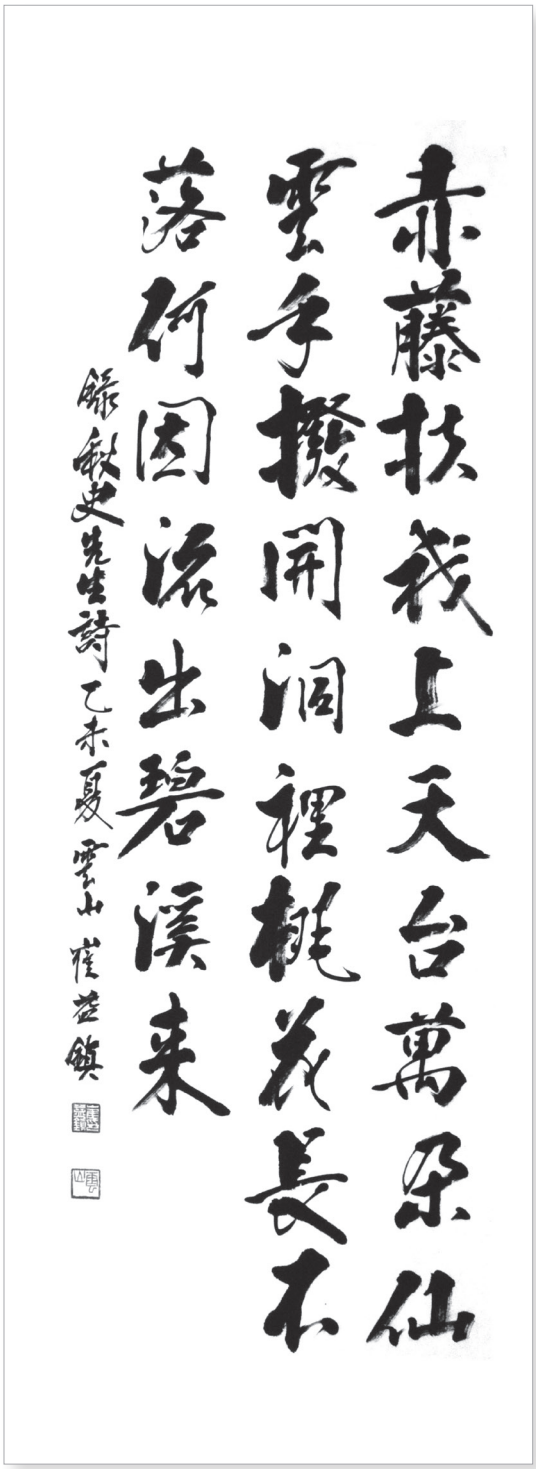
진 현 복


春北秋南雁朝西暮
東虹柳幕鶯爲客花
房蝶作郎
韓國口話學校
高二年李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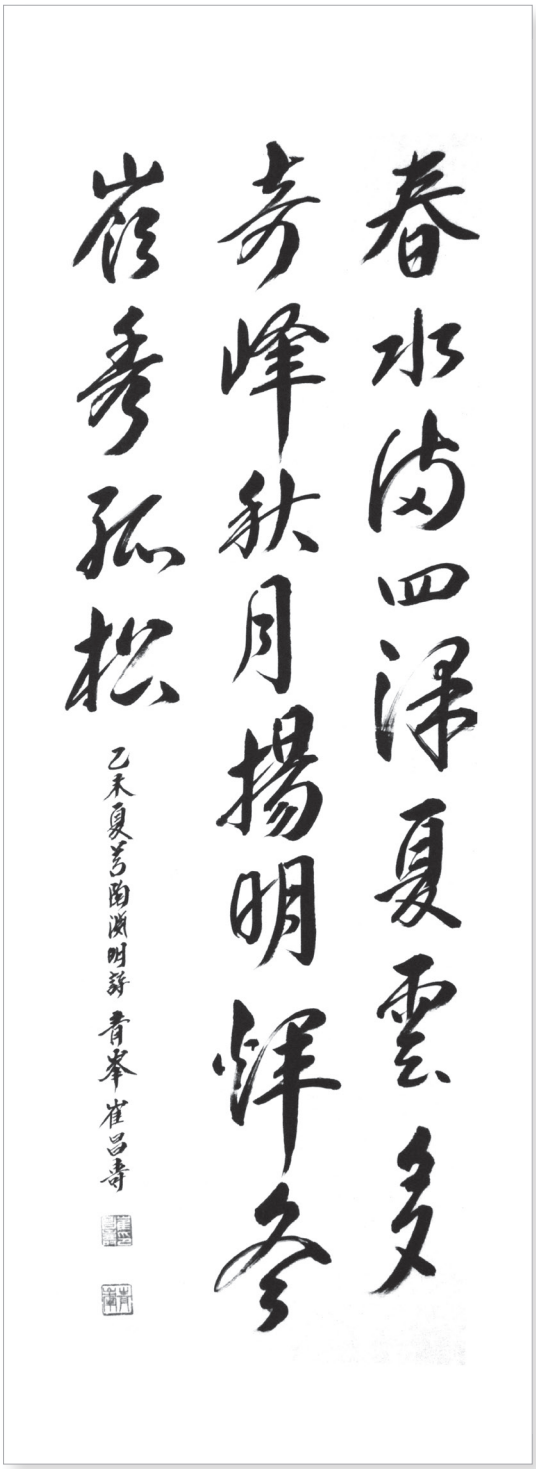
촌 월 명


雲淡風輕近午天訪花隨
柳過前川傍人不識余心
樂將謂偷閑學少年
錄程明道先生詩 靑糸崔文守

최 문 수



최 익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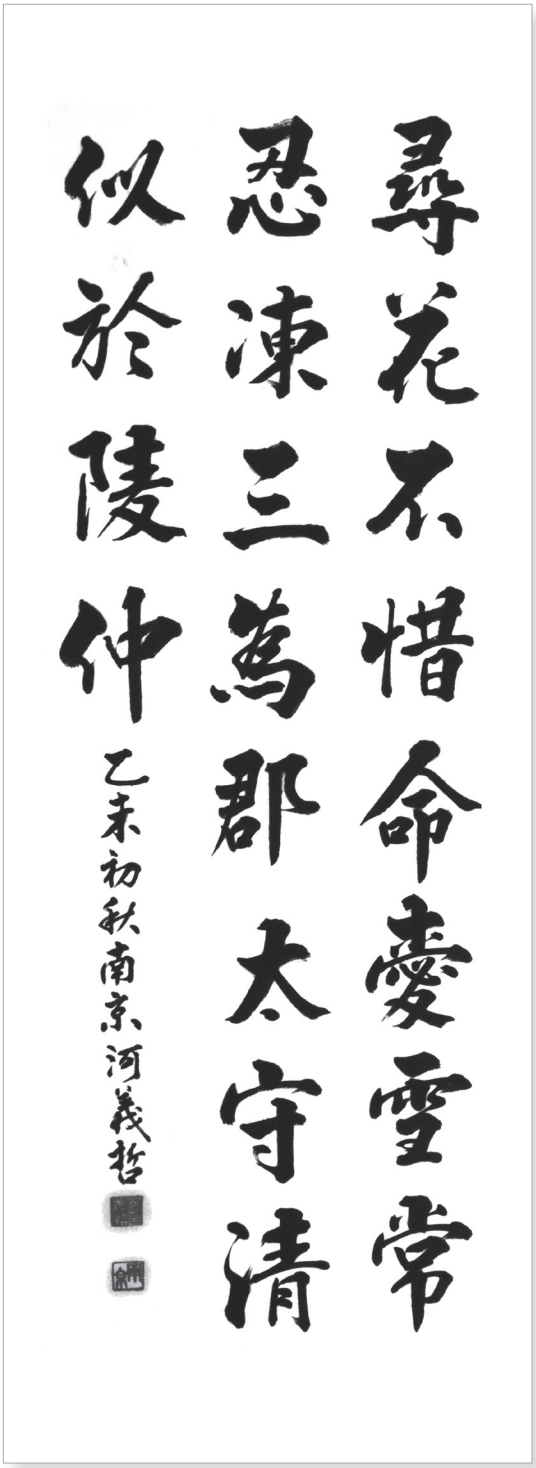
최 창 수

白日莫虛送青春不
再來花有重開日人
無更少年
乙未夏苦青峯崔昌壽

최 창 수

爲善者天報之以
福爲不善者天報
之以禍
乙未夏苦明心寶鑑白青峯崔昌壽

최 창 수



하 의 철

2015 조선 4대 명필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우) 324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Tel 041)335-2441, 333-2441 Fax 041)334-4330
http://yesancc.or.kr/